



4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4호

(루게 438)



◆◆◆◆◆◆◆◆ 차 례 ◆◆◆◆◆◆◆◆

만경대의 꽃바다	4
만수대에서	5
못잇을 그날의 흰눈송이 (외 1 편)	5
봄 하늘	6
경사로운 명절의 밤	6
거창한 흐름	7
당이 제시한 종자리론은 문학작품창작의 비결에 관한 새로운 발견	20
향도의 해발은 살림집에도 (외 1 편)	25
휴양소에까지 찾아오시여	25
향도의 별 김정일 동지	2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올립니다	27
향로의 별	28
아, 우리 수령님	32
만경대를 찾아서	39

주체사상탑시초	43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외 1 편)	46
그대들이 캐여 내는것은	47
시련을 뚫고	48
탄부들에게!	60
푸른 상호등	61
첫 나들이	63
어머니	69
나의 행복	77
약 속	78
대답을 하라 무엇때문이나	80

만경대의 꽃바다

문동식

만경대
태양의 요람이여
따사로운 봄빛에 억만꽃들이
피어나 설레이는 은혜로운 고향이며

여기서
저 푸른 우주가 열리고
력사의 새시대가 밝아 왔구나
한포기 풀, 한그루나무에도
혁명일가와 숭고한 뜻 어려있나니
아, 새삶의 환희로 가슴 높뛰여라
경건히 바라보면 나를 반겨주는듯
초가집 뜰앞에 군함바위두리에
설레는 꽃바다, 꽃바다의 물결이여

에서 탄생하신 우리 수령님
어둡던 세월에 빛을 뿌리실 때
그 빛을 안고 신념에 불타며
피바다를 헤쳐 싸운 민족의 넋이
저리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구나

피었구나 꽃으로
밀영의 밤
장군님 들려주신 만경대의 이야기...
그리운 고향의 품속에 안긴듯
잠 못들던 투사들의 모습이

수난의 눈보라 세차던 세월
낳아키워준 어머니 계시는
못잊을 고향인양 조국애의 마음을

가슴마다 심장으로 안겨준 품이여
오늘은 여기서
영생하는 선렬들의 숨결에
내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이 밤의 한송이 꽃으로 피나니

걷는 걸음마다 사무쳐 오는
투사들의 뜨거운 음성이어
주체의 한길을 걷지 않고서는
내가 안겨 살 조국이 없고
집이 없고 미래가 없음을

혁명의 폭풍을 헤치지 않고서는
내가 누릴 행복이 없고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음을
불타는 이 가슴에 새겨주어라

유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는 저 우주에 넘치는
사랑의 해빛 안고 만민의 마음
만가지 꽃으로 피어나는 고향

아, 만경대
초가집 사립문은
세월을 불려 언제나 열려있고
뜰앞엔 꽃바다 만발한 꽃바다
인류의 태양 수령님 우러러
만수축원의 꽃으로 피여있어라

만수대에서

리의석

만수대에 오른 시간은
얼마나 짧았던가
수령님 영상 우러러
숭엄한 내 마음
얼마나 행복했던가
만일
시계의 초침이 이때처럼
빨리 편다면
백년이 며칠새 다 가고말리

만일
사람이 이때처럼
늘쌍 큰 행복에 젖어있다면
천년이 가도 늙음을 모르리

위대한 수령님 몸가까이 웅위하는
저 친위전사들의 맨 뒤자리에 선다 해도
나에겐 더없는 영광!
티없이 맑은 충성심 간직하고
순간이나마 단 한번이나마
스스로 나를 세워볼수 있는것이...

아, 만수대에서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일생의 행복을 다 안고
일생의 영광을 다 안고
수령님의 영원한 초병으로 살리!

못잊을 그날의 흰눈송이 외 1편

구희철

흘러서 세월은
가고가도
마음속엔 언제나
그날의 흰눈송이

드넓은 포전길
찾아주신 그날
수령님 어깨우에 내리던
못잊을 흰눈송이

온 길은 몇천리
간 세월은 몇몇해
길이야 멀었고 세월이야 갔어도
녹을줄 모르는 흰눈송이

그래서 꽃잎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봄날도
눈송이 맞으시던
수령님 모습

그래서 단풍잎
한잎두잎 날리는 가을도
눈발속에 서계시던
수령님 생각

그날 그때부터 흰눈송이
수령님 바라시는 그 한길에
한순간도 못 버릴 신념을 주고
한자옥도 헛디딤 모르게 하네

세상에 흔한것 눈이라지만
이제는 귀한것 눈이 되어서
마음의 하늘가에 늘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흰눈송이

한평생 맞으시는 그 눈송이
행복한 오늘도 맞고 계시니
내리고 쌓이는 흰눈송이
천만마디 뜻깊은 말로 남는가!

수령님 맞으신 천만 눈송이
천만 심장우에 옮겨 내리네
억년 가도 변함없을 흰눈처럼
억년 가도 변치 않을 마음속깊이...

흰눈같이 순결하고 깨끗이
흰눈처럼 밝고 티없이
아버이수령님 모셔갈
소조원 우리의 마음,

아, 그날에 내리던 흰눈송이
언제나 그 시각에 살게 하며
가슴속에 내리는

흰눈송이
뜨거운 눈송이

봄 하늘

밤새 하얗게
찬서리 내리어
산에도 들에도
눈이 덮인듯 희여도

까치우는 이 새벽
랭상모판에선
아무일 없은듯
벼모가 파릇파릇

연록색 파란 잎새들엔
구슬같은 맑은 이슬
그저 즐거워 속삭이는
저 애기모들이야 어찌 알라

간밤 내리는 찬서리 막아
모판을 먼저 덮고 간 그 마음
불리는 흰서리우에
남모르게 남긴 그 발자욱을...

모판에서도 맨 첫머리
늘 보아 눈에 익은 그 자욱
들바람과 해빛에 색 날은
처녀의 덧저고리

그 마음에 이어져 따라선것
뜨락또르운전수뿐이던가
술하게 찍혀진
발자욱 발자욱

아, 온 농장의 마음
얼마나 감격의 눈길로 바라보았던가
그 발자욱
모판에서도 첫머리에 찍힌
소조원처녀의 수수한 발자욱

수령님 바라시는 마음이 되고
수령님 믿으시는 당의 눈이 되어
하늘아래 또 하나
그대는 사랑의 봄하늘을 펼쳐놓았구나

해빛같이 스미는 그 진정 그 사랑 넘쳐
찬바람 찬서리에도 오히려 웃으며
파란 애잎은 기쁨을 속삭이나니

아, 소조원처녀의 마음
주체농법 꽃피워가는 그 마음은
풍년모판우에 건듯 비낀
맑은 봄하늘
따사로운 봄하늘

가사

경사로운 명절의 밤

안 정 기

우리 행복 꽃보라로 저 하늘에 피였는가
우리 기쁨 춤물결로 이 땅에 넘치는가
아 경사로운 명절의 밤
해와 별을 우리르며 감격에 설레이네

받은 사랑 마음속에 산이 되어 솟아있고
받은 은정 가슴속에 바다로 출렁이네

아 감사의 정 넘쳐흘러
이 한밤이 깊어 가도 사람들 잠못드네

태양솟아 밝은 나라 별이 빛나 꽃핀 나라
만수축원 노래속에 희망은 나래치네
아 경사로운 명절의 밤
해와 별을 높이 받들 맹세도 뜨거워라

거창한 흐름

리장후

1

침묵이 무겁게 드리운 전선의 밤이었다.

승용차들은 푸른 달빛이 흘러내리는 청암산계곡을 질러나갔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험한 길에 간단 없이 들추는 승용차의 등반이에 몸을 기대이신채 짙은 화약내를 풍기며 달려오는 불 타버린 산밭쪽을 이윽도록 내다보시였다. 길옆 벼랑우에는 은모래를 뿌린듯한 밤하늘이 휘연히 펼쳐졌다. 산너머 하늘가 녘에서 갑자기 우르르 폭음이 들려오더니 그쪽에서 날카로운 예광탄빛이 어둠을 확 녹이였다.

장군님의 옆에 앉은 최무혁은 사뭇 긴장한 눈길로 차창밖 먼 하늘가에서 명멸하는 예광탄빛을 일별하였다. 아직 마흔을 멀리 바라보는 젊은 사단장은 정황이 불리한 때에 장군님께서 최전원으로 나가시는 일이 노상 마음에 걸리였다.

전선사령부에 나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청암산을 일거에 점령하고 작전 2일에 벌써 남진강 계선에 진출한 기본전선의 최무혁이네 사단앞에 조성된 정황을 알아보시였다. 적들은 청암산을 마지막 지령점으로 하여 그 계선을 완강하게 유지하려던 작전기도가 하루밤사이에 파탄되자 남진강 남안에 밀집된 병력밀도와 빈틈없는 차단물체계를 형성해 놓고 집요한 반작용으로 아군의 강행도하를 불허하려고 시도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래도 최무혁동무네가 어렵겠다고 하시며 그곳 사단지휘소에 나가보자고 어슬턱에 길을 떠나셨던것이다. 최무혁은 검푸른 창공의 초밤별들을 내다보며 장군님께 말씀올릴 사단의 강행도하 계획을 머리속에 더듬어보았다.

대안진지점령을 위한 전투는 치렬할것이다. 무엇보다 놈들이 끌어다놓은 대량의 포무력을 사포군의 화력으로 진압하자면 어방없다. 역시 우회대 문제는 선차적인것이다. 폭로된 적의 익측 린접점을 리용하여 결사대로 행동해야 할 우회대에 누구를 파견할것인가?...

험한 벼랑굽이를 돌아 나온 승용차는 양푼달이 물위에 떠있는 실개천옆을 따라 깎아지른듯한 협곡을 주름잡았다.

문득 건너편 메부리에서 신호탄이 솟아올랐다. 잇달아 포성없는 축축한 대기를 흔들며 엄청난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쪽을 바라보시며 대견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우리 동무들이 야간습격훈련을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잘하오. 동무네 사단이요?》

《예. 82련대 3대대 7중대 동무들입니다.》

젊은 사단장은 격전준비를 다그치고있는 대대들과 중대들의 위치와 훈련장을 손금보듯 알고있었다.

《차를 좀 세우오.》

장군님께서서는 길옆에 내려서시였다.

봄의투자락을 날리시며 건너편 산밭을 바라보시였다. 승용차들이 뒤이어 멎고 수원들이 그이의 옆으로 바빠 모여왔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며칠전 달빛없는 그 밤에 복수에 타 뚫는 가슴을 내대고 보병삽으로 육박전을 벌리였던 전사들의 급한 숨결을 느끼시는듯 생각깊으신 눈길로 료박이 뚜렷한 청암산의 푸른 바위들을 오래도록 더듬으시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방침대로 작전 1일에 놈들의 강화된 방어진지인 청암산을 폭풍같은 돌격으로 점령할 때 사단은 사자같은 용맹을 떨치였다.

교묘한 달빛이 어루만지고있는 저 이끼덮인 바위우에서 처절한 육박전이 벌어졌었다. 복수의 일념으로 눈에 달이 돋은 한 전사는 보병삽날로 일곱놈을 후려쳐눕히고 적의 총창에 복부를 찔리우자 다시 으쓱 일어나 도망치려는 적장교놈의 목줄을 틀어잡고 몇바퀴 덩굴다가 아득한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렇듯 간고하게 청암산을 점령하였을 때 해가 잘 비치고 먼 남쪽이 바라보이는 평평한 산릉선우에 사단의 우수한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물었다.

영별의 조총소리가 푸른 바위 철벽을 때리며 슬프게 메아리치던 그 음산하게 흐린 날 저녁에 장군님께서서는 련락군관이 가져온 최무혁소속사단의 전투상황보고를 받아읽으시였다.

그날의 격전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없고 달빛의 음영이 서린 힘준한 산세를 바라보시였다. 화염에 타버린 가독나무들이 건성드뭇하게 서있는 어느 바위, 어느 절벽우에서도 우리 전사들이 조국에 바치고 간 영원한 삶의 마지막 웨침소리가 산울림 하여 울려오는것만 같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길옆에서 달빛이 부서 지는 개울물이 바위와 벼들숲을 후려지며 씹아 여울목으로 내달렸다.

《야간훈련장을 돌아보고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등근달이 일렁거리는 개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최무혁은 저으기 놀라는 표정으로 같이 서있는 장령들을 돌아보았다. 사단지휘소는 여기서 반마장 남짓한 앞에 있었다. 장군님께서 한시바빠 사단 작전계획을 봐주신후 적군 폭격기들이 하늘을 어지럽히

기전에 전선사령부로 돌아가시었으면 하는것이 최무혁의 절박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분초가 바쁘신 그이께서 전사들의 야간훈련장을 찾으시지 않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개울을 건느시여 어스름에 잠긴 골짜기로 오르시었다.

전사들의 돌격 함성이 꺼져갈 때 산벼랑우의 들성한 가독나무사이에서 지휘관의 호각소리가 날카롭게 울려왔다.

《다시! 소대장들은 나의 앞으로!》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며 한손으로 허리를 짚으시었다.

메부리에 가리워 달 그늘이 진 저편 벼랑쪽으로 묵묵히 내려가는 대오를 잠시 살펴보시었다.

《반복동작이구만... 청암산공격전에 참가한 중대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도 청암산공격전을 잊지 못하고계시었다.

《아닙니다. 중대장이...》

최무혁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인차 말씀올렸다.

《중대장이 모험을 했기때문에 련대장의 경고처벌을 받고...》

《과오를 범하고 청암산전투에 참가하지 못했구만.》

《그렇습니다.》

최무혁은 사단이 청암산공격전에 립하기전, 삼두봉계선에서 갈범같은 중대장이 발휘한 모험과 련대장이 경고처벌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답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청암산전투가 있기 닷새전, 비꽃이 푸득푸득 날리는 어둑새벽에 가평고개를 전진과정에 점령하고 그를 유지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7중대장은 갑작스레 퍼붓기 시작하는 비속을 뚫고 맹돌격으로 고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 거기에 한개 분대가량 인원을 떨군 그는 중대를 이끌고 밋밋한 룡선을 우회하여 련대의 차후 공격지점인 삼두봉을 후면으로부터 습격하였다. 중대의 습격은 무참하게도 실패하였다.

82련대장이 소낙비처럼 순식간에 닥쳐온 위험을 깨닫고 삼두봉에 대한 세계 중대의 정면공격을 불의에 개시하지 않았던들 중대는 하마트면 적군 포위속에 들번한였다.

전후투 비 쏟아지는 삼두봉에 나타난 련대장은 목단추를 벗기며 추상같은 목소리로 중대장을 추궁하였다. 그런데 당사자인 중대장은 빈뜩이는 강한 눈빛으로 마주 버티고 서서 가평고개가 떨어지자 삼두봉지휘부놈들이 도망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을 설명한후 적군지휘부가 도망치면 련대작전이 파탄되는관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련대에서 중대를 직접 지휘하는만큼 중대장은 항상 두 단위우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투가 변명조가 아

니라 정당한 주장처럼 울리자 《절벽강산》이라고 불리우는 련대장은 퍼렇게 질린 얼굴로 최무혁을 찾아와서 7중대장을 전사로 《강직》시키자는 사정없는 제의를 내놓았다.

최무혁은 전후사연을 다 들어보고나서 중대장을 사단지휘부천막으로 불렀다. 최무혁이 7중대장을 처음 만나본것은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총탄과 류산탄 파편에 온통 찢기고 물참봉이 된 군복우에 짝 조여 맨 혁띠를 나무등결같은 손으로 슬뻗슬뻗 만지며 들어선 중대장은 그 어떤 처벌도 다 받을 각오가 되어있는 태연한 시선으로 사단장을 쳐다보았다. 최무혁은 그제서야 그가 영친사가 전투때 적중기화점이 불을 뿜는 2층집밑으로 반땅크수 류탄을 랑손에 거머쥐고 몇고패 덩굴며 뛰어 들어간 그 성칼사나운 중대장임을 알아보았다.

그후 언젠가 오락회장소에서 갈범같은 그 중대장이 탁한 목청으로 흰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쳐다보며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를 부르는것을 옆에 서서 구경하였는데 그때 최무혁은 천진한 랑만이 샘물처럼 출렁이는 그의 눈을 보고 저 사람에게 저런 다감한데가 있었나 하는 놀라운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최무혁은 웬일인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중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모험은 하지마오.》하고 한마디 하여 그를 돌려보낸 다음 련대장을 불러 경고처벌을 주게 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단장의 이야기를 매우 흥미있게 들으시었다.

《그러니까 중대장은 늘 련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던말이지.》

《예》

《허허, 모험은 했지만 중대장이 아주 결작이요.

늘 두 단위우를 살펴본단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벼랑앞에 정렬해선 대오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창끝을 묶어세운듯 한 대오와 마주선 중대장은 반복구령을 내린 원인에 대하여 짤막하게 결함을 지적하고있었다. 보견대 중대장은 정연한 전투질서와 요란한 만세소리를 이루지 않고는 새벽까지 반복훈련할 결심인듯 싶었다.

《결함을 알만하오?》

《알았습니다!》

대렬의 힘찬 대답이 벼랑턱에 쟁 울리었다. 항용 전선에서 그러하듯이 엄한 성정을 지닌 그것으로 하여 중대장의 신망이 높다는것이 전사들의 대답에서 울리었다.

하지만 장군님의 뒤를 따르는 최무혁은 웬일인지 걸음이 무춤해지고 더디여지는것을 느끼었다.

경고처벌을 받았으면 좀 자중해야 할 사람인데 방금전의 야간훈련도 중대가 《적》 1호참호로 돌입할 때 자기 식으로 만세합성을 와와 부르게 하였다. 당초에 그런 질책이 어디 있는가.

하필이면 청암산길녘에 7중대 훈련장을 정해준
련대장이 민망스럽게 그지없었다.

바재이는 사단장의 가슴이 조여들거나 말거나 중
대장은 탁한 목소리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흠어져앉아 《하나 셋!》,
《셋, 열!》, 《열, 다섯!》하며 왁작작작 맞박수 치
기를 벌려놓은 전사들 옆으로 걸어가시었다.

소대장들과 분대장들을 모여놓고 이야기하던 중
대장은 벼랑밑의 어스름속으로 걸어오는 일행을 발
견하고 맞받아 걸어왔다. 허나 몇걸음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춘 중대장은 군모채양에 손을 올린채 굳어
져버렸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너무 뜻밖인듯 다음 말
을 잊지 못하였다.

《수고하오. 중대장동무.》

장군님께서는 물안개가 핑 도는 눈으로 서있는 중
대장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가만, 이게 누구요. 동해제철소 서병철동무가 아
니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이께서는 무척 반가우신 눈빛으로 포화에 꺼밋
하니 그슬린 서병철의 선이 붉은 얼굴을 마주 들여
다보시었다. 그새 몰라보게 관공이 불거져서 더욱
억센 인상을 주는 서병철의 물기어린 두눈에는 격렬
한 환희와 넘치는 기쁨이 잉결볼처럼 피어났다.

《그래 언제 입대했소?》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에 입대했습니다.》

《허허, 동무성미야 어대 갈데 없지. 그런데 벌써
중대장이 되었구만.》

서병철은 부소대장으로 있다가 지난. 겨울 단기속
성군관양성반을 졸업했다고 스스로없이 말쑹올렸다.

《잘했소.》

장군님께서는 기쁘신듯 서병철의 어깨를 두드리
주시며 수원들에게 소개하시었다.

《이 동무는 동해제철소에서 청년작업반장으로 일
할 때 파괴된 용광로가스배출관을 아예 땅에서 조립
해서 권양기로 단번에 끌어올렸소. 기중기 없이도
30톤이 넘는걸 단번에 들어올렸단말이고.》

마음을 조이며 뒤전에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최무혁은 어마지두 놀란 눈길로 서병철을 건너다 보
았다. 중대장은 노상 싱글벙글 웃고만있다. 처벌을
받고 청암산공격전에 참가하지 못했으면 기가 좀 죽
어서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을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
음이 느즈러진 얼굴을 뒤흔쳐 쳐들고 얼마나 의젓하게
서있는가. 한데 저 사람이 기중기도 없이 30톤을 탕
경 들어올렸다면 그건 대단하지 한번 만나본 일이
있으면서도 서병철중대장에게 그런 공적이 있는줄
은 전혀 몰랐던 최무혁은 장군님앞에서 스스로 얼굴
이 붉어짐을 느꼈다.

장군님께서는 수원들에게 1년사이에 용광로를 복
구하던 그때 일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시며 전사들앞
으로 걸어가셨다.

아낌없는 빗발을 줄줄이 들붓고있는 은대야같은
보름달이 장군님과 전사들의 마주웃는 얼굴을 밝게
비치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장군님께서는 전사들
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생각나신듯 웃으시며
서병철을 돌아보시었다.

《참 병철동무, 그 권양기운전공동무가 이름이 전
순이던가?》

《예?!》

지병철은 얼굴이 빨개져 허둥거렸다.

그이께서는 어색해하는 중대장의 얼굴표정에서
시선을 때지 못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었다. 안개낀
제철지구의 어느 여름밤이 눈에 선히 떠오르시 었던
것이다.

불밝은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고 흥성거리는 공
장구내를 거니시던 장군님께서는 외등이 우뚝이 비
친 수양버들밑에서 훈풍에 춤추듯 흐느적이는 버들
가지를 잡아당기며 마주서있는 역대우같은 총각과
애련한 처녀를 발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멋모르고 옆에 나서려는 제철소 당 위
원장의 팔을 급히 잡으시며 인자하신 눈길로 그쪽을
가리키시었다.

총각은 낮에 큰소리로 작업반원들을 들볶아대던
청년작업반장 서병철이요 처녀는 눈매고운 권양기
운전공이었다.

《사람들앞에서 너무 큰소리치지 마세요.》

처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총각은 대답을 못하고
먼 강변쪽을 바라보았다.

감때사나운 작업반친구들을 품짝 못하게 틀어쥐
고 냇다 소리치며 일을 내밀던 덩치 큰 서병철이 얇
전한 처녀에게 더위잡히여 품짝 못했다. 애꿎은 버
들잎만 주룩 훑으며 시리죽은 목소리로 변명하는 소
리가 들려왔다.

《내가 뭐 어드래서, 남자가 그렇지.》

《아이참, 그저 찍하면 남자래요.》

처녀의 목소리는 행복에 젖어있었다.

《저,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낼수 있을까요?》

《있지 않구.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동무두 들
었지. 우린 해방된 조선청년이란말이요. 새 조선의
기둥이란 말이요!》

서병철의 목소리는 열기를 띠었다.

《정말 그래요! ... 야 저것 보세요. 별찌!》

《허참, 동문 별찌를 처음 보우?》

처녀의 정찬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장군님께서는 당위원장을 돌아보시며 소리 안나
게 웃으시었다. 잠시 서계시다가 당위원장을 데리시
고 길을 에돌아 걸으시었다. 용접팡이 번개빛처럼

편득이는 용광로너머 노을 물든 찬란한 밤의 창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제철소를 세우고 쇠물을 끓이는가. 바로 저 동무들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못잊을 그 시절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외우시었다.

《그때 그 버드나무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구만... 그래 편지는 오오?》

서병철이 뒤더수기를 굵적이며 머뭇거리자 옆에 섰던 처녀처럼 곱살하게 생긴 소대장이 말씀올리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지난 3월초에 아주머니한테서 아들을 낳았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 그렇소? 허허 용해공대장부라, 용해공대장부가 태어났단말이지.》

장군님께서 축하한다고 하시며 서병철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자 벼랑밑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웃음속에 휩싸였다.

《아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해야겠구만. 음? 우리 용해공감이 태어났는데 큰 선물을 준비해야지.》

서병철은 얼굴이 활짝 붉어져서 머뭇거리었다.

《허허, 그대 회답은 했소?》

《아직...》

《음, 전선에 나왔다고 우쭐대는구만. 그 얄전한 동무가 동무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소? 회답이야 해야지.》

장군님께서서는 짐짓 근심어린 표정을 지어보이시었다. 서병철은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얼른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 제가 꼭...》 하며 뒤말을 못잊고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대견하신듯 어깨를 두드리주시었다.

《편지를 쓰겠단말이지. 꼭 쓰고, 미국동들에게 우리죽음을 주고있다고 쓰시오. 아들을 훌륭한 용해공감으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시오. 그리구 이제 더 큰 제철소를 세울 준비를 하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 얄전한 동무가 큰힘을 낼게요.》

장군님께서서는 포화속에서 몰라보게 역세어진 서병철과 전사들의 얼굴을 미더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가파르게 치솟은 벼랑쪽으로 걸어가시었다.

바위위에 드리운 피결과줄(피나무껍질을 벗겨 곧바줄)을 만져 보시며 희미한 달그림자가 비끼고 밤안개가 휘말리는 들쭉날쭉한 날벼랑을 한동안 쳐다보시었다. 공간에 화약냄새를 들썩 풍기며 산 허리로 불어내린 바람이 그이의 봄외투자락을 퍼득퍼득 날리었다.

《훈련장이 좋소!》

그이께서는 부지중 생각나신듯 서병철을 가까이 부르시어 야간전에서 제일 중요한건 은밀성이라고 하시며 야간에 아까 동무네처럼 만세를 부르며 돌격

하면 적들에게 위압을 줄수 있지만 그 대신 내력량이 얼마요, 또 공격방향이 여기요, 하고 자기를 폭로시킬수 있기때문에 불의의 역습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었다.

서병철은 《알았습니다.》 하며 머리를 떨구는 품이 자기 잘못을 단번에 깨달은 모양이였다.

바로 그것때문에 언덩이처럼 무겁던 최무혁의 가슴은 일순 홀가분해졌다. 그는 장군님의 바쁘신 시간을 서병철이 너무 지체시키는것만 같아 초조 해졌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정회를 터놓으시듯 서병철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며 벼랑아래 펼쳐진 장애물극복훈련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씩씩쿨로 뜬 《철조망》이며 험하게 만든 경사받이, 아찔하게 높은 외나무다리, 깊은 참호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장화와 봄외투자락은 밤이슬에 축축히 젖었다.

5월, 싱싱한 철쭉꽃이 무너지게 필무렵이었지만 찬 달빛아래 불길기 휩쓸고 지나간 골짜기에는 습랭한 기운이 떠돌았다. 화약내와 그스름내를 품은 바람이 불어왔다. 포소리 없는 밤, 준엄한 결전을 배태한 전선의 밤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 전선가까운 이름없는 산기슭에서 달빛에 총창을 번쩍거리며 날벼랑을 뛰어오르고 덤불속을 다급히 기여나가는 전사들의 격한 숨결을 날날이 감수하고계셨다. 앞으로 나가시다가 문득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엄청나게 높아보이는 외나무다리를 다시 흔들며보시며 서병철에게 물으시었다.

《너무 높아서 전사들이 힘들어하지 않소?》

구름속에서 솟아나온 달빛이 면바로 비친, 서병철의 관골이 두드러진 얼굴은 감동에 화락 젖어있었다. 원래 낮게 만들었는데 전사들이 높였습니다.》

《전사들이 훌륭하오. 동무들은 벌써 정신적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쳐놓고있소.》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신채 대낮처럼 환한 달빛아래서 노상 멍글거리는 서병철의 얼굴을 잠시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보시었다.

《그런데 동무가 모험을 했다면서?》

나직하나 엄하신 그이의 말씀에 중대장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장군님, 경고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참만에야 서병철은 겨우 고개를 들며 대답을 올리었다.

《무엇때문에 그런 모험을 했소. 음? 말해보요.》

장군님의 음성은 준절하시었다.

이루 다 형언할수 없는 가슴아프신 마음이 그이의 안광에 진하게 어려있었다.

《민주건설때는 동무들에게 손해배상금문제가 제기되었기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졌소. 그러나 전쟁에서 모험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막대한 희생을 가져

울수 있소. 그래 그 모험의 대가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르자고 생각하오?》

《최고사령관동지!...》

서병철은 눈물이 글썽하여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최무혁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영문을 모르고있었으나 서병철의 느낌이 거센 파문처럼 밀려와 마음의 금선을 치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었다.

자기 잘못을 통절히 느끼는 서병철의 얼굴을 살펴보시는 장군님의 눈빛은 부드러워지지않았다. 허나 목소리는 여전히 엄하시었다.

《동무는 전사가 아니라 지휘관이기때문에 모험할 권리가 없소. 모험은 용감성의 표현이 아니요. ...》

그이께서는 지휘관의 험치 않은 임무를 수행하자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오래 이야기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서병철의 기분을 능취주시려는듯 어디 동무네 훈련을 좀 보자고 하셨다.

《알았습니다.》

서병철은 웃으며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장군님 앞에 정렬한 대오는 전투서렬로 흩어지며 아찔한 벼랑을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며칠전, 사단의 한 무명전사가 최후의 힘을 모아 적장교놈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그 푸른 벼랑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베푸는 전사들이 바위를 박차며 기여 올라갔다.

장군님께서 바줄을 거머잡고 돌바위크령을 뚫아오르는 전사들의 움직임을 세심히 살펴보시며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었다.

《음, 제일 험한곳으로 오르는군.》

그이께서는 대견해하시는 표정으로 최무혁을 돌아보시었다. 마지막 전사가 바줄을 놓고 벼랑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장군님께서 험한 벼랑을 보시며 한동안 그자리에 서계시었다.

《사단장동무, 전방지휘소로 나가봅시다.》

《?!》

나직한 말씀이었으나 그속에 담겨진 그이의 단호한 결심을 느낀 최무혁은 한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그이께서 반마장앞에 있는 사단지휘소에서 사단강행도하 계획을 봐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전방지휘소로 나가시겠다고 하시지 않는가.

《전방에는 안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이의 신변안전을 생각하며 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무혁을 지지해나섰다.

장군님께서 은물결이 흐르는 개울쪽으로 걸어 나가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시었다.

《일없소. 싸움을 하려면 전투현장에 나가봐야 하오. 거기에 우리 전사들이 있는데 나라고 왜 못나가겠소.》

승용차들은 사단전방지휘소를 향하여 다시 출발하였다.

2

새벽녘의 전방지휘소 고지는 망망한 안개바다우에 솟은 섬같았다. 둔중한 포소리의 여파에 새벽 대기가 간단없이 흔들렸다. 짙은 안개속으로 러명이 깃을 펴고 찾아들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푸른 빛이 어리는 감시창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쌍안경을 드시여 포화에 끄슬린 야산너머 은빛띠처럼 번쩍거리는 남진강쪽을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놈들의 눈먼 포소리와 어리석은 침묵을 단면에 주욱 간파하시며 산세 급한 남진강 남안쪽을 오래도록 꿰뚫어보시었다. 이미 오래전에 적들의 작전기도를 미리 간파하신 장군님께서 놈들의 기본 집체를 남진강 남안에서 포위섬멸 해버릴 거대한 작전구상을 무르익혀오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쌍안경을 한손에 드시고 야전용작전대앞으로 활달하게 걸어오시여 작전대우에 퍼놓은 축척 1대 2만5천 지도우에 허리를 굽히시었다.

한꺼번에 몇백가지 의문이 떠오른 시선으로 지도우를 주욱 살피시었다.

수원들이 비치는 전지불이 지도우의 붉고 푸른 전술부호들과 등고선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어디 무혁동무의 결심을 좀 들어봅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대우에 한팔을 얹으시며 나무의자에 앉으시었다. 왼팔을 드시여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작전대앞에 한걸음 다가선 최무혁은 이글거리는 눈길로 지도를 훑어보며 사단참모부와 더불어 며칠 동안 머리를 쏘여주고 짜낸 작전방안을 체계 정연하게 말씀올리었다.

그는 적 방어가 이처럼 면밀히 준비된 조건하에서 사단 선견대가 차지할 대안근거지에 대한 적의 맹렬한 반돌격이 예견되므로 포병준비사격과 함께 증강한 두개 대대력량의 선견대를 앞세우고 사단 주력이 일격에 밀고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주력의 강행도하가 진행될 도하장의 상류와 하류에서 사단예비대의 일부 보병, 공병, 포병력량으로 조직된 허위도하대가 먼저 행동을 개시할것이 보충되고 사포군의 강력한 포병준비사격과 함께 진행 될 사단강행도하의 전과정이 설명되었다.

사단장은 강행도하의 성과 담보를 위해 사전에 증강한 1개대대의 우회대를 조직하여 적의 폭로된 익측 린점점을 통하여 적 배후에 은밀히 기동시킬 방안을 말씀올리었다. 시간간사산으로 보나 적의 경계태세로 보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우회대는 기어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강북관과 대안에서 그리고 적의 익측 린점점과 배후에서 피어린 결사전이 벌어질것이었으나 사단장이하 마지막 전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용맹으로 보답할것이며 마지막 보충

수가 살아남아있는 한 원쑤를 죽치고 대안을 차지할 것이었다.

심중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타산해보라.

이것은 결심채택직전까지 최무혁이 자신에게 무섭게 채찍질하는 좌우명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묵묵히 앉으시어 최무혁의 더운 피와 성실한 땀이 스며있는 작전방안을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하모니카를 멋지게 불며 밀영의 장풍사이를 거니던 명랑한 대원 최무혁의 익살 같은 얼굴이 선히 떠오르시었다. 명쾌한 그의 하모니카소리는 색깔도 여러가지여서 구성진 통소소리와 청아한 단소소리를 내기도 하고 갖가지 산새 소리도 곧잘 흉내내었다. 그때마다 그의 눈표정과 입모양이 변하여 동무들을 웃기었다. 대원들은 그의 하모니카소리에 맞추어 서정이 폭 배인 《사향가》를 부르면서 노을이 불타는 숲머리톨 쳐다보며 잊지 못할 고향에 대한 그윽한 향수에 젖어들곤했다. 것처럼 패활하던 최무혁이가 어언 말수 적어 지고 틀이 꼭 잡힌 유능한 지휘관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시는 장군님께서는 무등 기쁘시었다. 무엇보다 작전에 밝고 어떤 상황에 맞다들려도 리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뚫고나가는 의지와 통솔력을 지닌것이 대견하시었다. 긴박하게 조성된 전선상황만이 아니라면 달도 밝은데 그가 부는 류창한 하모니카소리를 다시 들으시며 눈보라 올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싶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비록 키는 바뻐하지만 청동으로 빛나는듯 묵중한 인상을 주는 그를 바라보시며 전쟁의 불구름속에서 더 역세게 성장해가는 전사들을 두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사단의 작전계획은 면밀히 작성되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작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것을 최무혁이 스치고있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이런 조건에서 선견대를 사전에 도하시키지 않으려고 한 의도와 량익측에서의 허위도하조직은 깊이 연구한 작전방안이라고 말씀하신후 잠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지휘소안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최무혁에게 적이 차지한 대안진지의 지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지도앞에서 최무혁의 대답을 주의깊이 들으신 그이께서는 적진에 세번째로 정찰나갔던 동무들을 좀 만나보자고 하시었다.

최무혁이 서둘러 전화를 건지 얼마 안되어 얼굴하관이 갈수록 몸매가 끼끗하여 첫눈에도 날과 같아보이는 정찰소대장이 전방감시소에 나타났다.

장군님께서는 무척 반가와하시며 그의 손을 잡아 지도앞으로 이끄시었다. 황송한 생각에 얼굴이 불깃해진 정찰소대장은 장군님께서 쥐여주신 색연필끝으로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이께서는 남진강대안의 몇가지 지형상특성에 대하여 다시 물으시었다. 어떤 문제는 두번세번 물어보시었다. 정찰소대장의 대답에 귀기울이시며 장군님께서는 이따금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정찰 소대장을 돌려보내신 다음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었다.

어딘가 먼곳에서 풍덩이소리같은 적 야간폭격기의 소음이 들려올뿐 전방지휘소안은 물뿌린듯 조용했다. 전망이 탁 트여있는 감시장으로 디글디글 여론 벌들이 내다보이는데 슬슬 불어드는 새벽바람이 작전대모서리의 지도를 건드려 발각발각 소리를 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풍을 타고 풍겨드는 초연냄새와 갓 꾸리어 거품 못한 지휘소안의 송진냄새를 오히려 기분 좋게 느끼시며 미소어린 눈빛으로 전선의 새벽풍경을 내다보기도 하시고 색깔이 선연한 지도를 굽어보기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뇌리를 스치는 어떤 확연한 생각을 다시 음미해보시는듯 총알 모양의 등황색불꽃이 솟아오른 남포동에 빛나는 시선을 잠깐 멈추시었다.

남포등불빛을 향해 마주선 최무혁과 장령들의 그림자가 통나무벽에 어룡거렸다. 깊은 심려가 담긴 장군님의 발자욱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최무혁의 흥벽을 툭툭 두드렸다. 선견대와 사단주력이 적의 대안진지에 일시에 접근하여 피의 결전을 벌리게 될 사단강행도하계획에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빈구석이 있기때문에 장군님께서 걱정하신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저리었다.

문득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작전대앞으로 다가오시어 까만 손잡이가 달린 두터운 확대경을 가볍게 잡으시고 섬광을 내뿜는 어글어글한 눈빛으로 지도우를 다시 주욱 살피시었다.

《우회대를 쓰려는 시도는 좋은것이요.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는 그리 적당한것 같지 않소. 군사작전에서 반복은 죽음을 의미하는것이요. 그래서 군사를 예술이라고 부르는거요.》

근엄한 눈빛으로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시며 말씀 을 이으시었다.

《우선 우회대가 적의 폭로된 익측 린접점을 통과하여 돌아가자면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소. 또 아까 사단장동무가 말한것처럼 린접점부근의 지대가 로출되었기때문에 우회대가 뜻하지 않는 손실을 받을 수 있소. 그 근거는 선행전투에서 아군의 우회전술에 편속 녹아난놈들이 기동순찰대와 전투경계를 늘리고 각종 차단물과 포, 비행대로써 린접점들을 강화해놓았기때문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회대를 들여보내겠는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확대경을 드신 손으로 허리를 짚으시며 잠시 장령들을 둘러보시었다.

《무혁동무, 이 남진강 남안의 지형을 좀더 자세히 연구해보오. 이처럼 기복이 심한 산악지형을 차지한

적의 방어선에는 필연코 빈틈이 있기 마련이요. 또 방어중심에 많은 중간 공간지가 형성되어있는것이 특징이요.》

그이께서는 지도우의 선 하나, 점 하나를 통하여 적의 역량기재 배치밀도의 특성과 적 방어의 준비정도, 방어체계의 발전상태, 적 작전에비대의 가능한 반작용이 예견되는 방향 그리고 폭로된 익측과 린접, 중간 공간지의 유무상태를 동시에 간파하시고 적 방어선의 약점을 몇가지로 지적하시였다.

빛나는 눈빛으로 최무혁과 옆의 장령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빨간 색연필끝으로 남진장 남안의 적진지 한복판을 톡톡 두드리시며 확신에 찬 음조로 이으시였다.

《나는 여기 놈들의 방어선 정면으로 습격조를 들여보내자는 생각이요. 어땡소 음? 등잔밑이 어둡다는 조선속담이 있소. 놈들이 장담하고있는 이 방어전연을 은밀히 뚫고 들어가 뒤통수를 후려 치자는거요. 습격조는 여러 조로 나뉘어 산개된 놈들의 포진지를 녹여버린 다음 적 련대지휘부나 통신결속소 같은걸 하나씩 없애버리면 더 좋지. 인민군대의 총소리가 등뒤에서 나면 대안에 있는 놈들이 포위된줄 알고 흔들리기 시작할것이요.》

놈들의 정신이 흔들리면 방어선이 흔들린단말이요. 그때 정면에서 답새겨보란말이요. 음, 어땡소?》

순간 최무혁은 심장을 쿵 울리는 그 어떤 비상한 예감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적의 《철퇴의 방어선》정면을 뚫고 적후어로 진출한다는것은 최무혁이 상상도 못한것이였다. 이미 항일대전의 나날에 장군님앞에서 라침판과 제도를 보는 법을 배운 그였지만 금시 막혔던 하늘이 열리는듯한 기분에 사로잡히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을 꿰뚫어보시는듯한 시선으로 최무혁을 바라보시였다.

《사단장동무, 한개 중대쯤 들여보내는게 어땡소?》

최무혁은 그만 대답을 못찾고 어망결에 장령들을 돌아보았다. 대대라면 몰라도 중대라면 너무나도 적은 령량이 아닌가. 밋밋한 강쪽에는 적 화점과 포진지들이 벌둥지마냥 촘촘했다. 그뒤에는 2중, 3중의 적군 참호들이 겹놓여있었다.

그도 그렇지만 남진장대안에 발을 붙이는것이 난 문제였다. 강우에서의 후퇴란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의미하였다. 중대라는 적은 령량이 놈들의 경계망이 삼엄한 대안에서, 아니면 적후의 어느 골짜기에서 포위되어 피멸될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장군님 앞에서 단 한번도 실속없는 대답을 올려본 적없는 최무혁은 잠시 망설였다. 용단을 못내리는 최무혁의 얼굴표정을 살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소탈하게 웃으시였다.

《자신없어하는구만. 왜, 3대1이라는 공격법칙을 생각하는중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개 대대쯤은...》

《그렇테지. 사단장동무가 심중하긴 심중하오. 만약 누구든지 남진장을 넘어서라면 적어도 다섯개 사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것이요.》

장군님께서서는 흰한 이마에 한가닥 드리운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 올리시며 감시장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무혁동무, 나는 수자를 가지고 혁명을 계산해 본적이 한번도 없소. 수자는 수자에 지나지 않소. 원래 산술적대비는 우리 식이 아니요. 동무들은 먼저 이 전쟁에 참가한 전사들의 심장을 봐야 하오. 우리 전사들은 그놈들 열놈, 백놈에 비길수 없는 큰심장을 지니고있소.》

장군님께서서는 금시 우선우선하신 표정을 띄우시며 최무혁을 돌아보시였다.

《서병철동무네 중대를 들여보내면 어땡겠소?》

사단장의 의향을 물어보듯 혼연히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최무혁은 얼른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였다. 그 중요한 임무를 서병철중대장에게 선포 맡기고싶은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왜 또 모험할가봐 그러오?》

《최고사령관동지, 사단에 우수한 중대장들이 많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최무혁의 마음을 충분히 리해하신듯 잠시 깊은 상념에 잠기시여 푸른 기류가 흐르는 감시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생각 깊은 신 어조로 되이시였다.

《사람을 평가하기전에 먼저 그를 잘 알아봐야 하오. 서병철동무가 결함을 범했지만 내 알기에는 좋은 동무요. 심장이 뜨겁구 또 대담하단말이요. 해방후 형제없이 파괴된 동해 제철소가 것처럼 빨리 쇠물을 뽑을수 있게 되는데는 그 동무들의 노력이 컸소.》

벌써 해방된 이듬해에 첫 쇠물을 뽑아낸 동해제철소 로동계급의 투쟁을 즐겁게 회고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이 서리였던 전방지휘소안에는 금시 봄의 훈기가 떠도는 수림속마냥 싱싱한 기운이 차고넘치였다.

일제놈들은 용광로를 파괴하고 로속에 쇠물을 열귀불이고 도망치면서 조선의 야금업이 10년전에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였다.

무엇부터 어떻게 수리하고 복구해야 할지 갈피 잡을수 없는 때에 서병철청년작업반은 로속에 들어가 얼어붙은 쇠통이를 함마와 산소용접기로, 서병철의 말을 빌면 《쥐 소금 녹이듯》 조금씩 뜯어 내였다. 땀투성이 된 로동자들은 기진책진하여 주저앉으며 이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10년전에는 쇠물을 뽑지 못하겠다고 걱정들했다.

어느날밤 서병철은 법석 떠들어대며 막아나서는 반대파들을 뿌리치고 작업반을 휘동해대리고 가스로안의 얼어붙은 쇠덩어리위에 폭약무지를 쌓아놓고 폭파하였다. 꿈쩍 안하던 쇠덩어리에 깊은 균열이 생기며 뭉청 부서져나갔으나 그통에 로안의 내화벽돌이 적지 않게 부서졌다.

내화벽돌 한장이 귀중했던 그때에 서병철이네가 단행한 행위는 건국사업에 지장을 준것으로 하여 제철소 간부들의 격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들은 급급히 수판알을 툇기며 변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였다.

장군님께서 동해제철소를 처음 찾으시였을 때는 제철소안에 이런 일까지 겹치여 무거운 분위기가 떠도는 때였다.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용광로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가스배출관이 뭉청 부서져내린 용광로의 어수선했던 벽체며 금이 찢 간 송풍기를 가슴아프신 안색으로 어루만지시였다. (아무리 파괴한다 해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도망치다니, 나쁜 놈들...)

의분을 누를길 없으신 그이께서는 얼어붙은 용광로주위를 한바퀴 도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로동자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왔다.

장군님께서는 기름과 쇠죽에 찌들은 로동자들의 마디굵은 손을 허물없이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서병철청년작업반장을 찾으시였다. 그때 눈매고운 권양기운전공처녀가 갑자기 얼굴을 싸쥐고 어깨를 떨었다. 말은 안해도 그 처녀는 가슴속에 서리서리 영킨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그 순간 끝내 참아 내지 못했던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그 처녀옆에 쇠죽이 꺼렇게 오른 허름한 아마직 작업복을 입은채 머리를 숙인 한 청년이 서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나오라고 그 청년을 손저어 부르시였다.

서병철은 인간만사를 다 체험한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짓고 머리를 숙인채 걸어나왔다. 앞장이 떨어진 로동화들을 더덜거리며 몇발자국 앞으로 걸어나온 그는 기름에 절은 토목모자를 와락벗어 나무등걸같은 두손에 꾸겨쥐며 장군님 앞에 넋적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군님!》

눈물에 젖은 그의 목소리에는 국가앞에 지은 죄를 다 인정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울리였다.

《일어나오!》

장군님의 음성은 아까와는 달리 무척 엄하시였다. 서병철의 팔을 잡아일으켜 세워주시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소?》

서병철은 폭수그렸던 머리를 들며 장군님께 자초지종 다 말씀울리였다.

장군님 앞에서 흉금을 터놓게 된 서병철은 때절은 토목모자를 찢어지게 꾸겨쥐며 눈물이 끓는 눈으로 애타게 부르짖었다.

《장군님! 왜놈들이 다 파괴하고 달아나면서 우리가 10년전에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왜 제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단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늘히 해가지고 언제...》

《그래서 한번 대담하게 해봤단말이지. 그런데 그게 결국 건국사업에 해를 주게 되었다고 하니까 인젠 맥을 놓고 주저앉겠다 그 말이지?》

서병철은 단번에 자기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장군님의 엄하신 눈길앞에 그만 머리를 푹 떨구었다.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파괴된 용광로옆을 거니시며 부서진 내화벽돌조각을 손에 들고 살 펴보시다 놓고 손을 터시였다.

《내가 용광로안을 다 봤소. 그런데 내 생각에는 깨어진 내화벽돌 몇장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겁을 먹고 주저앉은것이 제일 큰 문제인것 같소.》

그이께서는 가슴아픈 표정을 지으시였다. 용광로안의 부서진 내화벽돌을 보시기전에 굳어진 쇠물덩어리에 생긴 깊은 균열을 먼저 살펴보신 장군님이시였다. 거기에서 얼어붙은 쇠덩어리를 통채로 들어내려는 로동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쁘시였다.

《동무들은 어제날의 고용로동자들이 아니라 여기 제철소의 주인이요. 주인인데. 무엇이 두려워 할 일을 못하겠는가.》

장군님의 목소리는 나직하나 저력있게 울리였다. 서병철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람이 타산만 앞세우면 아무 일도 못하오. 무슨 일이든 조선사람의 기백으로 대담하게 해야 하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대담하게 해보잔말이요.》

그날밤 장군님께서는 제철소의 기술일꾼들과 마주앉으시여 밤새도록 용광로복구문제를 토론하시면서 로동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로동자들을 대담하게 믿어야 한다고 거듭 간곡하게 타이르시였다.

그로부터 한달후 서병철청년작업반장은 살아남은 현대의 권양기와 수동권양기 로프줄에 6개의 활차를 달아 힘을 감소시킨 다음 하루아침 한순간에 30톤의 용광로가스배출관을 들어올렸다. 그 높은 용광로 꼭대기에 두터운 철판조각을 들어올리며 하나씩 용접하자면 한점없는 세월이 걸리기때문에 땅우에서 조립하여 대담하게 들어올릴것을 결심했던것이 다.

만부하 걸린 로프줄들이 툭툭 튀어나고 비틀리면서 가스배출관이 올라갈 때 그우에는 신호기를 든 서병철이 타고 서서 《떨지 말구 올려라!》 하고 고함을 질렀다.

드디어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용광로를 복구한 그들은 장군님을 모시고 첫 쇠물을 뽑는 영광의 날을 맞이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흥미진진하게 듣고있는 장령들과 최무혁을 돌아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었다.

《민주건설때 우리는 서병철동무와 같은 우리 로동계급을 대담하게 믿었소. 그랬기때문에 온갖 기술신비와 공청능력을 다 무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힘으로 파괴된 제철소들과 공장들을 일떠 세울수 있었소. 전쟁도 건설과, 마찬가지로요.》

장군님께서는 무게있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작전문제와 인간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일이 없소. 우리가 세운 작전은 대포나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사들에 의해 수행되기때문이요.》

그이께서는 손에 드신 확대경의 두툼한 유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시며 지휘관은 전술보호만을 볼것이 아니라 먼저 전사들을 봐야 한다고 하시었다. 잠시 동안들 두시었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씀 하시었다.

《사단장동무, 서병철동무는 내가 보증하오. 이번 습격전에 꼭 참가시키시다.》

《최고사령관동지!...》

최무혁은 불시에 가슴을 메우며 몽클 솟구치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었다. 그 어떤 랑심의 가책으로 하여 못건디게 가슴이 저려들을 느끼었다.

장군님 앞에서 자기의 데면스러운 처사를 사죄하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새벽안개가 엷어질무렵 전방지휘소를 나서신 장군님께서 최무혁을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무혁동무, 지금도 하모니카를 불군하오?》

《예, 가끔...》

최무혁은 영문 몰라 얼결에 대답올렸다.

《음, 잘 불지 않는 모양이구만. 사단장의 체면은 차리는게 아니요?》

장군님께서는 당황해하는 그를 바라보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사단작전에서 전변이 일어난 지금 최무혁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요 시절을 돌이켜보듯 못잇을 백두밀영에서처럼 하모니카를 불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었다.

《무혁동무, 전사들속에 끼여 앉아 하모니카를 불어보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어려운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하오. 그래야 전사들의 마음을 잘 알수 있소.》

장군님께서는 새벽빛이 감도는 고지를 내리시여 남진강쪽으로 곧추 뻗어나간 민트한 산릉선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신변을 걱정하며 수원들과 최무혁이 두겹 세겹으로 앞을 막아나섰지만 장군님께서는 좀 더 나가보자고 하시며 두손으로 우거진 싸리나무와 길치게 자라 설령거리는 해묵은 새초일을 량옆으로 밀어

제치시며 걸어나가시었다. 싱싱하고 싹스레한 혼향이 물씬 풍겨도는 평평한 산말기에 나서시었다. 산등성이우에는 새벽노을이 윤색해 놓은 신비스런 은백색빛이 비끼었다. 새벽이슬에 풍청 젖은 그이의 봄외투자락에서 은빛 물방울이 떨어졌다.

장군님께서는 쌍안경을 받아드시고 차츰 연두빛 료박을 드러내는 남진강 남안을 오래동안 훑어보시었다.

전선, 삶과 죽음의 계선이라고 불리우는 그 돌격선을 은밀히 차지하는 전사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듯 포화의 물기둥이 화산처럼 솟구치는 강반을 건너 적진으로 돌입해들어가는 전사들의 모습을 일일이 농칠세라 바라보시는듯 그이께서는 한동안 움직일줄 모르시었다. 한줄금 찬 바람이 새초일을 와슬렁거리며 그이의 봄외투자락을 날리었다.

문득 장군님께서는 쌍안경을 내리시며 최무혁을 가까이 부르시더니 한손을 드시여 안개 걷히는 남진강 건너편을 가리키시었다.

《저길 보오. 역시 현지에서 보는것이 정확하구만. 저게 바로 아까 정찰소대장동무가 말한 그 험한 절벽일것ий요. 적들은 우리가 저기로는 감히 접근 못할것이라고 맘놓고있을것ий요. 서병철동무네 습격조는 오늘밤에 바로 저 절벽을 은밀히 통과해야 하오.》

장군님께서는 사단장의 의향을 물으시듯 최무혁을 돌아보시었다.

최무혁은 정찰소대장을 직접 만나보신 장군님의 의도를 지금에야 깨달았다.

사단정찰이 제공한 자료를 연구할 때 철벽을 생각하였지만 그 높고 험한곳으로 전사들이 감히 넘으리라고는 엄두도 못내였던 최무혁이였다. 강녕에 바투선 아찔한 벼랑, 지도에 특별부호로 표기된 철벽은 개설된 하나의 통로였지만 너무도 험준한 천연요새였던것이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요. 그러나 청암산벼랑에서 훈련하고있는 우리 동무들은 능히 저 벼랑을 넘을것ий요.》

그이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 지나갔다.

《그 동무들이 포진지들과 적 지휘부를 제압하는 즉시로 사단주력의 도하를 개시하시오.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들의 본패를 보여줘야 합니다!》

순간 최무혁의 가슴은 벅찬 흥분으로 하여 끓어번졌다. 며칠밤을 내내 지도앞에서 서성거렸지만 그의 눈앞에 보인것은 적들의 삼엄한 방어진과 굽이쳐 흐르는 시퍼런 강물, 그우에서 타번지는 화염과 불기둥이였다. 어찌하여 나는 저 벼랑을 감히 범접 못할 험한 절벽으로만 생각했던가. 또 어찌하여 저기로는 전사들이 오를수 없다고만 생각 했던가...

그처럼 모태기던 도하작전의 근본고리가 일순간에 열리는것을 예감하는 순간 최무혁은 불길처럼 솟구치는 전투의 열광을 누를길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 임무수행에 대해서와 차후임무 즉 대 포위섬멸전에서 주의할점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후 전방지휘소 고지를 내리시였다.

날썰무렵 그이의 승용차를 바래우는 최무혁의 가슴에 말 못할 감격의 세찬 파도가 사뭇쳤다.

작전문제는 곧 인간문제라는 크나큰 진리가 흥벽을 치며 해일처럼 밀려들어 심장을 가득 채우는것을 느끼며 젊은 사단장은 승용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있었다.

3

사단은 강변을 차지하였다.

달무리진 밤이였다. 적진에서 눈이 아플만큼 강렬한 세개의 탐조등 불기둥이 살기쁜 백광을 엇가로 교차하며 거무칙칙한 강물우를 살살이 훑었다. 탐조등 빛이 스쳐간 뒤면 더욱 캄캄한 어둠이 강우를 뒤덮고 처절씩 기슭을 치는 물소리만이 어둑한 공간에 가득차 흐른다.

사단참모부는 해떨어지자 강변의 유촉진 골짜기에 이동한 사단장 전방감시소를 차지하였다.

최무혁은 관하 련대들과 직속 대대들의 도하준비정형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침묵이 서린 적진을 불이 펄펄 타는 눈길로 건너다보았다. 그는 말 못할 그 어떤 불안을 애써 묵새기며 5분이 멀다하게 팔목시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한시간전에 증장된 서병철중대는 적진을 들부시는 아군포병의 일제사격을 리용하여 남진강대안의 메부리벼랑에 은밀히 붙어올랐던것이다.

험한 날벼랑을 기적적으로 뚫아오른 두 병사가 늘인 바줄을 타고 중대전원이 적후의 약속된 집결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무선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그들의 행방을 알길 없었다. 그물위장망을 머리우에 둘러친 강변감시소에서 무전수들이 애타게 찾는 《남진강》은 의연히 잠잠하였다.

매우 상스럽지 못한 침묵이 불질하게 최무혁의 가슴에 갈마들었다.

젊은 사단장은 이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파하려고 대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허나 서병철중대가 사라진 벼랑너머에서 린광처럼 병긋거리는 선명치 못한 불빛은 강반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과 더불어 예리한 의혹만을 부채질해주었다. 벼랑너머 어디선가 총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것 같기도 했다.

서병철중대는 어떻게 되였는가? 왜 무선신호가 없단말인가?

불현듯 관골이 두드러진 의지적인 얼굴을 쳐들고 씨물씨물 웃으며 앞에서 있던 서병철의 헌결찬 모습이 눈앞에 우렁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오늘아침에 최무혁은 련대장들과 직속 대대장들을 전방지휘소로 급히 불렀었다.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을 잠시 기다리는 새에 문밖에 나온 지휘관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간밤에 여기 전방지휘소에 나오시여 사단작전을 봐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열에 떠 이야기하며 담배를 나누어 맛나게 피우고있었다.

지휘소안에서 참모장과 무엇을 토론하던 최무혁이 짜리로 단단하게 엮은 지휘소 문을 버쩍 열고 82련대장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게구만.》

《웁소. 저 <절벽강산>이 또 큰소리치게 됐군.》

《운이 튼게 분명하오. 성미가 사자같으니까 믿음이 가거던.》

다른 지휘관들은 부러운 눈길로 지휘소 문을 바라보다가 그안에서 말다툼에 가까운 격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자 금시 아연해들쳐서 마주 쳐다보았다.

《이번에 습격조장으로 선발된 서병철동무를 잘 준비시켜야겠소.》

《사단장동지, 그 동무는 안됩니다. 삼두봉을 잇었습니까!》

82련대장은 남달리 큰 키를 펴고 서서 끝까지 뻗델 차비였다. 최무혁은 시간이 급한듯 시계를 들여다보았으나 속을 늦추며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이보, 련대장동무, 청암산공격에 한번 참가시 키지 않았으면 됐지. 동무의 경고처벌이 그렇게도 비싸오. 음? 좀 말해보오.》

지휘관들끼리만 할수 있는 험한 룡담이었으나 거기에는 진심이 숨배여올리였다. 말장같은 고집 때문에 《절벽강산》이라는 별명이 붙어다니는 련대장은 그 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직도 노기가 서린 눈빛이었다.

최무혁은 서병철에 대한 《경고처벌》 경위를 잠시 더듬어보며 빠른 걸음으로 지휘소안을 가로세로 거닐었다. 걸음을 툭 멈추고 불만이 가득 서린 눈길로 것처럼 펄펄 뛰는 련대장을 잠시 쳐다보았다.

《련대장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동무를 잘 알고계시오.》

《예?!》

인정에 몹시 않은 련대장이였지만 큰 충격을 받은듯 장승같은 키를 쭉 펴며 어정쩡한 눈길로 최무혁을 굽어보았다.

《이때까지 늘 함께 있었구 함께 싸워온 나나 동무는 그 동무들 잘 모르고있는데 한두번 만나보신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를 잘 알고 계신단말이요!》

최무혁의 목소리는 알릴락말락 떨리였다. 그것은 최무혁자신에 대한 질책처럼 울리였다.

《장군님께서는 파오를 범한 그 동무를 보증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작전의 습격조장으로 선출해주셨소. 그런데 나는 뭐요, 경고처벌을 준것으로 그 동무를 평가하고는 주저했단말이요. 나두 그렇구 동무두 그렇구 함께 싸워온 한 중대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것을 모르고있었소!》

피로움을 토파하는 최무혁을 보자 연대장은 썩그르 전화기앞으로 달려가 송수화기를 움켜잡았다. 화염에 단것을 식히기라도 하듯 후후 불며 전화를 걸었다.

잠시후 야전지휘소의 통나무를 쪼개여만든 작전대옆에 지휘관들이 쭈욱 둘러섰을 때 싸리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병철이 징징징징 들어섰다.

최무혁은 무척 오래 기다린듯 마주 다우쳐나갔다. 자신도 알길 없는 사죄의 마음으로 서병철이 미처 보고할새 없이 그의 아귀센 손을 틀어잡았다.

《기다렸소, 기다렸소.》하며 충혈진 눈으로 그의 얼굴이며 몸매를 다시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철화에 끄슬려 거무잡잡한 그의 관골진 얼굴에서 한량없이 맑고 선량해보이는 눈이 모여선 지휘관들을 어쭙게 둘러보았다.

그 온순한 눈이 격전장에 나서면 갈범의 그것처럼 사나운 불을 황황 뿜는다는것을 아무도 상상할수 없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비에 젖어 너풀거리던 총탄에 찢긴 군복을 뜸새종게 호아입고 눈부시게 닦은 혁띠 고리를 짝 조여맨 차림새가 최무혁을 더욱 흡족하게 만들었다. 좀해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최무혁의 얼굴에 웃음이 빙긋이 떠올랐다.

《중대장동무, 토의할게 있어서 불렀소. 우선 가스배출관을 들어올리던 이야기를 듣고싶소.》

《?!》

《이야기해보오. 기증기없이 30톤을 들어올리던 일말이요.》

최무혁은 에둘러 말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병철 역시 단도직입적인것을 좋아하는 모양 씨물 웃더니 몽들한 어조로 씨원씨원 대답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체 기증기가 없었기때문에 권양기프로줄에 활자 6개를 달아서 힘을 고루...》

《중대장동무, 내가 묻는건 기술혁신안이 아니요. 그걸 들어올릴 때 이게 어떠했는가 말이요. 이게!》

최무혁은 부르킨 오른쪽 주먹으로 심장이 뛰는 왼쪽 가슴을 톡톡 쳤다.

《쉽게 말하면말이요. 어떻게 그런 대담성을 발휘할수 있었는가 하는거요.》

서병철은 별로 힘들게 말하는 사단장의 울음을 그쳐서야 리해하였다.

《알만합니다. 그때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장군님의 믿음을 잊을수 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대답하게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절로 막 힘이 솟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진심을 터놓았다.

《웁소! 웁소!》

깊이 감심한 젊은 사단장은 환성을 올리듯 빠르게 긍정하며 서병철의 어깨를 톡톡 치더니 연대장들과

직속 대대장들이 모여선 지도앞으로 기활차게 그를 이끌었다. 감시창턱에서 부서지는 아침햇빛이 프리즘처럼 굴절되어 반사된 지휘소안에는 전에없던 밝은 빛발이 가득찼다.

사단작전회의는 격식없이 진행되었다.

《동무들, 사단전방지휘소에 나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력한 전술을 가르쳐 주시었소!》

최무혁은 승리를 예감할 때 항용 느끼는 즐거운 쾌감을 은근히 내보이며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전술적방침을 이야기하였다. 확신이 넘쳐흐르는 그의 눈길은 서병철의 의젓한 눈길에 가서 잠시 멎었다. 문득 달빛비긴 청암산의 츠렁바위를 열심히 기여오르던 전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이 다시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최무혁은 눈을 습벅거리며 서병철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동무네 중대는 놈들의 이 방어정면을 뚫고 들어가 여기 골짜기들에 산개되어있는 적군 포진지들과 이곳에 위치한 적 지휘부와 통신결속소를 습격소탕해야 하오.》

지도의 몇개점을 담력있게 꼭꼭 짚는 사단장의 말에 연대장들은 물론 서병철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무혁은 연대장들을 둘러보며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서병철동무가 기증기없이 30톤 가스배출관을 들어올린 이야기를 물려주시면서 혁명은 그런 대단한 심장, 큰심장을 요구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소.》

최무혁은 흥분에 호흡이 가빠진듯 잠간 말을 끊고 붉게 상기된 서병철의 관골진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서병철은 열정이 끓는 눈으로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소! 그이께서는 친히 습격경로를 정해주시었소. 바로 여기요. 미국놈들은 우리가 밤에 감히 이때부리벼랑을 넘으리라것을 상상도 못할것이지요!》

커다란 주먹을 바지흔술에 불이고 차렷자세를 취한 서병철은 가슴을 들먹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다.

드디어 증강된 서병철중대가 포병의 질풍사격의 도움을 받아 벼랑을 기여오를 때 사단 주력은 어둠을 타서 강변에 은밀히 전개하였다. 배속된 도선관들과 신변기재들까지 정벌의 시각을 기다리며 모래불에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허나 온 사단이 눈이 까매서 살피는 서병철소속 중대의 소식은 종직이 표면하였다. 의연히 투미한 광선과 무거운 침묵만이 적진에 서리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그렇다면? 아니다! 그럴수 없다고 사단장은 거듭하여 자기 억측을 부정하였다.

전투에서 지휘관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적 중기화점앞으로 자기의 전사들을 출발시킨 때이며 적 후에 들어간 전사들의 종적을 모르는 때임을 격전의 나날에 최무혁은 수차 체험하였다.

불안이라고 하는 그 설명 못할 감정이 가슴속을 무겁게 배회하였다. 그 불가사의한 감정은 겪으면 겪을수록 무디어지는것이 아니라 더욱 예리하게 가슴을 파고든다는것을 그는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원래 최무혁은 지휘소가 적의 폭격권내에 들었을 때에도 대피하지 않고 지도우에 쏟아지는 흩먼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버리며 콤파스를 찾는 그런 지휘관이였다. 언젠가 적후투쟁때 사단지휘부가 포위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그는 눈섭 한대 까딱 안하고 손가락이 남달리 뭉툭한 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며 앉아서 작전지도만 여념없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아래 지휘관들이나 전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가봐 늘 전전긍긍하였다.

다시 들여다보는 시계의 문자판우에 서병철의 얼굴이 선히 그려지는 순간 최무혁은 그 평범한 중대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그렇듯 깊은 생각을 더 들여갔다. 웬일인지 진중하고 용감한 서병철이 대신 덜렁하고 덤비고 모험을 즐기는 서병철이 지긋게 떠올랐다. 삼두봉습격전투때처럼 실패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감이 부지불식간에 가슴을 허비는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중대장을 자신께서 보증한다고 하시며 습격조장으로 선출해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앞에 어리는 순간 최무혁은 눈뿌리가 뜨끈해졌다. 급히 봐주셔야 할 작전문제를 뒤로 미루시고 전사들의 야간훈련장을 먼저 찾으시여 그들과 흥금을 터놓고 마주 웃으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전사들속에 끼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언제 한번 것처럼 즐기는 하모니카를 불어본적이 있었던가.

장백산맥의 찬바람에 투슬린 최무혁의 구명새 승승한 얼굴에 가슴아픈 자책감에서 오는 가는 경련이 스쳐지나갔다.

작전지휘에서의 그런 각오가 얼마나 위험한것인가를 스스로 가슴을 치며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해 부르짖었다.

대답하라. 그러자면 자기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심장을 먼저 보라.

화약내 대신 독한 담배진냄새를 풍기는 나이 지긋한 공병전사가 사단장의 사색을 방해할세라 발을 저거디디며 조심조심 옆에 다가왔다. 한쪽편이 처져내린 위장그물을 짝지발로 떠받친 다음 보병삽으로 홍장우를 파고 가장자리를 깊숙이 묻고있었다.

최무혁은 전에없던 친밀감으로 짝지발을 든든히 붙잡아주며 늙수그레한 공병신대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허나 마음은 노상 뿌잇한 장막에 휩싸인 강건너편에 가있었다. 철썩 처절썩 섯돌며 웅실 웅실 흐르는 검푸른 강물우에는 불길한 침묵만이 서려흐른다.

습격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최무혁은 또다시 칼끝처럼 신경을 찌르는 의문이 떠오르자 다름아닌 자기가 거기에 대답해야 할 의무감 같은것을 사무치게 느끼었다.

풀덤불이 덮인 위장그물을 다칠가봐 허리를 굽히고 참모장이 달려왔다. 그는 흥분하여 말을 떠듬거리었다.

《5번동지… 전선사령부에서 …전화입니다.》

《전선사령부에서?!》

최무혁은 머리를 약간 수그리고 교통호를 내달렸다. 숨을 태우며 조심스럽게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5번 전화받습니다.》

순간 최무혁은 가슴을 쭉 펴며 한손으로 군도채양을 바로잡고 목단추가 제대로 채워져있는가를 만져보았다.

수화구에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진동판을 울리며 가깝게 들려왔던것이다.

《수고하오. 그대 전사들은 충분히 휴식했소?》

《그렇습니다. 전사들의 사기는 대단합니다! 지금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최무혁의 한마디 대답에서 사단의 왕성한 전투의 욕을 순간에 헤아리시며 대견하신 음조로 받으시었다.

《음, 준비가 다 됐단말이지. 서병철동무네 증대가 행동을 개시했소?》

사단장은 가슴이 찢릿해났다.

다음순간 달빛밝은 그 밤에 장군님 앞에 가슴펴고 서있던 서병철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해졌다. 30톤가스배출관우에 올라서서 신호기를 흔들며 《떨지 말고 울려라!》고 고함을 쳤다는 고집스런 그의 눈빛이 최무혁을 똑바로 지켜보고있었다. 장군님의 믿음에 큰심장으로 대답한 서병철이 원썩격멸의 마당에서 변함있으랴.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것이다. 싸워서 임무를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최무혁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신심을 느끼며 확신있게 말씀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원 무사히 벼랑을 극복하였습니다!》

《그걸 보오. 그 동무들은 반드시 해내오.》

변함없이 믿고 계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최무혁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참, 내가 어제 동해제철소에 전화를 걸어봤소. 우리 용해공강이 탈없이 잘 자란다오. 그 권양기 운전공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본때를 보이고있소. 녀인들이 쇠를 녹여 수류탄을 만드는데 배전부가 파괴되자 자동차발동기로 송풍기를 돌리었소. 그들은 폭격속에서도 용광로를 지켜냈소. 대단하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수 없을것이요. 우리 전사들에게 싸우는 후방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서병철동무랑 얼마나 좋아하겠소.》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무혁의 목소리는 알릴락말락 떨리었다.

《서병철동무가 몸성히 잘 싸운다는 소식을 내가 제철소에 알려주었소. 그 동무가 경고처벌을 받았다네. 이야기는 일부러 빼놓았소. 하하하.》

장군님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서병철동무가 임무를 수행하면 즉시 우리 결심대로 움직이시오. 그리고 지체말구 전화를 걸어주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알았습니다.》

최무혁은 다른 말씀을 올리지 못한채 한자리에 오래동안 굳어졌다. 쇠물처럼 뜨거운것이 가슴굽을 적시며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기 위치에 돌아온 최무혁은 육박해오는 적전 전야의 긴장을 느끼며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출발할 때 서병철과 시간을 맞춘 자기의 라침판만한 시계는 지금 에누리없이 1분전을 가리키고있었다.

1분은 60초이다. 면면히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천길벼랑을 향해 급류처럼 내닫는듯싶었다. 한사람의 운명, 아니 사단작전의 운명과 관련된 초침이 팽개쳐서린 문자판우에서 파르르 떨며 한초한초 폭발점인 《시》시간으로 접근하고있었다.

참모장이 옆에 다가와서 이루 형용할수 없는 시선으로 최무혁을 묵묵히 쳐다보았다. 이제 몇초전, 어차피 포병준비사격을 먼저 개시할데 대한 예비지시를 하달해야 할 시각이 닥쳐온것이다. 땀을 부르친 최무혁의 주먹안에서 맥박이 툭툭 뛰었다.

바로 그 순간, 대안의 산탈너머 적진복판에서 눈부신 섬광이 번쩍 일어섰다. 그다음 먼곳에서 가까운곳에서 그옆에서 세찬 불기둥이 확확 솟구치고 든중한 폭음이 울려왔다.

산너머 여러곳에서 동시에 뻗쳐오른 그 삼단같은 불길의 밤하늘을 활활 때었다. 음울한 여광이 비껴있던 남진강 남안상공은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휘말려들고 쇠물빛으로 물든 중방구름이 불소나기를 퍼부을듯 그우를 빙빙 떠돌았다. 메부리벼랑너머에

서는 위협적인 천둥소리가 연방 울리고 검붉은 불기둥이 뿜트립치며 솟아올랐다.

그 순간 불꽃처럼 확확 타는 큰 별찌 하나가 불 불는 창공을 쭉 가르며 엇비듬히 솟아올랐다.

아, 불덩어리, 심장만한 불덩어리, 붉은 신호탄 이었다.

높이 솟아오른 그 불덩어리는 최무혁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사단장동지, 우리는 장군님께 이처럼 명령은 수행했다는 보고를 올릴 의무밖에 없습니다!》

사단장은 가슴 깊은곳에서 해토무렵의 불물처럼 왈각 넘쳐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신호권총을 마주쳐들었다.

《웁소! 무전보고가 없었다고 난 탓하지 않소. 보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술의 위벽이 남진강반에서 시위되고있소!》

강물은 노호하며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번뜩이는 피빛 섬광과 솟구치는 물기둥을 헤치며 사단주력은 불의 탄막을 맞받아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분수처럼 연방 솟구치는 불기둥에 화염의 반사광이 얼핏얼핏 비끼었다. 아군포들의 지원사격은 맹렬했다. 와아! 와아! 남진강은 격노하였다.

강대안의 적 포진지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화점들은 련이어 침묵하였다.

남진강 남안상공에는 순식간에 포연과 불구름에 마구 엉클어진 장엄한 붉은 노을이 비끼었다.

최무혁은 빙긋거리는 화광속에서 불사신처럼 날으는 서병철중대를 금시 바라보는듯했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는 또하나의 거대한 승리의 보고를 속으로 외워보며 전화기앞으로 반달음쳤다. 하루밤새에 거인으로 성장한 자신을 의식하며 송수화기를 소중히 받쳐들었으나 잠시 잊은듯 화광비긴 강반을 바라보았다. 어둠 대신 진황색 운무가 연막처럼 서린 불붙는 대안으로 사태처럼 와와 올라가는 전사들이 보이였다. 그속에서 서병철의 얼굴이 뜨겁게 보여왔다. 최무혁은 것처럼 용감한 한 인간을 난생 처음 발견한듯싶었다.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들었다. 그는 돌진하는 대오의 흐름속에 자신도 합류되어 전사들과 함께 내달리는듯한 벅찬 환희를 느끼였다.

노도처럼 대안을 덮으며 올라가는 전사들, 과연 무엇이 저들에게 그토록 큰힘을 안겨준것인가.

그렇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창조하는것이였다. 억만의 대오를 하나로 묶어세우시며 백배천배의 큰힘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속에서 사단은 거세차게 전진하고있었다. 그 믿음속에서 혁명은 멈춤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고있었다.

저 도도한 남진강의 흐름처럼.

당이 제시한 종자리론은 문학작품창작의 비결에 관한 새로운 발견

리수립

종자리론은 오랜 세월 문예학이 공백으로 남겨 오던 문학작품의 핵을 완벽하게 밝혀낸 위대한 발견이다.

문학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을 밝혀내는것은 영광스러운 주체시대가 로동계급의 문예학앞에 제기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리론실천적과제의 하나였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의 가장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켜 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학예술발전의 새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통일을 완벽하게 실현한 문학예술을 요구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을 천명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내세우시고 인간학의 근본에 관한 문제를 빛나게 밝히심으로써 문예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종래의 문예학은 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론의와 거듭되는 탐구를 벌렸을뿐 그것을 해명해낼수 없었다.

지난,시기에 문예학은 문학작품에 창작가의 의도를 구현하는 기본고리로서 주제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그것을 중요시하여 왔으며 형상적화폭을 구성하는데서 인물성격형상이 노는 중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매개의 형상단위를 세포에 비기고 그 화폭들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인물성격을 형상의 핵이라고 불려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일련의 리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밝혀낸것이 아니였다.

주제가 창작과정의 시초에 위치하여 일정한 역할을 논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형상의 모든 요소들

을 조건 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될수 없으며 형상화의 결과에 이루어지는 인물성격이라는 범주에 형상의 핵이라는 명명을 주는것만으로써는 형상을 대적으로 기초짓는 근본요인을 밝혔다고 할수 없다.

작품의 핵에 관한 문제는 오직 의의있는 주제를 제기하고 심오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밝힐수 있도록 기초지어주고 떠밀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천명할것을 요구하는 인간학창조의 근본에 관한문제이다.

오랜 력사를 두고 문예학이 해결할수 없었던 창작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사회현상의 근원과 그 발전의 요인을 자주적인 인간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는 주체철학의 방법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비로소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창작이 현실생활의 진실한 반영에 토대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사상적무기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목적의식적이며 주동적인 활동이라는 관점에 서서 창작의 내적과정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이리하여 창작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사상미학적특성에 기초하여 창작의 기본고리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밝혀내시여 종자라고 명명하시였으며 그 본질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인간생활의 깊은 뜻을 간직하고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그것은 참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삶의 근본원리와 관련한 사상을 담고있으며 인간생활의 목적과 방향, 그 가치와 의의에 관한 문제를 밝히고있는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생활의 진리를 안고있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의 정수이다.

그것은 인간생활을 폭넓게 고찰하고 깊이있게 파고들어 시대사상의 높이에 도달할 때야야 얻어 낼수 있는 심오한 사상적알맹이이며 그것으로 하여 형상 전반에 의의있는 사상을 충만시킬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철학적인 씨앗이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작품에 생명이 차넘치게 하는 사상의 근본이며 형상의 요소들을 뿌리박게 하는 생활적인 씨앗이다.

그것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규정할뿐아니라 작품의 형상을 기초짓는 근본적인 씨앗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높은 사상성을 고상한 예술성으로 구현할수 있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배태한 창작의 씨앗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게 의하여 종자의 본성이 과학적으로 천명됨으로써 문예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종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시대의 창작가들은 비로소 창작의 성과를 좌우하고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근본고리를 틀어줄수 있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심어진 종자는 주체의 인간학이 탐구하여야 할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의 빛나는 본보기이다.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종자,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 원의 운명》의 종자들은 이 명작들의 영원한 생명력과 빛나는 사상에술적가치를 담보하는 참다운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들이다.

종자의 발견은 문학작품창작의 비결에 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으로 된다.

그것은 이 발견이 빛나는 예지로 창작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여 그 핵을 파악한것이기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현실탐구와 형상화과정의 합법칙적인 산물이다. 종자는 창작가의 현실 탐구의 필연적인 결과에 파악되는 생활의 씨앗이며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창작의 씨앗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종자가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알맹이라고 밝혀주심으로써 그것이 창작가의 현실에 대한 관계의 합법칙적산물임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는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알맹이이다.》

인간학의 창조자인 작가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줄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세계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에로 주되는 관심을 집중한다.

창작가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은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탐구하는 과정과 합치된다.

창작가의 생활탐구는 생활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파고드는 론리적인 추구과정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생활을 비반복적인 경지에서 찾아내는 형상적인 탐구과정이 뿔뿔히 떨어져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창작가가 자기의 세계관과 미학적리상에 기초하여 인간생활의 깊은 뜻을 찾아내며 생활의 미적본질을 밝혀내는 과정에 사상의 씨앗으로서만이 아니라 협상의 씨앗으로서도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본질적인 알맹이가 파악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종자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밝혀주심으로써 그것이 예술적형상창조에 작용하는 근본요인임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소재, 주제, 사상은 문학작품의 기본형상요소들로서 이들의 유기적인 련관과 통일이 없이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이 태어날수 없다.

예술적형상창조과정은 생활속에서 선택된 형상의 자료인 소재를 창작가가 설정한 과제인 주제를 해명하는데로 집중시키고 소재에 담겨져있는 생활적인 내용과 론리에 따라 주제를 풀어나가면서 사상을 예술적으로 밝혀내는것으로 이루어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가 소재를 탐구하고 주제를 세우며 그것을 사상으로 해명하는 여중요한 고리들이 근본적인 하나의 요인, 다시 말하여 종자에 의하여 기초지어지며 통일지어진다는 비결을 처음으로 밝히시었다.

창작가는 종자, 다시말하여 사상적알맹이를 소재와의 련관속에서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구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 주제를 세우게 되며 사상적알맹이에 의거하여 생활자료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주제에 해답을 주는 예술적사상을 전개한다.

이처럼 형상화과정의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종자야말로 예술적형상창조의 근본요인으로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되게 되었다.

참으로 종자리론은 심원한 예지로 창작가의 현실 탐구와 형상창조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제시된 인간학창조의 근본요인, 문학예술헌작품의 핵에 관한 위대하고 독창적인 이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헌작의 첫공정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창작에서 핵을 옮겨 골라잡고 예술적으로 잘 가꾸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종자들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창작원리가 새롭게 창시되게 되었다.

종자리론에 의하여 인류는 비로소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산 인간의 생활로써 뚜렷이 밝혀주는 인간학창조의 근본고리를 명확히 틀어쥐고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길에 확신성있게 들어서게 되었다.

종자리론이 제기됨으로써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정도는 창작의 근본고리를 틀어쥐고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튼튼히 결합하게 되었으며 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한고리로 더 잘 복무하게 되었다.

불멸의 종자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고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을 더욱 높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창작의 탁월한 이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한 종자리론의 창시, 이는 문예학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대한 문예사적 공헌이며 인류문예사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사우에 찬란히 아로새겨 대를 이어 길이 전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리론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수천년문예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전성기를 펼쳤다.

종자리론의 위대성은 우리 문학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에 대한 태도문제는 단순히 지난 시기의 혁명문학에 대한 태도로서만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의 주체의 문학예술,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종자리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에 옮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원작에 철저히 의거하며 원작의 종자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명작의 종자와 그 철학적깊이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것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을 근본적인 요구로 제시하시였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과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원작들의 종자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문학예술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이 혁명문학의 근본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을 편향없이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원작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빛나게 살릴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원작의 종자를 틀어쥐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빛나게 옮기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키는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구상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문학창작의 그 모든 업적과 경험들을 그 모습 그대로 꽃피우고 이어나가는 참다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문학건설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이 혁명적방침이야말로 문학의 력사가 흐르고 창작가들의 세대가 바뀔지라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관철되어야 할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정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을 여러 예술형태들뿐만아니라 소설로 옮기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이미 우리 문학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성과적으로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아동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 《나비와 수탉》을 비롯한 많은 아동문학작품들도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원작의 종자를 확고히 틀어쥐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문학예술형태들에 옮기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이며 혁명문학의 불멸의 전통을 이어받는데서 이룩한 자랑스런 열매이다.

불멸의 종자리론에 의거하여 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므로써 우리 문학은 오늘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문학의 한길을 한치의 드

림도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는 충성의 문학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종자리론의 위대성은 종자리론이 나온 이후 우리 문학이 도달한 사상예술적높이에서 또한 뚜렷이 증시되고있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를 적극 탐구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가치를 높이는 길로 우리 문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창작가들이 현실에 나가서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절실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깊이있게 심어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창작과정을 지도하시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역경에 부닥쳐도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이 곧 조선혁명을 옹호보위하는것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심고 꽃피우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종자의 철학적무게는 혁명적수령관을 밝혀주는 심오한 인간문제들을 적극 탐구하는 과정에 비상이 강화되고있다.

충성심에 관한 문제를 안고있는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종자가 깊이 심어짐으로써 우리 문학은 오늘 《조선의 별》(1~7부) 《이 세상 끝까지》, 《열네 번째 겨울》,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 등의 영화문학작품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 서정시 《나의 조국》을 비롯한 시가문학작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주는 높은 예술적경지에로 작품의 철학성을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오늘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뚜렷이 밝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위업이라는 철학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아가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힘있게 형상함으로써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가르쳐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의 종자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심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자기의 철학적심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변함없이 충성으로 높여 우러러보시는 참다운 수령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심을 밝혀주는 무게있는 종자들로 하여 형상의 철학적깊이를 새롭게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비롯한 명가사들과 《어머니》와 같은 서정시 작품들은 혁명의 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충성심에 관한 문제를 종자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신념과 역센 의지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문학이 혁명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높은 경지에서 밝혀나가고있으며 시대정신의 정수를 종자에 담아 혁명적수령관, 주체의 인생관을 감명깊이 밝혀주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더욱 높이 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할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을 구현하여 철학적인 종자를 승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워 사상성과 예술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빛나게 실현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종자를 골라쥔 다음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해낼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종자를 가꾸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옹골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이며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성격과 들끓는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잘 가꿈으로써 우리 문학은 오늘 새로운 예술적경지를 열어나가고 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주인공 유철, 《평양시간》의 주인공 상철, 《생명수》의 주인공 대성, 《새봄》의 주인공 명진 등 최근 시기 우리 문학이 창조한 수많은 개성들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다양한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문학은 자기의 주인공들을 종자가 심어져 있는 극의 중심에 튼튼히 세우고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그려나감으로써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생활체험,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산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또한 투쟁속에서 생활을 찾고 생활을 투쟁으로 지향시키면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풍부하고 심오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화폭들을 빛나게 창조하고 있다.

철학적인 종자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산 인간의 생활로써 심오히 밝혀 예술적개성들의 빛나는 화폭을 더욱 풍부히 한 여기에 종자리론의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생활에서 골라잡은 의의있는 종자가 형상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남으로써 우리 문학은 오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을 뚜렷히 밝히고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투쟁을 힘있게 그리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인간의 사상정신적위대성을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하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개화발전하고 있다.

종자에 관한 주체적문제이론은 또한 창작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세기적인 비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리려면 반드시 종자를 똑바로 쥐어야 하고 작품에 대한 파악을 가져야 한다.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잡는것이 속도전의 선결조건이다.

종자가 똑바로 파악되어야 창작의 목표를 확정지을수 있고 작품에 대한 뚜렷한 표상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있으며 창작에 필요한 모든것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켜 창작에서 높은 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종자의 파악과 더불어 불타오르는 창작적열정은 창작가를 긴장하고 완강한 창작적노력으로 떠밀어주며 창작적사색의 깊이와 예술적환상의 높이를 담보함으로써 창작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종자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명작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창조집단이 일치한 이해를 가지게 하심으로써 불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장편예술영화를 훌륭히 창작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백두산창작단 의 일습씨》로 세심에 널리 알려진 속도전의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었다.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이 불과 수년동안에 련이어 창작됨으로써 가극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떨친

속도전의 성과에 뒤이어 우리 문학에서도 문학 사상 류례없는 높은 창작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우리 문학발전의 비약적인 속도는 장중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의 문학작품창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의례히 오랜 창작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하던 장중편소설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창작되고있으며 최근 수년사이에 참으로 수많은 장중편소설들이 창작되였다.

이것은 창작력량이 확대 강화된것과 함께 창작사업에서 종자에 대한 파악을 앞세우는 원칙이 확고히 견지됨으로써 속도전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이룩된 자랑찬 열매인것이다.

시가문학에서도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내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세워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하게 하며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창작하는 전투적인 일본새가 높이 발양되고 있다.

문학사에 일찌기 없었던 이러한 창작속도는 창작에서 종자를 확고히 틀어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며 주체문학건설의 위업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가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참으로 종자에 관한 주체적문제 이론은 문예학상 처음으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과학적방법론을 완벽하게 밝혀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문학예술창작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었다.

종자리론의 정당성, 진리성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를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히 확증되고있다.

이것은 종자리론을 확고히 틀어쥔 창작가들만이 주체문학건설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으며 문학예술을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에 관한 이 독창적인 이론을 더욱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며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해나갈것이다.

향도의 해발은 살림집에도 외 1 편

림종근

비행장옆
양지바른 언덕아래
아담하게 자리잡은 다층살림집
웃음도 층층
기쁨도 층층
비행사들이 사는 사랑의 집

어느 집이나 문을 열면
도배지의 꽃무늬도 웃고
그췌한 가구류들은 윤기 흐르고
아, 칸칸마다 햇빛도 가득
행복도 가득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좋아 어쩔줄 몰라 하고
어른들은 살펴보고 쓸어보며
감격에 목이 메여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이 사랑 이 행복에 겨워

몸소 풀숲을 헤쳐 걸으시며
터전까지 잡아주신 지도자동지
그 얼마나 시더냐
나라의 보배인 비행사들에게
공산주의에 가셔도 나무랄데 없는
새집을 지어주라 하시며
베푸신 은정 안겨주신 사랑

비행사들이 잘 때 불편이 없게
방문마다엔 방음장치도 하고
창문마다엔 차광막도 드리우라
따뜻이 이르시던 그 가르치심이여
몸소 입사증도 하나하나 쥐여주시며
햇빛 밝은 좋은 날을 끌라
새집들이 날자까지 정해주신 그 은정이여

낳아키운 부모들도
자식들의 집을 두고 마음쓰적 없었건만
아, 우리의 지도자동지
단층마을 여기저기서 사는
우리 비행사들의 생활 걱정하시여
햇빛 밝은 새집을 지어주셨나니

사랑의 한지붕아래
모두 모여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나니

꼭신한 잠자리에 들 때에도
만리 하늘을 주름잡아 날 때에도
가슴 벅차오르는 생각은 하나
목숨바쳐
아, 한목숨 바쳐
친애하는 그이께
충성다할 이 한마음뿐이여라

휴양소에까지 찾아오시여

해당화 꽃향기에 이끌리어
비행사들 모두 백사장으로 나갔는가
술밭속의 휴양각은 비어있는데
소식도 없이 오신다는 소식도 없이
비행사들의 휴양소를 찾아 오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들모두를 만나보고싶으시건만
어데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으려니...
누구도 부르지 말라시며
비행사들의 침실을 찾으신 그이
잠자리도 일일이 만져보셔야
달혀진 창문들을 활짝 열어
방안가득 햇빛도 채워주시며

칸칸마다 알뜰하고
무엇이나 풍만한데도

안겨줄것은 더 없을가 생각하시며
부족한것은 없을가 녀려하시며
구석구석 일일이 살피시여라

잠시 창문가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흰 파도 이는 바다가를 굽어보시던 그이
배놀이장도 더 크게 꾸리고
등산도 조직하라 이르시여라
산으로 바다로
즐거운 휴양의 구간을 넓혀주시여라

그런데 이때
 놀이터 어디선가 들썩하게 울려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따라나선 일군은 당황해 어쩔줄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셔라
 비행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쌓인 피로가 다 풀린다시며

아! 얼마전 그 얼마전
 비행장을 찾아오신 지도자동지
 몸소 비행기조종간도 당겨 보시며
 나라에서 비행사들이 제일 수고한 다시더니
 무더운 여름철에 꼭 휴양을 가서
 하늘길에 땀한 피로 바다에서 풀라시며
 이곳 휴양소를 정해주시더니
 그래도 그래도 마음 안놓이시여

돌아가시어서는 그 몇번

누가 휴양을 떠났고
 누구는 언제 휴양을 가는가고
 떠날 때는 꼭 가족을 데리고 가게 하라고
 물으시고 당부하시던 그이

오늘은 몸소
 휴양소에까지 찾아오시여
 휴식에 휴식을 베풀시고
 행복에 행복을 더해주시니
 진정 그 사랑의 끝은 어디더냐
 그 은정은 햇빛이더냐

아! 태양의 열도에도 비길수 없고
 하늘의 넓이에도 견줄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
 한가슴에 다 안고 사는 비행사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구나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구나

향도의 별 김정일동지

에프손 마사위

오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네 모습 장엄하구나
 숭엄한 네 품속에서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향도의 별 솟았나니
 네 모습 우러를수록
 가슴 더욱 뜨겁구나

오 **김정일**동지
 그이는 향도의 별
 백두의 혁명정기 안으신분
 세계가 우러르는 공산주의의 찬란한 태양
 그이께서 세계혁명의 운명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제국주의는 공포에 떨고있어라

오 **김정일**동지
 그이의 빛나는 예지는
 어리신 시절부터 비범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성의 한마음 심어주시였어라
 오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사상리론의 대가

그이는 문학예술의 천재
 그이께서 학생시절에 쓰신 논문은
 교수 박사들의 경탄을 자아내였어라
 그이께서는 벌써 그때로부터
 정치와 경제, 군사에 정통하신 리론의 천재이시
 었거늘
 정녕 그이는 빛나는 예지를 지닌분이시여라

오 **김정일**동지
 그이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을 벌리시고
 속도전의 방침을 펼치시여
 조선의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로동자, 농민들은 불패의 힘을 안고
 앞으로만 전진하고있어라

오 향도의 별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빛내이시는 주체사상은
 조선과 3세계나라들의 힘의 원천
 오늘 세계는 향도의 별을 우러르며
 새 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거늘
 그이는 세계혁명의 향도의 별이시여라

오 조선이여
너는 행복하여라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있는 조선의 미래는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
정녕 세계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여라

오 조선이여
우리는 백두산에 솟은 향도의 별을 우러르노라
그 별빛 우리 앞길 밝게 비치여라
우리는 향도의 별빛을 안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나아가노라

오 조선이여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 나라
그이의 령도밑에 무궁토록 번영할 조선은
위력한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리리
3 세계의 모범의 나라로 위용을 떨치리

백두의 맑은 정기 지니고 태어나시였고
주석의 혁명사상을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만년장수는 3 세계의 념원이며
우리의 행복이거늘
세계가 향도의 별로
우러러 따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필자 짐바브웨 인민민병훈련소 훈련생)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립니다

호쎌지 에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피땀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락원에서 몇주간을 보내고
저는 작별의 인사를 올리옵니다

당신께서 선물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부유한 이 나라에서 보낸 나날에
환대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대작들을 배우는 과정에
당신을 저의 심장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극과 문학예술분야에서
제가 방향없이 헤매고있을 때
영재이신 당신께서는
저를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자론에서
조선의 생활현실에서
저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신은
문학예술분야에서의 등대이실뿐아니라
당의 타수이시며 령도의 새별이십니다

당신은
인류사상분야와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의 영재이십니다

당신께서 주체의 기치 드시여
조선은 보다 훌륭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있
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도
당신에 의하여 영원히 담보되었습니다

저는 귀국방문에 대한 유쾌한 인상과 함께
끝없는 행복과 광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영재이신 당신의 빛을 안고
억세계 살으렵니다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자는 모리서스작가동맹 부위원장)

항로의 별

김정남

대양과 대양을 넘으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고 서해의 항구도시 남포항에 정박한 《연풍》호로 우리가 찾아간것은 봄별이 내려쬐이는 한낮때였다.

안내선은 가박지에 닿을 내린 《연풍》호를 향해 물결을 건너차며 쏜살같이 달렸다. 안내선 고물에서는 추진기가 차올린 물이 끓어오르며 물보라가 뿔뿔이 날렸다. 금시라도 닻을 끌어올리면 물결을 가르며 달려갈것만 같은 《연풍》호의 선체와 마스트, 조타실은 햇빛을 안고 눈부시게 번쩍거리는데 그것은 마치나도 바다위에 솟아오른 도시의 아바트처럼 웅장하였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연풍》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로동제급이 무어낸 《연풍》호 계열의 수많은 대형집배들이 대양만리를 주름잡고있다는 생각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 운수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현대적항들을 더 꾸려 화물통과능력을 높이고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무역화물수송을 늘일것이다.》

우리는 당직 항해사의 안내를 받아 선장실로 들어 갔다. 마침 1등항해사에게서 화물상선결과를 보고 받고있던 선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보통기에 날렵한 체구, 시원스러운 이마와 사색이 어려있는듯한 그의 그윽한 눈길에서는 대양을 넘나드는 바다사람의 담력과 기질을 조금도 느낄수가 없었다. 대형무역선의 선장이라기보다는 어데 가나 흔히 만날수 있는 소박한 사람의 모습이였다.

우리는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 무은 첫 2만톤급 대형집배 《대동강》호의 선장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항해과정에 이름난 해협들과 운하와 항구는 안 가본곳이 없다는 선장이니 그런 기대를 가질만도 하였다. 난 해협들과 운하와 항구는 안 가본곳이 없다는 선장이니 그런 기대를 가질만도 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취재수첩을 펴놓고 많은것을 들려달라는 우리들의 요청에 빙그레 웃으며 자랑할만한 일을 해놓은것이 없다며 송구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생각에 잠겼던 선장은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한다면 한 일도 없는 저에게 크나큰 사랑과 영광만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말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뻗 선장은 소중히 보관하였던 한 장의 전보문을 내놓았다.

전보문을 읽고 감동을 금치 못해해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선장은 그날의 영광과 행복이 가슴에 넘치여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2년전 찰는듯한 열대의 폭양이 내려쬐이는 인디아양의 검푸른 물결을 헤치고 달려가는 무역선 《연풍》호의 마스트에서 공화국기발이 펄럭인다.

떠나온 조국의 기슭은 어디이고 그 품에 안길 그 날은 언제일것인가?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심은 망망한 대양,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디아양 한복판을 향해하고있는 《연풍》호, 조국의 항구를 떠나 머나먼 항로에 오른지는 보름밖에 흘러가지 않았건만 그 품이 더욱더 그리웠다.

그러나 《연풍》호가 계속 가야 할 항로는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

수에즈운하를 지나 지중해와 대서양...

온종일 가야 섬하나 보이지 않고 날새 한마리 갑판으로 날아들지 않는다. 어디를 보아도 검푸른 물결만이 밀려가고있는데 불비를 퍼붓던 태양은 저 멀리 수평선위에 유자색 노을을 펼쳐놓고 기울어지고 있다.

바로 이 시각 조국의 통신소로부터 《연풍》호를 찾고있는 전파가 무한대의 우주공간을 날고있었다.

《...〈연풍〉호앞, 선장 림방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 경축대표로 선출됨, 즉시 항로를 바꾸어 싱가포르항에 정박할것. 조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준비되었음...》

조타실에서 당직항해사가 해도위에 표시하여 놓은 배자리를 바라보고있던 선장 림방원은 무전장이 들고온 전보문을 받아쥐고 그자리에 말뚝처럼 굳어 지고말았다.

(아! 이것이 꿈이 아닌가!)

전보문의 한자한자를 눈으로 빨아들일듯이 바라보고 또 보았지만 꿈만 같은 일이었다.

조타실로 달려올라온 리종준정치부장이 확성기로 조국에서 온 전보문을 알려주었다. 그의 흥분 어린 목소리를 듣고있는 선장은 심장에 아로새겨진 그 전보문의 글자들이 눈앞에 떠오르며 가슴이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확성기에서 울려나온 정치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달려나온 선원들이 웨치는 만세의 환호성
이 대양을 흔들며 수평선으로 퍼져나갔다.

림방원선장은 터질듯 심장의 흥벽을 두드리는 흥
분을 누를수가 없어 조타갑판으로 나왔다.

정녕 이 몸이 조국으로 돌아간단말인가!

아버이수령님 탄생 70돐을 대축전으로 맞기 위해
달리고달려온 항해길.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려면 항로를 주름잡아 달
리고달려도 보답할 길이 없을것인데 영광의 대축전
장으로 불러주기 위해 대양 한복판에서 배머리를 돌
리도록 하였던 말인가!

이 대양우에 항해력사가 흘러 수천년, 뜻을 단 배
가 대양을 횡단한 그때로부터 무수한 세월이 흘렀건
만 대양을 넘던 선박이 배머리를 돌려 지나 온 항구
로 되돌아간 항해가 있었던가. 설사 대양에서는 태
풍을 만나 배도 사람도 수장될지언정 지나온 항구로
되돌아간 항해는 없었던것이 아닌가.

무역선의 선장을 아버지수령님 탄생 70돐 경축 기
념행사에 참가시켜주려고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배머리를 돌리도록 하여주신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

싱가포르항구로 되돌아가려면 닻새길, 다시 돌아
오려면 열흘길, 그 열흘길에 수만금을 날려보내며
선장을 조국으로 불러준것이 아닌가!

이 감격, 이 영광에 목매여 인디아양도 거리도 설
레이고있는것인가!

줄기줄기 밀려오는 파도가 배전을 때리며 갑판우
에 물보라를 일으킨다.

《정치부장동무!》

조타갑판으로 나온 정치부장의 손을 잡은 선장은
복받치는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길이 없었다.

《선장동무! 조국에서 또 전문이 왔습니다. 어서
배머리를 돌립시다!》

《정치부장동무!》

그러나 선장은 정치부장의 얼굴을 바라볼뿐 지시
를 내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치부장은 결으로 다
가온 1등항해사 강선복에게 배머리를 돌리도록 지
시하였다.

《조타수 우로 만타!》

《우로 만타!》

감격으로 설레는 가슴들에서 울려나오는 복소리
는 흥분으로 떨리었다.

이윽고 《연풍》호의 배머리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통통통!... 선미의 추진기는 푸른 물결을 세차게
차올리고있는데 뚫어번지며 뒤설레는 물결은 커다
란 보습으로 갈아번져 놓는듯 대양의 수평선은 넓다
란 이랑으로 갈라져나간다.

갑판에 서있는 선장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
내린다.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뜨거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인가. 이 순간 선장의 눈앞에는 대형무역선의
선장으로 키워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할 사랑
의 선물과 국가수훈의 높은 표창을 안겨주신 아버지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가슴벅차올랐다.

조국을 잃고 빛없던 그 세월, 소년의 운명은 서리
찬 바람에 날려 떠가는 갈꽃모양 기구하였다. 풍랑
사나운 바다로 돛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갔던 할아
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그날부터 낯설은 교장으로 옮
겨가는동안 소년의 뼈마디는 굼어졌다. 할머니가 아
들은 《배군》으로 안만들겠다고 포구를 떠났으나
철공소에 고용된 소년의 아버지는 30살도 넘기지 못
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았다. 아들에게만은 《배군》의 운명을 면하게 해
주려고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구를 떠났
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지주집으로 팔
려가고 소년은 낯도 모르는 외가로 갔다. 그곳은 어
항도시였다. 파도가 일면 미역이며 조개, 삼발이가
밀려나오는 바다가, 소년의 꿈은 바다로만 끌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날부터 소
년의 멍든 가슴에도 해발은 흘러들었다.

해빛밝은 대학의 강의실과 무역선, 그는 대양을
항해하는 대형무역선의 선장으로 자라났다. ...

생기에 잠기었던 선장은 축축히 젖어오른 눈시울
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 나라 무역선은 그 어느 나라 항구에 가나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군합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무어낸 2만톤급집배 <대동강>호
를 물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던 때 느끼었던 감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들이 <대동강>호를 물고
수에즈운하에 들어섰을 때 항청사에는 공화국기발
이 휘날리고 명절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꽃무음을 들
고 나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우리 <대동강>호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운하통과의
순위를 기다리고있던 수백척의 배들을 앞서서 선참
으로 운하를 통과하는 특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
리는 운하를 통과한후 대사관 일군들의 말을 듣고서
야 <대동강>호에 둘러진 특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동강>호의 입항전보를 받
은 항구에서는 주체조선의 공업이 낳은 배가 자기
나라의 운하를 처음으로 통과하는것은 경사로운 일
이라고 하면서 며칠전부터 환영준비를 해놓고 <대
동강>호의 입항을 기다렸던것입니다.》

우리는 선장에게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
하며 따르고있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을 감명깊게 들
을수 있었다.

선장은 자신에 대한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타실에서 1등항해사 강선복동무와 마주 앉게 되었다.

라침기와 전파탐지기, 자동조타기 등 모든 항해 기구들이 원격자동화되어 있는 조타실 해도탁우에는 커다란 해도가 펼쳐져있었다.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침로는 수에즈운하를 가리키고있었다. 홍해, 지중해, 대서양 해도를 짚어가며 《연풍》호가 가야 할 항로를 설명하고난 1등항해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머리를 돌리었다.

《우리 선장동지와는 하루종일 마주앉아있어도 자신에 대한 말을 들을수 없습니다. 우리 선장에 대한 글을 처녀항해선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것부터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1등항해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청진항을 떠난 《대동강》호는 세찬 파도를 헤치며 태평양수역을 항해하고있었다.

산악같은 파도가 마스트를 넘어 갑판우에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갑판은 한순간에 불바다로 변한다. 배가 앞머리로 파도를 누르고 일어서면 갑판우에서 넘실거리던 물은 현측을 때리며 훑날리는 파도에 휘말려들어가고 만다. 바다는 마치나도 사슬에서 풀려나온 맹수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으르렁대는듯 몸부림을 치고있다.

《대동강》호가 필리핀 동남쪽 해상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일본해협을 향해 이동하고있다는 해양예보소의 전파를 받은것은 3시간전이었다.

조타실에서 무전장이 가져온 예보 전문을 받은 선장은 한참동안 해도를 바라보다가 침로대로 항해할것을 당직항해사에게 지시하였다. 저기압은 《대동강》호가 가야 할 침로앞으로 마주오고있지 않는가.

그 저기압으로 하여 《대동강》호는 침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다는것을 선장은 생각하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양예보 소들에서는 불길한 전파를 자주 날려보냈다. 무전장이 조타실로 전보문을 날라올 때마다 선장의 얼굴을 쳐다보는 항해사와 조타수, 감시병은 가슴을 서늘케 하는 불안을 가셔버리고있었다. 당황한 빛이란 꼬물만큼도 나타나있지 않는 선장의 얼굴에서 신심을 얻는 그들이었다. 태풍과 맞닥들어도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과 높은 항해기술로 배를 안전하게 몰아가는 자기들의 선장이라 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 닥치면 선장의 얼굴부터 쳐다보는 선원들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는 《대동강》호! 수령님께서 항구로 오시여 친히 다녀가신 《대동강》호를 몰아 대양만리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영광과 보람은 얼마나 큰것인가!

그런데 저기압으로 인해 그 배길이 지체되고있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 마스트를 날아넘던 파도는 기진한듯 머리를 숙이고 현측을 때리었다. 저기압은 선장이 판단한대로 멀리로 이동한것이다. 그러나 《대동강》호에는 새로운 시련이 겹쳐들었다.

기관실 추진축굴로 바다물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다. 조타실에서 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선장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묵묵히 서있었다.

수밀문을 닫아버릴것인가? 수밀문을 닫는다면 기관실로 물이 드어오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면 추진축굴에 물이 차서 윤활유계통에 파급될수 있다. 그때에는 배를 세워야 한다. 배를 세워서는 안된다.

선장은 적들이 준동할수 있는 해협에서 배를 절대로 세울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뿔프를 설치하고 추진축굴로 들어오는 물을 물것을 명령하였다. 선장의 명령을 받은 기관사들과 조기원들은 뿔프를 설치하고 물을 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뿔프판으로는 추진축굴로 들어오는 물을 풀수가 없었다. 주기관조정변을 잡고있는 당직기관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사들과 조기원들이 바깥으로 물을 퍼냈다.

《대동강》호는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한마음, 순간도 항해를 멈추지 않으려는 선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리어 《대동강》호는 파도를 헤치며 침로를 따라 전진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대동강》호에는 보다 엄혹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침로 30도 군함 발견!》

당직항해사의 보고는 조타실안의 공기를 무겁게 하였다. 선장은 탐지기앞으로 다가갔다. 파르스름한 불빛이 흐르고있는 탐지기안에는 2개의 흑점이 나타나있었다. 탐지기에서 물러선 선장은 선원들의 얼굴을 일별하였다. 라침기를 지켜보고있어야 할 조타수는 허둥거리는 눈길로 선장의 얼굴을 더듬고있었다. 선장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쌍안경을 들었다.

쌍안경 렌즈안에 잡힌 미국놈들의 함선을 쏘아보는 그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쌍안경을 얼굴에서 내리운 선장은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들! 미국놈들은 우리의 항로를 <봉쇄>하고자고 접어들었소. 그러나 우리는 침로를 한마일도 어길수 없소!》

선장의 강철같은 의지와 신념은 선원들의 가슴에 힘을 안겨주었다.

《1등항해사동무, 선원들을 모두 갑판에 모이게 하시오.》

비상신호의 기적소리가 하늘가로 울려갔다.

《뽀웅!-》

선원들은 갑판에 정렬했다. 선장은 선원들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말했다.

《마스트의 공화국기발을 내리지 마시오.》

람홍색공화국기발은 불길처럼 타오르며 마스트우에 휘날리고있었다. 선원들은 옷깃을 여미고 기발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펄럭이는 기발에서 조국을 보고있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지켜 미국놈들의 준동을 박차고 나가려는 신념이 불타고있었다.

포신을 추켜든 군함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다가왔다.

이때였다. 무전장이 레시바를 귀에 건채로 전보용지를 들고 조타실로 뛰어들어왔다.

《선장동지, 조국에서 전보를...》

전보용지를 받마친 선장의 손은 가볍게 떨리었다.

《...<대동강>호알, 조국은 동무들을 지켜보고있다!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

선장의 눈은 뵈양게 흐르들었다. 가슴속에는 무쇠기둥이 세워지고있었다.

《동무들! 조국은 우리의 항로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선장은 전보용지를 쳐들고 목멘소리로 부르짖었다.

《후-》하는 흐느낌소리가 조타실 여기저기서 울려퍼다, 선장은 주먹을 부르쥐고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웨쳤다.

《침로 그대로!》

《침로 그대로!》

《대동강》호는 전속으로 미국놈군함을 맞받아 들어갔다.

100미터, 50미터... 그 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놈군함은 타력을 죽이고 기적소리를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흠칫거렸다. 산악처럼 막아섰던 미국놈군함들은 두동강이 나듯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뿌웅!-》

《대동강》호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넓게 트인 바다한복판으로 달려나갔다.

마스트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은 눈부신 태양의 빛을 받아 더욱 불게 타오르고있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였던 1등항해사는 말을 이어나갔다.

《참, 우리 선장동지를 <처녀항해선장>이라고 부르는것을 말하지 않았군요. 우리 <대동강>호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여 조국의 항구로 돌아왔을 때 <청천강>호가 진수되었습니다. 선장동지는 자진하여 <청천강>호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처음 진수한 배를 길들이자면 애로가 많다는것을 선박건조자들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장동지는 정든 배를 떠나 <청천강>호로 옮겨갔던것입니다. 우리 선장동지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무어낸 배들이 하루빨리 대양으로 나갈것을 바랐던것입니다. 우리 선장동지는 <청천강>호를 물고 대양으로 나갔습니다. 그후 선장동지는 <연풍>호로 또 옮겨 왔습니다. <처녀항해선장>이라는 말은 외국항구의 대리인들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매번 새 배를 물고 자기 나라의 항구로 나타나는 우리 선장동지를 그렇게 불렀던것입니다.》

1등항해사의 말은 끝났다.

《처녀항해선장》, 영예와 공명을 바랐다면 진수한 새 배로 자진하여 옮겨가지 않았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충성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타고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자진하여 맡아 나섰던것이 아닌가!

선장 림방원은 선수지휘대우에 서있었다. 우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항구의 밤은 여전히 들끓고있다. 정박등을 켜 수 십척의 배들이 닻을 내리고있는 항구는 물우에 솟아오른 대도시의 밤을 련상케 한다. 파란 항해등을 이마에 달고 선박들 사이로 밤물새모양 안내선들이 쏜살같이 달려가고있다.

선장은 새로 진수한 《장자산》호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새로 진수한 《장자산》호에 보낼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을 생각하고있었다. 새 배가 진수될 때마다 보내준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속에는 선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었다.

항로의 별이 되어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장자산》호를 대양으로 몰아갈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을 골라 보내려는 선장의 생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항로를 빛내여 가려는 지향으로 불타고있었다.

아, 우리 수령님

오영재

누리를 가득 채운
억만가닥 빛살이
기쁨을 뿌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봄날이여라

다투어 피어난 꽃들이
해살을 부여잡고 웃는
양지바른 문화주택마을
젊은 여성관리위원장은
나를 안내한다
한채의 작은 집앞에

갓 돋은 연록색 잎사귀들이
탐스럽게 봄을 숨쉬는 고수버들밑
비바람속에 차분히 자리잡은
재빛 기와지붕은
못잊을 그날의 감회를
후더운 나래처럼 덮고있어라

《바로 이 방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 선 저 안쪽에 앉으시고
저는 이 문가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좁은 퇴마루가 토방우에 없혀진
아래웃방 수수한 보통 농촌집
20 여년전 단발머리 농산기수였던
관리위원장 명순의 다감한 눈은
그리운 추억으로 젖는다

1

소대한의 맵짠 추위속에
눈보라 세차던 그날
뚜지던 불갈구리 집어던지고
단발머리 농산기수는 달려갔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

그저 뵈고싶어 달려갔건만
그는 몰랐더라
모두가 회의 가고 혼자 남은
관리위원회의 농산기수
그가 주원이 되어 원수님을 모셔야 했을줄을

싸락눈이 길을 쓰는 들담가에서
외투우에 함뼉 눈을 없으신채

주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수령님
반가우시여 잡아주시는 그이 손길을
온 가슴으로 부여안고
모시게 된 가까운 농가집

전후의 상처를 가시고
온 나라가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던 그 시절
푸집한 분배로 퍼가는
조합살림이 보고싶으시여
웃마을 리현리를 찾아가시던길

마을이 하도 아담하게 들어앉았기에
들려보고싶었다 하시며
방안으로 들어서신 수령님
구석에 옷장 하나 놓여진
집안의 모양을 살펴보시고는
부엌으로 통한 사이문도 열어보시며
송구해 서있는
주인집 너인을 가까이 불러주시여라

이교장은 옛날부터
농사가 잘 안되는곳인데
이런데서 농사짓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는 그이

《분배는 했습니까?》
《예, 바로 어제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받았습니까?》
《……》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있는 너인을
한동안 여겨보시던 수령님
풍족치 못한 이 마을의 살림처럼
써늘한 구들을 짚어 보시며
안색을 흐리시여라

가물고 척박하기 그지없어
이교장은 그 이름도 《불동촌》
피와 조도 가물어 타서 흙도 붉은땅
날아가던 메새들도
추길 물이 없어 울며 지나갔다는곳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
어느덧 눈물이 그렇게진 명순에게

눈길을 돌리시여라
《그래 너는 얼마를 받았니?》

철없는 단발머리처녀는
농장의 형편을 그대로 말쑥물렸어라
《아버이수령님
옷마울처럼 분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못지어
모두 빈 봉투에 계산종이만 넣어주었습니다.》

분배봉투를 나누어주며
관리위원장도 조합원들도 서로 얼굴을 못보던
분배장 정경이 또다시 되살아와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이께 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뒤집을 지시여라
질으신 심려의 빛으로 하여
일시에 방안은 어두워진듯...
한동안 무겁게 침묵만이 흐르는데
혼자말처럼 하시는
그이의 나직한 음성이 울리여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겨울의 해는 짧아라
방안엔 전등이 켜지고
창밖에선 눈보라만이 울부짖는데
조합의 사정을 다 알아보시고는
집을 나서시는 수령님

눈가루 날리는 토방우에서
단발머리 명순의 손을 꼭 잡아주시여라
《금년농사가 다 잘되어
잠깐 바람 쏘이러 나왔었는데...
내가 먼곳만 돌아보다니니
가까운곳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데를 보고는
백개 천개의 조합을 잘살게 한다 한들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몇걸음 차걸으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다시 발길을 멈추시고
수곳이 따라오는
처녀의 젖은 머리 쓰다듬어주시여라
《제일 못사는 농장을 추켜세워 보겠다고
학교를 졸업하자 지원해 왔더니
얼마나 장한 일이나
농촌건설의 선구자가 뇌여
일을 잘해라

내 꼭 너의 조합을 잘살게 해주마.》

눈보라 어둑속에
떠나는 차
마을길이 끝나서 큰 길에 이르렀는데
아니, 어디로 향하는것인가
가시던 옷마울이 아니라
오신 평양쪽으로 꺾어지거니
(되돌아가시누나
내가 그만, 내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처녀는 차를 따라 달려라
제 걸음이 아닌듯 달리고달리는
처녀의 머리채며 옷자락을 후려치며
눈보라도 웨치는가
(이 철없는것아
이 철없는것아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이밤 잠 못드신다!)

《울며 돌아오던 그 밤길을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어요.》
녀성관리위원장은 방안으로 올라가
옷장의 옷빠람을 열어 보여라
《그날에 수령님께서 앞에 놓으셨던
담배갑과 성냥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셨는지
이 담배만 만지적거리고계셨지요.

이튿날 이른아침에
트랙포트와 자동차의 긴 행렬이
뜻밖에도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바친 현물세에
나라가 더 보태여 내려보내준
쌀과 돈이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불러내는
관리위원장의 목은 갈려
한동안 갑자를 때마다
조합원들의 흐느낌은 높아갔습니다.

분배는 끝났지만
우리는 헤어질줄 몰랐습니다
한 유가족 할머니가 주석단앞에 다가
정중히 봉투를 단우에 놓았습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약속한듯 모두 일어나
두툽한 봉투를 다시 바치며
맹세 다졌습니다
래년 농사는 꼭 잘지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다고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이
참으로 어려운 설복을 했습니다.
하여 분배는 제대로 되었지만
그러느라 근 하루가 걸렸지요.》

2

봄배추 소담한 포전길을 걸으며
관리위원장 명순은 말한다
《다음해 농사는
조합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잘 지어 봤어요
로력도 기계도 분수식관개설비도
넉넉히 보내주신 그 은덕으로
수령님 심려하신 조합이라고
잘사는 이웃 농장도 구분대의 군인들도
성심성의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힘든줄 모르고 나도 일했어요
수령님 교시를
조목마다 수첩에 적어 가지고
그것을 논밭에 옮기고 이삭으로 영글리며
해마다 농업대회에
아버이수령님은 저를 불러주시고
저는 그이 앞에서 토론했어요
뒤주식쌀창고도 선참으로 지은 이야기
남새영양단지도
뒤질세라 받아들인 경험

그때마다 그리도 대견해하시며
치하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새세대니까
기술도 잘 알고 토론도 잘한다>고.》
그리웁에 젖어
이어가는 그의 이야기
굽이쳐 흘러간 이랑처럼 끝없는데
마주 닿은 봄하늘 지평선 위에
점점이 떠흐르는 흰구름들
행복의 새무리처럼 날고있어라

고수버들가지의 까치둥지에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듯
흰배를 반짝이며 까치들이 울고
길가의 봄도랑에선

깨끗한 차돌들을 씻어내리는
즐거운 물노래소리

《이 길이 있답니다.》
그날에 눈보라가
되돌아간 승용차의 바퀴자욱을 묻고
울며 따르던
어린 처녀의 발자욱을 묻던 길

《내 꼭 너의 조합을 잘살게 해주마.》
인자하신 그 목소리가
발동소리 사라져간
저 먼 평양쪽에서 메아리처럼 울려와
처녀의 가슴 언제나 울먹이게 하던 길

못사는 자식에 사랑이 더 가는
친아버이 그 심정으로
얼마나 자주 이 길로
그이께선 이 마을 찾아주셨던가
높아가는 수확을 안고
그이께 기쁨의 보고를 올리려
행복에 넘쳐 전국농업대회에 올라가던 길
작업반장으로, 관리위원장으로
사랑의 그 품에서
명순이가 자라난 이 길

탄생 예순돛을 세해나 지난
그해 여름은 류달리 더웠어라
논을 봐도 좋고
강냉이밭을 봐도 좋고
남새밭을 봐도 마음 즐거운
그 여름의 어느 명절날

꽃강냉이 한 광주리 찌다놓고
즐거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텔레비존앞에 모두 모여
하루를 즐기는데

뜻밖에 전해온 소식
아버이수령님께서 논머리에 와 계신다는
감격의 그 소식

명순은 달려갔어라
바람 시원한 그늘밑 선전실에서
농민은 편히 명절을 즐기는데
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달려가는 처녀관리위원장의 눈앞

쫓이는 피약벌아래
푸른 벼이삭도 숨죽은듯 드리운 논머리에
한잎의 농립모를 엮으시고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연해 훑치고 계시는
아버이수령님

《처녀관리위원장이 오는구만.》
손수건을 여전히 엮으신채
웃고 계시는 그이 앞에서
명순은 얼마나 송구했던가
서늘한 자기 명절옷차림이

《수령님
오늘은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날이어서
온 나라가 다 쉬는데...》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들먹이는
처녀의 어깨를 웃으시며 다독여주시여라

《나야 휴식이라는데 따로 있다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것이
휴식이고 명절이지
금년 벼농사가 잘되어서
이렇게 바람 쏘이러 나왔지.》

아,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더 큰 행복을 마련해가시는 길에서
눈보라와 피약벌을 모르시는 수령님

못잇을 그 길우에 무겁게 드리운
탐스러운 벼이삭 하나 뽑아드시고
인민이 다같이 누리게 된
행복의 수자를 헤아리시는듯
끝까지 다 세여 보시고는
호탕하게 웃으시여라
《빈봉투 농장이
이제는 잘살게 되었소!》

날알을 익히는 태양의 목소리인듯
해빛처럼 뿌러지는 그 웃음아래
벌판은 일제히 머리 숙이고
그이의 옷자락에 매여달려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

수원들도 이젠 떠나주실것을 바라건만
왔던김에 강냉이밭도 보고 가자 하시며
처녀관리위원장을 이끄시는 수령님
《밭이 텅니다.》

처녀가 안타까와 아뢰는 말에
《일없다, 멀어도 가자.》
멀리 산기슭의 푸른 강냉이밭을 향해
몸소 앞서시는 수령님

길은 질고 험하건만
그리도 즐거운 《명절》의 기분이신
우리 수령님
단발머리 농산기수가
이젠 관리위원장이 되어 농사를 잘 지었다고
가까이 오라고
함께 걸자고
그를 기다려주시는 수령님

비탈길은 구불구불
땅도 더위에 지친듯
더운 김을 뿜는데
아랑곳 없으신듯
 옮겨가시는 그 걸음
해별에 그슬리신 그 안광에
자애로운 미소를 함뿍 담으시고
명순이를 정겹게 바라보시여라

《약혼을 했나?》
뜻밖에 물으시는 그이 말쑤에
그만 얼굴이 붉어진 명순이
혼자만 간직해 온 비밀이언만
어찌 그이 앞에서야 숨김 있으랴
《당앞에 맹세한 알곡계획을 하기전에는
잔치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 ...
그래서 약혼을 하고도 이태를 미루어온단말
이지.》
생각에 잠기신듯
한동안 말없이 걸으시더니
처녀를 보시며 뜻있게 웃으시여라
《내 방법을 대줄가...》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두루봉중턱에 촛촛히 매달린
몇줄의 다락논을 가리키시여라
《내 <풍년>호 불도젤을 몇대 보내줄테니
저 다락논을 쪽쪽 밀어제끼고
거기다 강냉이를 심고
뒤그루로 밀을 심어보지
알곡소출이 훨씬 높아지지 않나.》

마치도 친딸을 대해주시는듯

마치도 천아버지를 맞은듯
혈육같은 뜨거운 정이 누벼치는
길이며, 강냉이밭으로 가는
사랑의 길이며

어느새 다달았는지 처녀는 몰라라
푸른 잎새 스적이며 노래하는 강냉이숲
팔뚝만한 강냉이 따 드신 수령님
몸소 속을 벗겨 보시여라

누렇게 윤기도는 알들을 쏴어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그 모습
《잘됐소
강냉이도 대풍이요.》

그 이삭 높이 드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앞으로 밀고나가야 할 자연개조의 방침을
하나하나 제시해주시는 수령님
펼쳐치누나
알뜰히 가꾸고 기름지을 조국의 땅
바다물을 밀어내고
넓혀 가야 할 서해의 간석지
치산치수로 단장하게 될 강줄기들

기쁘신 날이여라
퍼붓는 피약벌아래
그이의 손수건은 호락이 다 젖었어도
행복의 좋은 바람을
마음껏 쏘이시는 날이 여라

따드신 강냉이이삭
놓으실줄 모르시고
기쁘시여 혼드시며
오솔길을 내리시는 수령님

그이 뒤를 삼가 따르는
명순의 귀전에
나직이 부르시는
그이의 노래소리가 울려퍼

풍년의 기쁨이 어린 노래일가
인민의 행복이 담긴 노래일가
온 마음 기울여
처녀가 새겨듣는 노래

아, 후더워 오는 처녀의 눈시울이여
지리지 못살던
이름없는 한 마을의 풍년이 그리도 기쁘서

무더운 피약벌아래에서
봄을 노래하시는 수령님

인민의 살림우에 덮인
한점의 작은 그늘이라도 지워주시기 위함이라면
천리를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꽃피는 봄날에 탄생하시여
영원히 조선의 봄을 가꾸어 가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여!

3

개나리꽃 활짝 핀 올 담가에
별나비떼 한가로이 날아드는 언덕길을 오르며
명순은 말한다
《그날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명절날에
우리 농장을 찾아주셨는가를

나라의 크고 작은 일 말아보시기에
그리도 바쁘신 우리 수령님
이름도 없는 우리 농장까지 찾아주시기 위해서는
쉬시게 된 명절날밖에
다른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일곱해가 지나
우리들을 또다시 찾아주신 날도
탄생 일흔둘을 맞으신지 열흘후
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맞는 명절날이었어요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오이 온실을 보아주셨습니다.》

흔한 비닐과
나무 몇대로 온실을 지어
인민들에게 이른봄 남새를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간곡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을
맨 선참으로 받들고 지은 온실

유리와 강재로 무연한 벌을 덮은
이름난 온실도 많건만
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농민들의 마음이 기특하다 하시며
찾아주신 농장의 작은 온실
겉모양 또한 볼품없는 초라한 비닐집

틈새도 잘 맞지 않는
한겹의 얇은 비닐문이 아, 그날
그이께서 들어서신 문이란 말인가
확-단김이 풍겨오는
온실안의 질적이는 붉은 이랑이

그이께서 걸으신 길이라누나

탐스럽게 주렁진
이 오이들을 만져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셨다는 아버지 그 마음이
지금도 이 비닐집안에 가득히 차넘치는듯
초봄의 오이맛이란 류다른것이라고
국수그릇에 몇오리만 쳐도 별맛이라 하시며
4월의 명절날에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니
잘한 일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신 수령님
습기차고 찌물कु는 온실안을
오래도록 떠나실줄 모르셨다누나

비닐막을 떠받고 신
온실의 나무기둥에 기대어
주렁진 오이들을 매만지며
명순은 말한다

《이 온실을 보시러 오신다는 말은
이미 전해들었지만
그런 명절날에 또 오실줄은 몰랐어요
20대의 청년장군으로
조국을 광복하시려 첫 무장대오를 무으신
그날로부터 50년
감회인들 얼마나 깊으신 날이었겠습니까

20여년전
우리 마을 찾아주신 그밤으로부터
해마다 그이를 가까이 뵈오면서
더해 가는 사랑만을 받아 오던 우리들
그 세월에 늘어나신 흰머리가
이 온실의 푸른 잎 사이에서
유난히 가슴을 아프게 찢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봄 오이까지 줄수 있게
우리 농장이 풍족해진것이
그처럼 기쁜 일이어서
뜻깊은 명절날에 <바람 쏘이러> 또 나오신
아버이수령님

인민을 위해서라면
눈비를 맞으시는것을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며
마른 길 굶은 길을 가리심 없이
걸고 또 걸어오신 아버지수령님을
인민이 단 한번 편히 모신적 있었습니까

사철 남새를 떨구지 않고
인민들의 집집마다 보내줄
사랑의 햇빛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떠나가시려
온실밖으로 나오신 그이께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령님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한걸음 저의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뭔데...>
그 어떤 어려운 청이라도 다 들어주시고
모자라는것이 있다면 기꺼이 보태주실듯
자애로이 저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이 앞에 서서
철없이 울며
안타까움도 털어놓았었습니다
이른아침 들판에 나서도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있어도
못견디게 수령님 모습 그리운 이 마음
뵈옵는 날 뵈옵는 밤이면
헤어짐이 또 아쉬워
래년농사도 꼭 잘 지을테니
또 오셔달라고 어리광도 부렸지요

그때마다 너그러이 웃으시며
저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엔 다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아프신 가슴 안고
잠 못 이루신 밤도 많으셨고
인민이 다 쉬는 명절에도
그이께 또 걸음을 걸으시게 했음을

가까스로 눈물을 건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어제날 빈봉투를 나누어주던 마을이
오늘은 이렇게 잘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심려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수령님
이제는 발에 나오시지 말아주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님 뜻을 잘 받들어
우리를 이끌어주고계시는데
수령님께서 과업만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잘되여갑니다

수령님께서 70 뼉도 지나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계셔주십시오
수령님 뵈고싶은 생각 간절할 때면
그 마음으로 우리 농사를 잘 지어

해마다 농업대회에 올라가 뵈겠습니다.
수령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는것뿐입니다.>

말씀을 올리는 저를
그이께서 자세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발머리 철없던 농산기수가
인민의 마음으로 인사까지 올릴수 있게
그렇게 자란 모습이 대견스러웠는지요

<고맙소, 동무.>
그이께서 처음으로
저를 동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고맙소
나야 이렇게 늘 바람 쏘이러 오지
얼마나 좋아
동무도 만나보고 잘 자란 오이도 보고...
동무들속에 있어야
나는 건강해.>
뜨겁게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는
저만치 떨어져있는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문이 닫혀지려는 그 순간
밝으신 그이 안광이 다시 빛나고
손짓으로 저를 부르시는것을
꿈결인듯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어서야
그어 곁으로 갔습니다
그이께서 차문을 한손으로 쥐신 채
저를 지켜보고계셨습니다
<명순이.>
너무도 예상할수 없었던
뜻밖의 물음이 가슴에 울려 왔습니다
<아들이 있나?>
<예.>
<딸도 있고?>
<네, 오누이입니다.>

저를 불러 물으시고 싶으셨던것은
이것이 다 이시였습니다
동행한 간부들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위원장에게
아들딸 오누이가 있는데
앞으로 잘 키우시오.>

한동안
낮익은 푸른 남새밭에 눈길을 보내시며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거듭 그 말씀을 외우셨습니다
<잘 키우시오.>

봄날의 밝은 해는
중천에서 빛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떠난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수령님과 전사
친어버리와 친딸의
이렇듯 고매한 의리의 말이
이 시각도 공간에 메아리치고있는
승업한 이 자리는
너무도 흔히 보는 보통 농장길

이 길우에서
나는 스스로 나에게 물어본다
이 땅에서 낱알은
무엇으로 영그는것인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라는것인가

아, 그이는 흑점이 없는 태양
인민은 그늘 없는 충성의 달
보이지 않는 태양의 인력앞에
스스로 별들이 궤도를 짓듯
위대한 인간 태양앞에
매혹된 인민의 별무리로
우리는 불변한 하나의 우주를 이루었거니
따르면 우리 삶은 영광이 있고
따르지 못할 때
밤하늘의 별찌처럼
우리 몸은 부서지리

아, 그날에 수령님을 바래워 드리던
그 인민들속에서
그날에 젖고젖은
온 농장 사람들의 옷소매처럼
이 시인의 손수건도 다 젖어
다만 터져나오는 감격의 말은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우리 수령님!

-장천협동농장에서-

만경대를 찾아서

리종섭

《1925-1945》

가없이 들린 하늘에는 4월의 태양이 파스한 봄별을 뿌린다.

철도 좋은 이 봄날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를 찾아왔다.

만경대 뺨스정류소에 내리니 길은 길마다 사람들의 꽃물결로 흘러넘친다.

온 나라 인민이 찾아오는 만경대!

만경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땅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파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갈 드팀없는 결심을 가다듬는다.

그러기를 바라서 나는 며칠전에 입대하여 초소로 떠나기전에 하루시간을 받고 집에 온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해마다 찾아온 만경대이건만 옆에서 걸어가는 병사인 아들도 자못 승업한 생각에 잠겨있다.

군복을 입고 찾아왔으니 여느때보다 느낌도 다를 수 있으리라...

나는 만경대 언덕길을 오르며 아들에게 물었다.

《넌 이 길이 몇번째지?》

《저 유치원때부터니까 해마다 두번 이상은 왔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난 아들이 속구구를 하는동안 나도 인츰 계산해보았다.

《그래 20번도 넘는단말이지.》

《예.》

《아니다, 너는 그보다 더 많아. 넌 1살때부터 만경대에 왔었다.》

《1살때부터?》

아들은 놀라는 눈길을 나에게 던진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아들이 1살때 팔랭이를 들리워 안고서 이 길을 걷던 일이 어찌런듯 눈앞에 삼삼하다.

누구나 나서자란 고향은 다 있건만 아들딸이 태어나면 업고서라도 찾아오는곳이 여기 만경대 마음의 고향인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걸음마를 땔 때에도 이 나라 어머니들은 스스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부른다.

만경대로 간다 한발자욱 더
웃으면서 간다 한발자욱 더

애기들도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만경대고향집으로 가는 이 언덕길에는 얼마나 숭고한 자욱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이 길은 《배움의 천리길》이 여기로 잇닿아있었고 《광복의 천리길》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이 또다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었다는 가슴아픈 기별을 받으시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결연히 고향을 떠나시던 그날이 가슴뜨겁게 안겨 온다.

...1925년 의 겨울날.

간밤에 내린 흰눈이 만경대초가 지붕우에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우에도 하얗게 덮여있다.

까만 두루마기에 목도리를 두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 언덕길에 서시어 고향산천을 다시금 바라보신다.

아 얼마나 정다운 고향인가!

《큰칼》을 휘두르시던 《군함바위》며 무지개 잡으러 오르셨던 들메나무, 어머님의 손목 잡고 오가시던 우물길이며 아침이슬이 진주알처럼 맺혀있던 학습터의 잔디밭...

어디를 보나 유년시절의 애틋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고향산천이었다.

하지만 이 고향산천을 누구보다 더 뜨거이 사랑하셨기에 고향산천과 잇닿은 온 조국땅에 광복의 봄을 펼치시기 위해 원님께서서는 떠나야만 하셨다.

인제 가면 언제 올지 기약할수 없는 손자분을 보내시는 할아버님과 할머니의 마음도 젖어오시는가.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주름깊으신 얼굴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

세월의 락엽속에 묻어둘수 없고 망각속에 지워질수 없는 력사의 그날이 낮이나 밤이나 여기 언덕길에 펼쳐져있으니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1925년은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아버님,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할아버님... 할머님...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찾기전에는 돌아
오지 않겠습니다.》

목메이시면서도 비장한 결의가 맥맥히 흐르는 그
날의 그 말씀이 오늘도 귀가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참으로 그때 우리 인민은 모진 수난의 참극속에서
위대한 령도자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일제의 독기어린 총창에 쫓기여 두만강을 건너 가
는 쪽배우에서 마지막으로 고국산천을 바라보며 가
슴치던 농민들의 마음속에도, 원썬놈들에게 끌리어
거처를 현해탄물결에 눈물을 뿌리며 복해도 지하막
장으로 가는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도 조국을 구원해
줄 영웅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열망으로 가득찼었다.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
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우리는 문득 등뒤에서 들려
오는 외국인의 말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얼핏 보니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온 손님이라는 짐
작이 간다.

나는 기자의 직업적타성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었
는지 안내원에게 알아보고싶었다.

《이자 이 손님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 자기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들과 장
군들을 많이 알고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4살 어린
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선 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
니다.》

그렇다. 그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세상에는 당대사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위인들과
명인들의 력력과 일화를 묶은 부피 큰 책들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그 많은 갈피를 번져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나이에 벌써 누리에 그 명성을
떨치신 것처럼 비범하시고 것처럼 강의하시고 그 처
럼 견결하신 분이 어디 있으랴!

짓밟혀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일제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쫓기여 이국의 하늘밑에 정치없이 헤매이
면서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혁명의 태양!

조선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을 안고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은 온 누리를 밝히는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지 않으셨던가!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세계의 영광이며 인
류공동의 경사인것이다.

우리는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언덕길을 내리
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조
국개선나루터》로 가는 길이다.

나루터까지는 10분이면 충분하다.

비록 거리는 짧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며 위
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의 20성상을 더
듬어본다.

나는 병사인 아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싶
은 충동을 느꼈다.

따라오는가싶어 돌아다보니 그는 산기슭에 기묘
하게 생긴 바위속에서 솟구쳐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것이였다.

래일이면 조국의 방선으로 떠날 병사가 오늘 만경
대들 찾아와서 샘물을 마신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외적을 치러 출전하는 젊은이
들에게 마을의 좌상이 《장수샘물》을 떠다주었다
지 않는가.

한모금을 마셔도 뜻을 가지고 마시기를 나는 바란
다.

그 샘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먼길을 가야 하는 너의 가슴을
영원히 적시여줄것이다.

나는 그를 불렀다.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철부지 어린 너를 안고 왔던게 어제 같은데
벌써 병사가 되어 만경대를 찾아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진 풍상고초를 겪으시며 헤
쳐오신 멀고먼 혁명투쟁의 길을 생각해야 하는것이
다. 그래야 네가 앞으로 그 어떤 시련이 부닥쳐도 혁
명의 한길을 꾀없이 걸어나갈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노라니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나루터를 가까이한것이다.

포장도로의 왼쪽 넓은 공지에 《조국개선나루
터》의 유래비가 서있다.

화강석층계를 올라 그 유래비의 한자한자를 뜻을
짚어가며 가슴에 새긴 우리는 그길로 강기슭에 나섰
다.

《조국개선나루터!》

그날의 그 감격을 그대로 안고있는가 백양나무숲
이 강바람에 설레이고 흐르는 물결도 기슭을 감돌며
출렁인다.

나루가엔 쪽배 한척이 놓여있다.

사람들은 그앞에서 떠날줄을 모른다.

그 옛날 황혼을 싣고 한숨을 싣고 길손들을 실어
나르던 이 쪽배가 만민의 환호속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배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감회가
깊어진다.

단풍이 붉게 타는 모란봉기슭의 운동장에서 만민에 울리는 환호에 답례하시며 개선인사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

바로 그날저녁 작은 쪽배를 타고 이 나무를 건너 시여 창포 무성한 고향의 강기슭에 오르셨으니 아! **《김일성장군님이 오신다!》** 환성을 울리며 온 동리 사람들이 달려나오는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주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

백두밀림의 밤, 꿈결에도 어머니 품처럼 따스히 안겨오던 고향산천, 그 정다운 고향산천을 감개무량히 바라보시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위대한 수령님.

참으로 얼마나 준엄한 시련의 령마루를 넘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 이 력사의 기슭에 와닿은것인가.

1925년 그 겨울날 **《광복의 천리길》**에 첫자욱을 내짚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은 팔도구와 무송을 거쳐 화전으로, 길림과 오가자를 지나 안도로, 소왕청, 백두련봉을 거쳐 보천보와 무산지구로, 룡과송과 홍기하를 거쳐 소할바령으로, 실로 혁명의 수십만리를 헤쳐 해방된 조국, 고향 땅으로 이어 온 신것이다.

그 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의 길이며 그 길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앞길을 밝히며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날까지 걸어오신 그 불멸의 로정 **《1925-1945》**!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워오신 항일의 20성상에는 혁명의 폭풍을 헤쳐오신 수십만리의 로정이 아로 새겨져있다.

푸르른 창공에 그 추녀를 높이 든 개선문의 넓은 벽면에도 금빛으로 부각되어있어 그 빛나는 년도앞에서 사람마다 숭고한 생각에 잠기듯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나무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래양의 집

크나큰 감동에 젖어 **《조국개선나루터》**를 다 돌아보고나니 12시가 넘었다.

우리는 만경대고향집으로 걸음을 다그치면서 황홀한 감정에 함뱍 취해 걸었다.

어디를 보나 푸른 소나무숲에 어울려 온갖 꽃이 만발한 만경봉을 주봉으로 좌우로 뻗어내린 산발이 마치도 크나큰 두팔을 벌려 가장 소중한것을 그리안은것만 같다.

그속에 만경대고향집이 있는것이다.

20년만에 고향집을 찾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환호하여 달려나오던 마음들이 그대로 어려있는듯 진달래꽃, 살구꽃, 벚꽃, 대화꽃을 형형색색의 꽃들이 길가에 다투어 피어나 곱게 웃으며 향기를 뿜는다.

실실이 드리운 수양버들 사이를 지나 금붕어가 꼬리치는 런못가에 이르니 꿩들이 공원의 잔디밭을 유유히 거니는가 하면 까치와 클락새가 사이좋게 노닐고 꼬꼬리, 밀화부리, 개구마리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다.

혁명의 성지를 웅위하듯 서북쪽에는 룡악산, 서쪽에는 대보산이 하늘높이 그 웅자를 드러내고 랑림산 줄기와 소백산의 수려한 골짜기에 그 시작을 두고 천리장강으로 내리 뻗친 대동강 맑은 물이 만경봉기슭을 감돌아 흐른다.

참으로 그 아름다움 이룰데 없는 명승지라는 느낌이 가슴그들먹이 차오른다.

하기에 예로부터 만경대는 만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다고 그렇게 이름지어 불렀다지 않는가!

만경대고향집으로는 화려한 꽃물결이 끝없이 흘러가는것이다.

안내원의 말은 이곳을 찾는 사람이 하루에도 십수만명이 넘는다는것이다.

그 사람들이면 평양 한복판에 있는 **《나라질 시작점》**에서부터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앞에까지 1미터 거리에 한명씩 세워도 열줄!

그 흐름은 얼마나 장엄한것인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는 마음이 대하의 흐름처럼 도도히 굽이치는 만경대!

그 물결을 따라 우리도 사립문으로 들어섰다.

어제날 농촌마을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짚이영을 덮은 수수한 초가집!

방안에는 으리으리한 이불장이 아니라 대갈뭇을 박은 농 짝이 있고 눈부신 전등이 아니라 기름 뱅 등잔대가 걸려있는 집.

헛간에는 모두 손으로 깎고 두들겨만든 농쟁기가 있으며 부엌에는 찬장이 아닌 덕대우에 그릇들이 놓여있는 집.

병사인 아들도 한두번만 와서 보는것이 아니건만 오늘은 더더욱 새로운 느낌과 숭엄한 생각을 불러내는지 자못 신중한 얼굴로 눈여겨본다.

마당가를 천천히 돌아가던 나는 쭈그러든 장독앞에 한 할머니가 오래도록 서있는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지금 생각하리라.

(우리도 예전에 쪼지게 못살았지만 우리 수령님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나서자라시였구나.)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집에서 애국과 혁명의 뜻을 함께 키우시고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의 수십만리로정을 헤쳐오시여 광복의 새 아침을 펼쳐주시지 않으셨던가.

그 빛나는 승리와 조국개선의 감격을 그대로 불러 일으키는 한장의 사진이 방안에 높이 모셔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스무해만에 만나신 할머니를 뜨거이 부여안으시는 승엄한 모습!

우리러볼수록 마음은 감격에 겨웁다.

《네가 기어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머니께서 장군님의 품에 얼굴 묻고 하염없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로방앞에 줄지어선 우리들의 가슴가슴에도 후덥게 젖어든다.

헤어진지 20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할머니이시였기에 나라가 해방되어서부터는 아침저녁 만경대 언덕길을 바라보곤하셨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도 그 마음 담아 키돋움하며 서있었다.

새 조국건설에 분망한 나날을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어간만 해도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오 전체 조선인민에게 개선인사를 하시고서야 비로소 저물녘에 고향집을 찾아오신것이다.

《너를 보니 한생에 쌓인 시름이 다 풀리는구나! ...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손다더냐!》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할머니의 말씀이시였다.

우리의 수령님께서는 한마디 대답도 없으시였다.

사람들이여!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을 떠나시여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삼촌, 동생을 다 잃으시면서도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삼천만을 구원하셨으니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우리 인민이 목청껏 부르는 만세 함성이 과연 그 대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그날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벌 구들을 매질한 방에 깔고 지내신 헛간의 명석과 밤새 불심지를 돈우시며 조선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신 옷간의 등산대를 깊은 생각속에 잠겨 살펴보며 사립문을 나셨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

이것은 해방된 조선인민의 빛나는 세력사의 시작이었으며 락원의 이 땅이 펼쳐지는 첫기슭이었다.

《1945년 10월 어느날, 나는 일본 도쿄에서 맥아더를 만날 일이 있다.

그때 이자는 안락의자에 몸을 잠그고 고볼통에 담배를 태우면서 초조한 눈길로 이런 말을 하였다.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입성하였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가 조선반도를 다 차지할것ियो. 그러나 일본제국을 녹여낸 그가 제주도까지 붉게 하는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봐서는 안되오. 많은 약소국가들이 그를 구세주처럼 바라보고있소. 아메리카 대통령인 후버가 벌써 오래전에 이에 대해서 말한 일이 있소.》

이것은 해방직후 일본과 남조선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한 인사가 남긴 글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 앞에서 미제의 5성장군 맥아더란놈이 초조와 불안, 위구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꼴이 눈앞에 보여온다.

그렇다. 아메리카가 벌벌 떨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느끼며 만경대고향집을 경건히 바라보았다.

초가집의 추너는 비록 낮아도 전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는 집이며 세계가 옷깃 여미고 들어서는 마음의 고향인것이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이 시작되었고 주체의 조국이 펼쳐졌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만경대, 혁명의 요람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오늘 여기에 와서 혁명전사된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초소로 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 말이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오늘 보고 느낀 그 모든것이 한가슴에 짝 차오르는지 병사의 자세를 바로 잡는 그의 눈길에 신념과 맹세의 빛이 어린다.

오각별 빛나는 군모의 채양을 바로잡고 바라보는 만경대!

빛나라 만경대여! 흐르는 세기우에 영원히 빛발치며 혁명의 집, 태양의 집으로 만대에 길이 빛나라!

주체사상탑시조

허수산

해불이여

해가 작열하는 낮에도
 해불은 타올라
 이 세상은 더 밝아진듯
 해가 진 밤에도
 봉화는 타올라
 이 세상엔 어둠이 없어진듯

해불이여!
 주체사상탑의 봉화여
 삶의 순간마다 너를 바라보면
 마음은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가는 앞길은 네 빛처럼 환해지여라

내 이른아침 하루일을 시작할 때
 네 불길을 바라보면
 삶을 참되게 살고싶은 욕망에 불타고
 내 돌아가는 길에 너를 바라보면
 더 깨끗한 량심을 가다듬게 되더라

어찌 나만이라
 저 이름없는 광산의 광부도
 너의 불빛 비치여
 천길 막장길이 어둡지 않고
 연연 천리방선
 순찰의 길 걷는 초병의 눈도
 너의 빛으로 밝아라

아, 탐구로 모대기는 책상우에
 네 불빛 환히 비치면
 숭고한 인간애의 리념이 불타올라
 과학자의 눈앞엔
 보이지 않던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네 불길 한번 바라보면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들도
 새로운 흥분으로 심장은 고동쳐
 한점의 불꽃으로 온 세상을 낳는
 그런 시상을 찾아줘게 되더라

곡절많은 길을 걷던 사람들
 너의 불빛 우러러
 인생말년에 새 삶의 길을 찾고
 한생 예투살렘 찾던 사람들
 너의 불길에서
 참된 인생의 영원함을 노래하거니

오, 해불이여
 너는 인류가 가는 앞길에
 빛과 희망을 주는 등대
 네 불빛 우러러 사람들
 더 아름다운 래일을 꿈꾸며
 참된 삶을 쫓아온다

더 밝게 억세게 타오르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네 빛에서 혁명과 투쟁의
 무한한 열정을 안게
 네 온기로 꽃들을 자래우고
 네 빛으로 아기들의 땀이 물들게

오, 해불이여 네가 비치
 낮과 밤의 계선이 없어지고
 이 세상은 더욱 밝아졌도다
 너는 이 땅에서 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의 빛발
 주체의 빛발이여라

불멸의 력사

흰구름 허리에 두르고
창공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이여!
얼마나 많은 사연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 불러내느냐
층층 수만의 화강석으로 쌓아올린 위대한 탑

어이 다 알리
탑을 찾는 끝없는 사람들의 물결
탑에 깃들어있는 간곡한 사연
수령님의 혁명위업
70 평생 그 하루하루 다 헤아려
탑을 쌓아올린 인민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라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불멸의 력사로 새겨안고
창공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이여!

위대한 력사의 나날들이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을 두고 꿈꾸어오던
그 모든 소원 꽃피워주시려고
혁명의 그 하루하루
투쟁의 세기로 간직하시며
우리 수령님 오늘에로, 오늘에로 오신 그 나날들!

인류가 처음 알고

력사가 처음 보는 나날들이었다
백두산기슭에서 주체의 봉화 높이 드시고
고난의 행군길을 걸어오시고
수천수만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나날들

아, 우리 인민이 그 길을 따라 걸어오고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이 걸어오고
지구위에 인민의 진정한 력사를 수놓아 온
누리에 빛나는 나날들이여
보통 시대의 수백년과 바꿀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찬란한 나날들이여

어찌 년대와 년대로 간직하라
인민은 먼먼 미래에까지 가셔도
수령님의 력사를 하루하루로 간직하며
영원한 충성의 길 걸으리라
그 하루하루에서 무궁한 투쟁의 세기를 찾으며
공산주의락원의 언덕으로 가고 가리라

주체사상탑이여!
수령님의 위대한 력사를
불멸의 력서마냥 새겨안은 탑이여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수령님의 빛나는 력사는
그 영광 차고 빛나는 나날로
인류와 시대 앞에 길이 빛나리라

탑은 노래한다

화창한 봄날
이 아버지와 함께
탑가를 거니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는 들리지 않느냐
탑이 울리는 장엄한 서사시의 읊조림

이 아버지는 듣는구나
탑이 울리는 장엄한 노래
쉽없이 타오르는 저 불길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가에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력사를
가장 훌륭한 서사시로 쓰는듯싶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보지 못하느냐
노을이 타는 저녁이면
저 푸른 하늘가에 그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화폭을

이 아버지는 보는구나
쉽없이 타오르는 저 불길은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주시는 새 생활을
가장 아름다운 색과 선으로
그리고 그리는듯싶어

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듣지 못하느냐
이 아버지는 듣는구나
탑이 울리는 훌륭한 노래
시대의 찬가, 주체의 장엄한 행진곡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후날 너의 성장과 함께 너는 알리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력사는
그대로 숭엄한 시와 노래
아름다운 화폭으로써만 노래할수 있는
그런 력사, 그런 한편 생이시라는것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빛나는 력사를 만대에 전하고싶은
만민의 념원의 한끝에 탑은 솟아있거니
우리 심장의 노래를 저 탑에 합치자
빛나는 력사를 대를 이어 노래부르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비둘기야 날아라

언제부터이냐 너희들이
이 강반에 새로이 나타난것은
이제는 여기가 깃을 내릴곳인듯
오늘도 탑가를 떠나지 못하고
날으는 비둘기들아

너희들도 그날의 감격을 못잊어서냐
위대한 탑의 제막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꽃보라인양 날아오를 때
그것은 주체사상의 위대성이 나래치는
인류의 더없는 경사였다

그날 봉화를 우러러
불새마냥 날아오르는 너희들을 보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던가
투쟁과 행복
삶과 투쟁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너희들의 날음을 보며
머리에 흰서리 내린 투사들은
투쟁으로 찾은 행복의 무게를 가슴에 안았고
우리의 행복한 아이들은
지구우에 더 많은 비둘기를 날릴
좋은 꿈을 꾸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은
진정한 삶과 행복이란
자주의 권리로 찾아야 함을 깨달았고
야자수풀막에 아이들을 두고 온 흑인투사는
자주독립의 총검으로 찾아줄
아이들의 창밖은 집을 그려보았다

아, 날고 날아라 비둘기들아
이제는 여기 탑에 깃을 내리라
그리고 탑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속삭이라
참된 삶과 행복이란
자주의 요람에 깃을 내리고 있다고

너희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나르는 새-
주체사상탑의 제막을 경축하던
영광의 그날 전하며
날고 날아라

바다건너
국경넘어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슴마다에
인류의 념원을 꽃피워주는
자주의 힘찬 투쟁의 노래를 불러라

영생의 기치

위대한 탑앞에
한 흑인투사 서있다
대리석판에 새겨진
자기의 이름앞에

심장에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인양
탑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부푸는 감격과 기쁨인양
분수는 하늘높이 솟구치는데

무가워드-
뚜렷이 빛나는 자기 이름
꿈인듯 다시 여겨보며
그대는 뜨거운 눈물 삼킨다

아, 어제날 그대는
노예였다
숨 막히는 사랑수수발 이랑에서
얼굴도 마음도 까맣게 태우던

그대의 이름은
찬비를 막아줄 한칸의 집이 없어
작은 문패에도 쓰지 못하던 이름
학교의 출석부에도
올라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대의 존엄과 삶은
길가의 돌맹이처럼 버림받던것
백인의 채찍이 등골을 물어뜯어도

한마디의 말도 할수 없었고
제 보습하나 가져보지 못한 삶이었다

허나 그대-
달빛 흘러 내리는 야자수숲속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빛발 안았을 때
그대의 두눈은 린팡마냥 빛나올랐고
연구소조에 이름을 올린 때로부터
자주독립의 총검 높이 들었나니

참된 생의 빛발을 안겨준
주체사상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
케이프산줄기를 오르내리며
찾고 찾은 귀중한 대리석
평양으로 보낼 때
그대의 환희는 얼마나 컸던가

아, 어제날 노예였던 그대
그대의 소박한 이름을
오늘은 자기 운명의 주인
주체의 전사로
위대한 탑이 새겨주었거니

흑인투사여!
그때와 같은 사람들을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며
탑은 솟아있다
지구우에 자주의 삶을 불러오는
위대한 영생의 기치로!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외 1편

홍현양

나도 몰라라
어찌하여 내 마음 이리도
못견디게 끌리어드는지
조국땅 그 어디를 가보았어도
예보다 정드는곳 알지 못해라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기적소리에도
갈탄이 타는 야릇한 냄새에도
탄부들의 후더운 숨결이 반겨오는 땅

여기에
천길 막장
수령님을 받드는
제급의 전초선이 있고

여기에
그 누구도 보지 않는곳에
낮이나 밤이나 별들이 빛나고있어라

석수가 떨어지는 로반우에서
물길을 짜는 배수공의 안전모우에서
그 별은 말없이 빛나고
석탄이 흐르는 벨트콘베아
운전공의 빨간 머리수건우에도
그 별은 사랑인듯 눈부시여라

아, 갱도길을 걸으면
불밝은 창가의 노래보다
문득 들려오는
석심한 굴진공의 노래가락이
어찌하여 세차게 가슴을 치는것인가

저탄장에 쏟아지는
석탄의 끝없는 폭포가
조국에 바치는 탄부의 노래임을
못건디게 깨우쳐주는 탄전이어

이렇듯 속깊은 사랑을 안고
이렇듯 말못할 뜨거움을 안고
땅우에 수천만 저 창가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불빛을 주고있구나
탄부들은, 당의 전사들은!

아, 한생을 수수천척 막장에 두고
생의 불꽃인 석탄을 충성으로 안아올리는
탄부들이 사는 땅이여서
갈탄이 타는 야릇한 냄새도
조국의 향기로 새겨지는게 아닌가!

예보다 더 높이
예보다 더 깊이
삶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고
삶의 뿌리를 내리여주는
그러한 땅
그러한곳이 또 어데 있으랴

탄전이어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너의 티없는 저 아이들처럼
탄부의 모습을 닮으리라
막장의 석심한 굴진공의 노래처럼
내 마음
당에 바치는
진정을 담으리라!

그대들이 캐어 내는것은

청년돌격대원들이여
막장길은 멀지 않아도
그대들이 열어온 진격로는
청년전위들이 걸어온 길

그대들의 눈빛
그대들의 심장의 붉은 피는
한별을 우러러 높뛰던
청년전위들의 그 충성이 비낀 하늘

병사시절에 날리던 근위기발을
그대들은 천길막장에

청년전위의 기발로
《차광수청년돌격대》의 기발로 날리어라

아! 그대들이 캐여내는 검은 금은
격전의 마지막 언덕에서
차광수동지가 그렇게도 안고 싶어하던
조국의 한줌 흙이 아니던가!

그 한줌의 흙이
오늘은 그대들의 심장속에서
수령님을 따르고 당을 받드는
조국의 열이 되고 불길이 되었어라!

시련을 뚫고

한상운

(전호에서 계속)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겠소, 일은 나보다두 형님한테 생긴것만 갈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고기를 잡아주던 우리 동무들을 대할 낯이 없게 됐군요.》

막내이의 절절한 추궁에 말을 못하고 앉아있는 룡호.

《이름없던 노동자를 상으로 내세워주시는 수령님의 그 은덕을 형님 혼자만 받았다고 생각하시우?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동무가 한사람두 없지요. 그래서 모두 신바람이 나구 우릴 대신 해서 일 잘해달라구 저마다 고길 잡아준건데...》

막내이의 서글픈 얼굴.

생각깊이 앉아있는 룡호.

《우리가 다 속았나봐요. 난 옛날의 그 형님인줄만 알구 평양으로 올라오면 의례히 발걸음이 이 집으로 돌아서곤했습니다. 형님, 그전에 홍부상이 저수지의 물을 뿜자구 했을 때 일이 생각나시우?

나라의 전기야 어떻게 멈추겠는가 라구 하면서 그 위험한 수문철관속으로 목숨을 내걸구 뛰어들던 그때 일을 말이요. 난 그러던 형님을 차마 잊지 못해 찾아오곤했는데...》

더 생각 깊어지는 룡호.

《형님, 지나가는 말이라두...》

밥상을 차리던 순녀도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우.》

서로 말 못하고 앉아있는 세사람.

룡호는 자책에 잠겨 말없이 앉아만 있다.

룡호의 집 마당

묵묵히 마당에 서있는 룡호.

그의 뇌리에 지난 노동자 시절의 회상이 생생하게 되살아 온다.

막내이의 《형님!-》하는 웨침소리와 함께 수문 공사때 있었던 장면이 나타난다.

발전소 수문.

사품치는 물.

수문안

바줄을 타고 들어가는 룡호.

역수로 퍼붓는 물속에 들어간 룡호.

수문밖

막내이, 순녀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온다.

《룡호형님이 수문철관속에 들어갔소!》 하고 웨치는 막내이.

《아니 거기가 어디라구?》

멈춰서서 가슴을 조이며 바라보는 노동자들.

쏟아져내리는 물사태, 그속에서 물참봉이 되어 힘차게 메질하는 룡호.

관우에서 소리치는 막내이.

《형님!... 형님!》

쏟아지는 물과 싸우며 역세게 메질해 나가는 룡호.

룡호의 집 마당

《형님-》 하는 막내이의 소리와 함께 룡호는 회상에서 깨어난다.

룡호의 집안

누워있는 막내이. 그는 복도에서 전화받는 순녀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네, 네?... 수령님께서 찾으신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룡호의 집 마당

순녀가 상의를 가지고 나오면서 룡호에게 다급히 말한다.

《여보, 수령님께서 부르신대요.》

놀라며 굳어지는 룡호, 그는 순녀가 주는 상의를 입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따라들어가는 순녀.

룡호의 집 복도

급히 들어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며 전화를 받는 룡호. 그옆에 서있는 순녀.

《최룡호 말씀받습니다.》

이윽고 수화기에는 자애에 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울린다.

《지금 뭘하구있소?》

남편이 전화받는것을 뜨겁게 바라보던 순녀는 조용히 다른 방으로 물러간다.

정중히 말씀올리는 룡호.

《예, 죄를 짓구 자기를 반성하고있습니다.》

《야밤삼경에 자기반성이라? 무슨 일루?》

옆방

옷을 바로 입으며 듣는 막내이, 여기에 들리는 룡호의 목소리.

《예, 일이 힘들어 못해 먹겠다구 하다가... 로동자 시절의 친구한테서 되게 비판을 받았습시다. 다시는 안그려겠습니다.》

《하하... 동문 자기비판을 해두 시원시원해서 내 마음에 드오...》

복도
끓어오르는 걱정을 삼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화를 받고있는 룡호.

《그렇지 않아두 동무를 상으루 임명한후 힘들어 한다가에 찾은거요.》

《고맙습니다. 수령님!》

《동무에게 그 드센 주먹이 있는데 난관을 두드려 부실 생각이 없던가?》

다른 방

조용히 문가에 서있는 순녀.

여기에 들리는 룡호의 목소리.

《조립식건설을 처음 하자니 시비가 많습니다.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곤란하다느니 앓은 부재로 짓다가 무너지면 죽는다느니... 별의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고 나시여 힘을 주신다.

《하하... 룡호동무, 일없소...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구 시비한줄 아우, 저걸 탔다가 구름우에서 떨어지면 뼈도 못추린다구 그랬소. 하하... 무엇이냐 새것이 나올 때는 낡은것이 저항하는 법이요. 내밀기요.》

《수령님! 수령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다 후련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으시고 말씀하신다.

《힘이야 들겠지, 왜 힘들지 않겠소. 하지만 동무는 로동계급속에서 나온 상이관말이요. 언젠가 발전소 언제우를 거닐면서 말한게 있지, 생각나오?》

《예, 저 호수를 보라. 얼마나 장쾌한가. 일이 힘들 때는 이렇게 높은곳에 올라오면 탁 트이는 법이라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소. 동무가 로동계급답게 일할수 있다구 생각해서 힘든 자리를 맡겼던거요. 동문 누구보다 두 군중을 깊이 믿구 발동시켜서 당정책을 완강하게 관철할수 있다구말이요.》

《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판 받기에 땀뻘졌는데 꼭 쉬오.》

《예.》

수화기를 놓고 조용히 발길을 옮겨 복도로 걸어가는 룡호와 뒤따라가는 순녀.

룡호는 걸음을 멈추고 방쪽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막녕이가 문을 열고 눈물이 그렇게서 룡호를 바라보고있는것이다.

룡호는 막녕이의 손을 힘있게 잡는다.

목이 메어 부르짖는 막녕이.

《형님!》

승업한 격정에 휩싸여 밖으로 나가는 룡호를 바라주는 막녕이와 순녀.

노래가 울린다.

별들도 잠들고 밤은 깊어도
은혜론 해빛은 나를 비치네
깊어가는 이 밤 그 빛발에 싸여
이내 마음 뜨거워라

반토굴집마을길로 생각에 잠겨 걸어가는 룡호.
걸어가던 룡호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가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창가에 비치는 그림자.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달랜다.

절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룡호.

건설성청사앞

청사앞에 다가오는 룡호.

순녀가 작업복과 모자를 가지고 따라온다. 룡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청사로 들어간다.

그자리에 남은 순녀는 청사쪽을 오래도록 바라 본다.

룡호의 방에 불이 켜진다.

밝은 얼굴로 후련히 바라보다 돌아서가는 순녀.

노래가 계속 흐른다.

이 세상 아무도 모르던 이름
하늘의 별처럼 빛내주셨네
은혜로운 품이 나를 안아키워
나의 삶은 꽃피웠네
그 사랑을 지켜 그 믿음을 지켜
나의 한생 바쳐가리

상실

옷걸이에 모자와 작업복을 걸고 책상에 가서 앉은 룡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꺼내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펼친다.

벽시계가 밤 1시를 가리키는데 흥분한 룡호는 방안을 거닐고있다.

밤, 벽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있다.

부재공장

활기 띤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으로 들어서는 룡호에게 기사장이며 로동자들이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

《상동지 나오셨습니까?》

《작업을 계속하고있구만.》

《오늘아침 상동지가 회의에서 강조하셨는데 어거셔야 되겠습니까.》

《동무들이 그렇게 하길 잘했소. 방금 수령님께서 전화로 교시가 계셨는데 일없으니 계속 내밀라구 하셨소.》

《수령님께서요?!》

놀라는 노동자들.

《그러시면서 곤란할 때일수록 노동자동무들을 같이 믿구 함께 의논해서 풀라구 하셨소.》

《야! 상동지,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책에 잠긴 한 노동자의 대답이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기사장.

《이 교시를 받고보니 필경 사고난 보고를 받으시구 맥을 놓을가봐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주신것 같소... 그러니 잠이 올게 뭐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빨리 덜어드릴가 하구 생각하다가 이렇게 찾아왔소.》

룡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기사장은 한쪽으로 자리를 피한다.

그것을 바라보던 룡호는 그를 뒤따른다.

부재가 쌓여있는 구석에 호젓이 앉아있는 기사장.

룡호가 그 옆에 와 앉으며 측은하게 묻는다.

《웬일이요?》

《상동지! 제가 죽일놈입니다.... 전 어제 사고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문제로 된 부재는 제가 표준 조작법을 여기구 건조시간을 단축해서 만든 그 부재였습니다.》

《뭣이?》

룡호는 화닥닥 놀라며 기사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펴본다.

《그런데 설계실장동무가 책임지게 되었다더군요. 저는 겁이 나서 말을 못하구... 내내 혼자서 모대겠습니다. 제재를 받아야 할놈은 접니다.》

《그럼 흥부상이 다그어대던 그때 만든 부재가 아니요?》

《요구성을 높인거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술을 책임진 제 잘못입니다.》

룡호는 숙연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아니요. 나부터 책임이 있소. 제일 큰 책임이... 사업을 이렇게 수습해주니 고맙소. 고맙소》 하며 기사장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부재공장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노동자들의 락천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과 마주앉은 룡호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여기에 어울린다.

노동자 1이 신명이 난듯 룡호에게 말한다.

《하하... 상동지! 이거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자 노동자 2가 룡호에게 묻는다.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가요?》

룡호는 믿음어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저 마음껏!》

노동자 2가 제집작으로 묻는다.

《한 두어배요?》

룡호는 가볍게 머리를 젓는다.

《아니...》

노동자 1이 호기심이 찬 눈길로 룡호를 바라보며 다그쳐 묻는다.

《아니 그럼 서너배요?》

룡호는 힘을 주어 말한다.

《아니 열배, 스무배도 좋소!》

노동자들이 입을 찹 벌린다.

《1만 7천세대를 단꺼번에 착공하자니 무슨 재간을 피워야지 보통방법으로는 안되겠거던요.》

늙은 노동자가 의젓하게 의견을 말한다.

《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구멍탄을 빚어서 해빛에 말리우구있지 않는가요? 찹 널어 놓구...》

그 옆에 앉아있던 기사장이 두눈을 반짝이며 신바람이 나서 덧붙인다.

《바루 이 아바이가 제기하는건 넓은 공지만 있으면 야의부재공장을 만들어놓구 해빛으루 물을 끼얹으면서 양생하자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만 세대분의 부재를 생산해낼수 있습니다.》

무릎을 치며 일어서는 룡호.

《동문 참!》

놀라서 일어서는 기사장.

《예? 안되겠으면 좋습니다. 우리 노동자동무들은 수령님께서 블록이 별게 아니니 신비주의를 쓰지 말구 수공업적인 방법두 생각해보라구 가르쳐 주셨기에 의논들 한겁니다.》

기사장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려주는 룡호.

《바루 그거요. 풀렸소. 풀렸소! 하하... 아바이, 고맙습니다.》

기뻐서 술렁거리는 노동자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룡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다.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인가! ... 그런데 실장 그 사람은?...》

설계실장의 집 복도

설계실장의 안해가 방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후퇴할 때 월남한 처남이 지금 뭘하구있는지 아오?》

그 말을 들은 실장의 안해는 불안과 번민으로 얼굴이 이그러진다.

방안

흥부상이 실장을 구슬리고있다.

《어떤 큰 간부가 정원설계를 요구하고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소? 저 절간에 돌탑이랑 석등을 옮겨다가 고전미가 나게말이야.》

실장은 분개해서 내쫓는다.

《아니 나더러 개인집 마당설계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두 문화유물까지 손을 대라? 난 그건 못하겠습니니다.》

《응? 아니 어떻게하나 난 동무를 파멸에서 구출해주려구 애써주구있는데 그것두 모르구.》

홍부상은 앵돌아져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실장은 헤어날길이 없는 절망속에 빠진다.

복도

복도로 나오던 홍부상이 실장 저에게 령정하게 인사하고 지나간다.

방안

실장의 안해가 소리없이 들어와 고민하는 남편을 이윽히 바라본다.

실장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는듯 전축을 돌린다.

그러자 처가 인차 다가가 꺼버린다.

처를 바라보는 실장의 그늘진 얼굴.

《여보, 전 아무래두 친정으로 돌아갈가 해요.》

《뭐라구?》

《제가 있으면 월남한 제 동생때문에 당신이 무사치 못할것만 같애...》

실장은 그 말에 울분을 터뜨리며 쏘아붙인다.

《듣기 싫소! 그래 당신이 날 생각한다는게 그게 다요?》

피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안해.

이때 문을 열고 들어서던 룡호가 실장을 질책한다.

《실장동무!》

그 소리에 머리를 번쩍 드는 실장.

《상동지!》

룡호를 본 실장 처가 급히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천천히 의자에 다가가 앉는 룡호.

《앉소!》

실장은 그자리에 앉으며 말없이 룡호의 얼굴만 쳐다본다.

룡호는 비판서를 원탁우에 놓으며 실장에게 심중히 말한다.

《이 너절한걸 제정신으루 썼소?》

실장은 룡호의 말에 위압을 느끼는듯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수그린다.

《사람이 왜 그렇게 신념이 없소. 응? 부재공장 기사장은 사고의 원인을 찾구 법앞에 나설 사람은 동무가 아니라 자기라구 했소.》

룡호의 뜻하지 않은 말에 놀라는 실장.

《그런데 동문 좋은 설계를 해놓구두 어찌면 그렇게 쉽게 췌버릴수 있는가말이요. 사람이 지조가 없이 100년을 산들 무슨 사는 값이 있겠소. 우린 이걸 동무가 진심으루 썼다구 믿구싶지 않소! 자 받소!》 하며 비판서를 그에게 준다.

받지 못하고 굳어져있는 실장.

《이걸 동무가 제손으로 처리하오.》

그것을 받아 쥐고 눈물을 흘리며 찢고 또 찢는 실장.

《상동지!》

옆방에서 긴장하여 듣고있는 실장의 안해.

《동문 아직도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구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잘 모르구있소. 조립식을 시작할 때 난 동무를 같이 일할수 없는 사람이라구 수령님께 말씀드렸다가 엄한 비판을 받았소.》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을 나라가 아끼고 키워오는 귀중한 밑천이라고 하시면서 전쟁때 애기를 해주셨소.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자구 전쟁의 불을 지른 소식을 듣자 동무들은 모두 공부를 걸어 치우구 군대를 지원해서 조국으루 달려왔다면서... 그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전쟁은 우리가 할테니 동무들은 돌아가 공부를 잘하고 전쟁이 승리한 날 돌아와서 조국건설을 담당하라구 겨우 설복 해 보냈다구 하시면서...》

회오와 자책속에 잠겨 흐느끼는 실장.

룡호는 자신도 깊은 감회에 젖어들며 말을 계속한다.

《<그 동무들이 교양을 잘못받아 그렇지 본심이야 그렇겠는가. 절대루 그럴수 없다. 난 그 동무들이 조국건설에서 한몫 든듯히 하리라구 민소...> 이렇게 말씀하셨소.》

실장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부르짖는다.

《수령님!》

옆방에서 그 말을 듣는 실장의 안해도 눈물속에서 모대긴다.

《동무의 처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소. 그러나 동무는 당이 자기를 믿어 준다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오. 실장동무, 그러기에 자신의 운명을 오로지 당에만 의탁하구 그 어떤 역경속에서 두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길만을 따라가야 하오.》

눈물속에서 그 말을 듣는 실장의 얼굴에 광명을 찾은 인간의 밝은 기색이 퍼져간다.

활짝 핀 꽃이 눈앞에 가득히 다가온다.

노을에 반사되어 출렁이는 대동강물결.

불타는 저녁노을.

대추섬

승용차가 몇대 모여섰다. 그 옆에 공지를 돌아보는 룡호와 홍부상, 건설국장, 기사장과 간부들.

자갈무지에 털썩 앉아 돌을 추어올리며 소탈하게 말하는 룡호.

《기사장동무, 이만한 공지면 되겠소?》

《예, 이만한 공지면 능히 몇만세대분의 부 재래두 생산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을 크게 벌려봅시다. 국장동무, 전기성에 뛰어야겠소.》

건설국장은 《예?》 하며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몰라 룡호를 쳐다본다.

《여기다 전기를 끌어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제야 알았다고 대답하는 건설국장에게 룡호는 임무를 준다.

《잘 응하지 않으면 내각결정 17호를 내대시오. 내각결정 17호야말로 우리가 타고 달려야 할 룡만데 우린 지금까지 그 룡마를 탈줄 몰랐거든.》

《자,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건설국장은 신이 나서 차를 타고 사라진다.

그러자 룡호는 또 자재처장에게 임무를 준다.

《자재처장동무, 자동차는 동무가 말소.》

《그런데 응해줄가요?》

《그렇게 동무에게 임무를 주는거요. 자동차가 나타나기전엔 동무두 성에 나타나지 마오.》

자재처장도 《갔다오겠습니다.》 하고 사라진다.

룡호는 마지막으로 홍부상에게 임무를 준다.

《기증기문제 부상동무가 맡아줘야겠수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이제 남은건 기증기문제니만치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기계공업성에 계속 독촉을 하고있는데 급한 지표 때문에 좀 참아달라는군요.》

《그래요?》

《상동지! 제가 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예.》

룡호는 홍부상의 말에 대하여 의아했으나 믿어 버린다.

대추섬

프랑카드가 나뭇간다.

부채생산으로 들끓는 전투장이다.

프랑카드와 오색기발, 구호판들, 따찌까부대, 등짐부대들이 결전장을 방불케 하며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모래와 자갈을 싣고 오는 자동차, 마차들, 그속을 누비며 설계실장이 도면말이를 옆에 끼고 걸어 간다.

그는 들끓는 전투장을 바라보며 흥에 겨워 어깨를 펴고 걸어간다.

부채생산의 벽찬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가정부인들도 씩씩하게 이 투쟁에 참가했다.

이동매대도 흥성거린다.

휴식터

점심을 먹기 위하여 모여앉은 룡호, 설계실장, 기사장.

건설국장이 다가오며 묻는다.

《어디 있소?》

기사장이 대답한다.

《여기요! 여기 여기...》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하는 소리를 듣고야 건설국장은 룡호를 알아보았다.

《아니, 난 누군가 했구만요. 상동지, 전기가 겨우 옵니다.》

《온다? 수고했소. 여기 와 이걸 좀...》 하며 룡호는 기쁜김에 앞에 차려놓은 사과를 건설국장에게 권한다.

설계실장이 설계도면을 펼치며 말한다..

《전 집단의 힘을 몰랐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1만 7천세대가 아니라 2만세대의 예비를 찾아냈습니다.》

깜짝 놀라는 룡호.

《아니 2만세대라니? 정말이요?!》

건설국장도 놀란다.

기사장도 놀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

《제가 좀더 일찌기 정신을 차렸던들...》 하고 설계실장은 말끝을 맺지 못한다.

룡호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한다.

《이사람아, 2만세대라니? ... 수령님께 보고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응?》

《로동자동무들의 검토를 거쳐야지요.》

《자 수고했소. 일할 맛이 있구만!》

기사장도 기뻐서 말한다.

《부채는 넘려마십시오.》

건설국장은 너무도 기뻐서 웨치듯 말한다.

《이거 정말 신바람이 나는군요! 7천세대분에서 2만세대가 나오다니요. 이젠 세상에 없는 기적입니다.》

여기에 들려오는 음악소리.

점심이 끝나고 강변에서는 춤판이 벌여졌다. 가정부인들도 함께 어울려서 흥겹게 춤을 춘다.

홍부상실

창문을 열고 쌍안경으로 밖을 내다보는 홍부상.

조립식건설 일떠서는 평양거리가 보인다.

활기찬 음악과 건설의 소음.

쌍안경을 보며 양칼지게 중얼거리는 홍부상.

《저놈의 조립식이 언제 가야 허물어지겠는지.》

그는 장쾌한 음악소리가 더욱 커지자 기분이 상해서 창문을 꽂고 닫는다. 그 서슬에 창문유리가 깨져나간다.

그는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 책상위의 신문을 본다.

《16분에 1세대!》 라고 쓴 신문 제목이 보인다.

화가 난 그는 신문을 집어던진다.

건설장

명희가 미장기계의 노즈루를 들고 설명한다. 그 앞에 서있는 로동자들이 듣고있다.

《이제는 부채두 팽광 나오지, 조립속도두 빨라졌는데 손미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수 없어요. 한 세대당 미장 로력을 10공수나 들이구있는데 이 기계루

하면 한사람이 하루품만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1인 1세대를 미장하는 운동을 일으키자는거예요.»

로동자 1이 놀라와 말한다.

《뭐요? 한사람이 하루에 한 세대씩 제킨다?》

설명을 끝낸 명희가 《그럼 시작합시다.》라고 하자 작업이 시작된다.

《압축기! 바람 주세요.》 하며 아빠트밀에 대고 순서가 소리친다.

압축기공이 스위치를 넣자 돌아가는 압축기. 그러나 노즈루에서는 몰탈이 맥없이 짙끔짙끔 흘러나온다.

명희가 당황하여 밀에 대고 소리친다.

《압을 더 올려주세요!》

밀에서 소리치는 압축기공.

《다 올렸어요!》

놀라는 로동자들.

명희속이 타서 노즈루를 바라본다.

노즈루에서 맥없이 나오는 몰탈.

4건설사업소 지배인실

지배인이 돌아서며 명희에게 말한다.

《뭐? 정신있소! 지금 그렇게 성능이 높은 압축기가 어데 있다구 그래! 처녀가 총각 바람은 나두 기계 바람이 닳다는 말은 듣다처음이다.》

명희 안타까와하며 말한다.

《지배인동지! 우리라구 만날 거부기걸음만 하겠습니까?》

《야, 난 천리마를 타두 떨어져서 엉덩이를 깨지 말구 타지는거다. 시험이구 뭐구 다시는 못해!》

이때 한쪽구석에 서있던 홍부상이 나서며 말한다.

《됐소, 됐소. 천리마야 타야지. 그런데 실패했으니 어떻게겠나?》

《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나가는 명희를 아니꼽게 보며 지배인은 화가 나서 샷대질을 한다.

《뭐? 아니 저게 저게...》

홍부상이 지배인에게 은근히 말한다.

《로동자를 그렇게 다루면 되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우에선 저 기계를 믿구 미장공을 주지 않겠대... 처녀가 고집은...》

《그럼 반장 자리에서 떼든가 해야지.》

《아니 떼다니요?》

《미장공로력을 더 받지 않구 그 놀음을 계속한다면 좋소.》

《미장공이 없이야 어떻게 일합니까?》

《아 걱정 말라구!》

건설현장

다 퇴근한 현장에서 명희가 혼자서 미장기계를 만지고있는데 지배인이 나타난다.

《아니 가라는 도서실엔 안가구 계속 고집이야?》

《도서실엔 안가겠습니다.》

《아니 도서실이 좀 좋아? 조용하구 문화적이구.》

《싫습니다.》

《싫습니다? ... 아니 우에선 판테루 보내라는걸 그래두 생각해주는데...》

그 말에 놀라서 굳어지는 명희.

《정 싫으면 마음대로 하란말이야. 갈데두 가란 말이야.》

명희는 지배인의 말에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상실

룡호가 4건설사업소 지배인을 불러다 놓고 격분하여 말한다.

《상부의 지시라는데 누구요? 나요? 누구요?》

지배인은 주저주저하며 대답한다.

《저, 홍부상동무가... 명희가 미장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저의 말을 듣구 그럴바엔 떼든가 하라구 하기에...》

《동무, 청맹과니가 뭔지 아오?》

놀라서 룡호를 쳐다보는 지배인.

《명희동무를 못찾아오면 명희동무대신 동무를 미장공으로 등용하겠소!》

《예?》

지배인을 추궁하고나서 생각에 잠기는 룡호.

그의 마음의 목소리 《홍부상?...》

어느 간이역대합실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 명희의 외로운 모습, 어깨에는 위생가방과 배낭이 매여있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도서실이 좀좋아, 조용하구 문화적이구. 우에선 판테루 보내라는걸 그래두 생각해주는데 정 싫으면 갈데두 가란말이야!》

한숨 쉬고 일어나 홈으로 나가는 명희.

건설장

압축기앞에 모여서 토론하는 룡호와 4건설사업소 지배인, 로동자들.

《글쎄 이걸루는 힘이 약해서 5층까지 올려줄수 없습니다.》라고 지배인이 우는 소리를 한다.

《예, 큰거루 교체해야지 안되겠습니까.》 하고 로동자 1도 여기에 맞장구를 친다.

그러나 룡호는 압축기를 들여다보면서 궁리하다가 로동자들에게 묻는다.

《가만있소. 이놈을 저 옥상에다 올려다놓구 내려쪼면 어떻소?》

《옥상에요?!...》 하는 지배인.

룡호는 자기 생각에 흥분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될수 있소, 틀림없소, 해보지요.》

《예, 합시다.》 로동자들이 대답한다.

《자, 지배인동무두 어서!》하며 룡호는 지배인에게 재촉한다.

역홀

기차가 역구내를 벗어나 멀리 사라진다.
그대로 서있는 명희, 차마 그대로 떠나지 못하는 명희였다. 그는 우두커니 서있다가 밤길을 돌린다.

어떤 병원앞

명희를 찾아 헤매는 순녀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선다.

어떤 건설장

여기로 걸어오던 명희가 순녀를 발견하고 그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진다.

생각에 묻혀 걸어오던 순녀가 돌아서있는 명희를 발견하고 흠칠 놀라 소리친다.

《명희!》

순녀는 달려가서 명희를 껴안는다.

《명희동무!》

《언니!》

《어딜 갔었어? 갈데두 없으면서...》

《원산에 가려 다 못갔어요.》

《안돼, 가자구!》

《싫어요. 그 지배인한테는 안가겠어요.》

《그 지배인이 아니라 우리 광혁이 아버지가 명희동무를 꼭 찾아오래.》

《네? 광혁이 아버지라니요?》

《내 말 실수를 했나. 명희동무가 만날 상동지 상동지 하는 그이말이야...》

《네? ... 아니 그럼 언닌?! 야 정말 언니!》

《명희동무! 자!》

명희는 마음이 돌아서 결심을 한다.

《가자요! 언니, 그럼 난 먼저 갈래요!》

순녀가 그의 배낭과 위생가방을 벗긴다.

《어서!》

달려오던 명희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건설장

바줄을 메고 힘있게 끌어올리는 룡호.

그의 어깨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바라보는 명희의 눈에 뜨거운 이슬이 맺힌다. 그는 더질듯한 오열을 삼키고 달려가서 압축기에 어깨를 대고 밀기 시작한다.

명희를 발견한 룡호의 눈길에 빛난다.

룡호의 눈길을 피하며 흐느끼는 명희.

《근위3사동무, 그럴수 있는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먹이는 명희.

옥상

지배인이 힘에 겨운 작업을 하고 퍼더버리고 앉았다.

룡호가 바줄을 메고 올라와 지배인에게로 다가 온다.

《여보, 지배인동무 일어나오.》

《전 완전히...》 하고 간신히 대답한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순녀.

룡호와 지배인이 앉아있는곳에 오더니 보자기를 풀어헤치며 지짐을 대접한다.

《수고하십니다. 점심들 두 못하셨는데 이거 요기나 하세요.》

《여보, 그저 참 잘했어. 풀어놓소. 자, 어서 드우, 들라니까.》

지배인은 그제야 순녀가 룡호의 처라는것을 알아차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예...》

룡호가 지배인에게 계속 권한다.

노즈루시험장

시험준비를 다그치는 명희와 순녀.

옥상

《자, 저 시험작업을 동무가 측정하오. 몇시요?》
하는 룡호의 말에 시계를 보던 지배인이 놀란다.

《아니 태압이 풀렸나? 이거...》

지배인에게 자기 시계를 꺼내주며 《맞추우!》라고 하는 룡호.

뗏어있는 시계.

지배인한테서 시계를 도로 받으며 작업장에 대고 소리치는 룡호.

《명희동무! 그럼 시작해봅시다.》

《예!》라고 힘있게 대답하는 명희.

노즈루시험장

준비작업을 다그쳐가는 작업반원들.

노즈루를 힘있게 틀어쥔 명희가 말한다.

《시작합시다.》

《해보자요.》 순녀가 대답한다.

돌아가는 압축기.

힘있게 미장작업을 해나가는 명희와 작업반원들.

노즈루를 힘있게 틀어쥔 명희.

명랑한 웃음속에서 계속 기계미장을 다그쳐 나가는 명희와 작업반원들.

긴장하여 시계로 측정하는 지배인.

돌아가는 시계바늘.

물탈을 힘있게 내뿜는 노즈루.

자기 잘못을 뉘우치듯 명희를 바라보는 지배인.

《성공이에요!》하고 기쁨에 넘쳐 소리치며 달리는 명희.

지평선위에 붉은 아침해가 장엄하게 떠오른다.

옥상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반기는 명희와 작업반원들.

해살을 받은 대동강물결이 역광에 반짝인다.

상실

룡호와 마주앉아있는 명희.

창문쪽에 지배인도 앉아있다.

《명희동무, 동문 전쟁때에 두 근위병이었지만 오늘두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근위병이 되어야하오.》

《알았습니다.》

명희는 석연한 기분으로 쾌활하게 대답한다.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 안됐소. 앞으로 다시는 자기의 혁명초소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자책감에 사로잡혀 앉아있는 지배인이 명희를 흘깃 본다.

명희도 지배인의 눈치를 본다.

《지배인동무두 이제는 잘 도와줄게요. 그럼 돌아가보우.》

명희는 《돌아가겠습니다.》하며 나간다.

《예.》

명희가 나가는쪽을 바라보던 지배인이 룡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동지, 내가 명희동무에게 너무했나봅니다.》

《지배인동무두 그걸 느꼈단말이지. 앓소, 앓소. 말이 앓으니 말이지 명희동무를 보오. 조국이 통일되면 고향에 돌아가 집없는 사람들에게 저런 훌륭한 집들을 지어주겠다는 동무가 아니요. 그런데 처녀의 그 간절한 심정두 모르구 쫓아버리다니. 그게 사람을 짓밟는거지 뭐요? 알아보니 동무두 호강하구 자란 사람은 아닌데 왜 그 지경이 됐소 응? 동무나 나나 당의 신임을 떠나서 무슨 존재있는 사람들이요. 개별적간부의 얼굴만 쳐다 보구 비위나 맞추면서 응?》

비굴하게 살다간 자기두 모르게 당을 배반하는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버릴수 있소.》

지배인은 새삼스럽게 자기 과오를 깊이 느끼며 얼어붙는다.

룡호는 지배인을 쳐다보며 말한다.

《아픈 소리를 해서 안됐소. 혹시 내가 동무를 잘못 봤다구 생각되는지? ...》

지배인은 룡호의 말을 수긍하며 말한다.

《아닙니다. 정통을 찢어졌습니다. 뼈가 저리도록 아프지만 웬일인지 귀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슴두 후련하구요.》

이때 전화가 온다.

수화기를 드는 룡호.

《최룡호입니다. 예?! 수령님께서 지난밤 새로 건설된 청년거리를 돌아보셨다구요? 예! 우리 인민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짓도록 하라는 교시를 주셨다구요? 알았습니다. 부관동무! 곧 나가 보겠습니다.》

흙모의 정에 휩싸인 룡호의 격동된 얼굴.

새로 일떠선 아파트앞

여러대의 승용차가 서있다.

아파트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룡호, 건설국장, 지배인들, 설계실장과 홍부상.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감격이 아직도 생생히 안겨오는듯 감회깊이 말한다.

《수령님께서 이 늙은것과 이 자리에서 허물없이 마주앉아주셨어요. 그러시구 이 늙은것의 손을 잡아주시구 <할머니, 집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라구 물으시더군요...》

의자에 자리를 권하는 룡호.

《할머니, 여기 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요. 수령님, 조금두 넘려 마십시오. 난생처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듣고있는 룡호를 비롯한 일군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할머니가 좋다면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온돌방이 그림자 있습니까? 본래 조선사람은 조상때부터 아래목에서 등을 뜨뜻이 지져야 몸이 거뜨해지는 법이지요.> 그러시길 앉으시겠어요.》

《그래서요?》 룡호가 묻는다.

감격하여 듣고있는 가족들.

《수령님, 그런것까지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라구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이 집두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글쎄 어쩌면 이렇게까지두 속속들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겠어요.》

자책에 잠긴 설계실장과 지배인.

그들의 앞에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는 빼치까가 우뚝 서있는것이다.

룡호가 《잘 알았습니다. 꼭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승용차안

사색에 잠긴 룡호.

그의 마음의 소리가 울린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충복이 되라구 하셨는데 난 언제면 그런 일군이 되겠는지...》

대동강반

저녁해빛을 받아 대동강의 물결은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일떠서는 평양이 바라보이는 대동강.

강변에 서있는 설계실장.

그앞에 왔다갔다하는 룡호.

그들이 짓는 충성의 자기 충화가 절절하게 울린다.

《실장동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우리 인민들에게 온돌을 놓아줄 생각은 못하구 빼치까를 놓았소. 수령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시면 우린 열을 헤아리는 일군이 되어야 한단말이요.》

《난 내자신이 온돌방에서 나서 온돌방에서 자랐지만 너무나도 오래동안 조선사람의 났을 잃어버리구 살았기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저녁노을이 활짝 퍼지면서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인다.

상실

룡호는 지휘성원들을 모아 놓고 자기의 결심을 말한다.

《내 결심을 말하겠소. 설게도 다시 시작하구 빼치까두 온돌루 뜯어고치구 2만세대를 새로운 설게로 완성합시다.》

그앞에 앉아있는 설계실장, 홍부상, 4건설사업소 지배인, 간부들.

홍부상이 교만하게 도전하여 나선다.

《그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뭐요?》

《고치더라도 당장 급한 2만세대야 어떻게...》

《해야 하오. 잘못된걸 알면서 그대루 시공한다면 우리가 무슨 건설자겠소. 청부업자지!》

《난 법적으로 수표한 상동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학적타산을 무시한 욕심이 건설에서 통하는가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량심에 관한 문제요. 과학적 타산이라는데 동무는 7천세대를 시작할 때 2만세대가 나온다고 생각했소?》

홍부상은 룡호를 위해주는 체하면서 신랄한 추궁을 들이댄다.

《생각해보십시오. 상동지가 비준해서 써버린 돈은 얼마이구 자재는 얼마입니까. 난 25년이나 건설을 해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룡호의 입에서도 불을 뿜는듯한 반박이 튀어나

《그렇소. 이런 일은 력사상 처음이요. 인민들의 수망을 헤아려 보신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난 웃으면서 법적책임을 지겠소.》

《난 론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만세대 건설이 성공하구 만세를 부르기엔 아직 이르기때문입니다. 기증기문제 하나만 놓구보더라도 기계공장들에서는 기술부족으로 못만들겠단다구 하면서 기계공업성이 계속 애를 먹고있습니다.》

《언제 받은 파업인데 이걸 왜 이제야 말하오. 기증기때문에 건설에 파탄이 올수 있다는걸 예견 못했소?》

《능력이 없다는데야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사람의 첨예한 론쟁을 듣고있는 간부들도 극도로 긴장했다.

불안하게 듣고있는 재정처장.

《나두 적게 뛰지는 않았습시다.》라고 하는 홍부상에게 룡호는 다시 임무를 준다.

《부상동무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풀어야겠소. 기증기 문제는 평양건설뿐아니라 전국의 산업건설과

지방도시들을 짓는데도 시간을 다루는 문제니만큼 책임적으루 풀어야겠소.》

홍부상은 《요구하신다면 가야지요.》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도한 자세로 나간다.

홍부상실

홍부상이 전화를 걸고있는데 재정처장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선다.

《여보슈! 권력을 쥐고있는 당신이 이런 때 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준단말이요! 나두 이제 급하게 됐소.》

상대방은 최고검찰소 부소장이다.

《아니 그래 그따위 전공뻘찌에 덜미를 잡혔단말이요?》

《시집살이하자니 별수 있소. 기증기문제로 출장은 가래. 기증기문제만 풀리는 날엔 어떻게 되나 보슈!》

《그런 걱정 말구 빨리 오전에 이야기하던거나 해결해보우.》

상대기실

대기하고있는 검열원과 재정처장, 그의 몇사람 룡호가 들어서자 따라간다.

상실

룡호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마다 부른다.

검열원이 《상동무!》 하고 부른다.

재정처장이 뒤따라 말한다.

《재시공문제는 안되겠습니다.》

룡호를 따라오는 사람들 저마다 《상동무!》 《상동지!》 한다.

룡호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한다.

《한사람씩 말하십시오.》

재정처장이 선참으로 말한다.

《재정도 자재도 다 걸렸습니다. 이걸 다 상동지가 결재하신것들인데 이제 와서 뒤집으면...》

룡호는 재정처장의 말을 잘라버린다.

《걸리지 않았소. 걸린건 동무의 사상이요.》

멧해서 룡호를 쳐다보는 재정처장.

《예?!》

룡호는 단호하게 말한다.

《동무사업을 다른 동무가 맡게 되었으니 가서 인계하는게 좋겠소.》

새파랗게 질려서 뒤로 물러나는 재정처장.

《됐소. 다음동무...》 룡호가 말한다.

검열원이 한발 나서며 신분증을 내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 나왔다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온돌이 2~3층까지는 가능하디치구 그 이상의 고층아빠트는 유해가때문에 절대루 안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는 무슨 사고요. 조선사람이 자기 풍습대루 살자는데 무슨 시비가 이리두 많소.》

검열원은 룡호가 룡록치 않게 나오자 위협하듯 으른다.

《상동무가 이런다면 좋습니다. 우린 문제를 따로 보겠소.》

《마음대로 하오. 온돌은 우리 인민들의 요구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란말이요. 당신 같은 시비군이 헐뜯는다고 우리가 물러설줄 아는가!》

룡호의 추상같은 반박에 뒤걸음질하는 검열원.

《나가지시오!》 룡호의 호령에 질겁해서 나가는 검열원, 그를 쫓아버린 룡호는 창문가에 다가가 착잡한 생각에 잠긴다.

하늘을 헤가르며 지나가는 번개.

요란한 우뢰소리가 울린다.

건설장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설계실장이 달려온다. 그는 사람들을 헤집으며 앞을 바라본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빼치까를 까나가고있다.

충격을 받고 바라보는 설계실장.

온갖 낡은것들이 부서져나가듯 허물어지는 빼치까.

힘있게 메질해 나가는 4건설사업소 지배인.

광광!...

내려치는 메, 설계실장은 뛰어들어 자기가 메를 틀어쥐자 자신의 낡은 사상을 까부시듯 빼치까를 메질한다.

이 전반장이 로동자2에게서 메를 인계받는다.

상실

비옷을 입은 룡호가 급히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를 받는다.

《최 룡호입니다.》

상대방은 홍부상이다.

《상동집니까? 여기 실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예.》

《공장에 내려와보니 더 급한 지표때문에 기계공업성에서 우리 기중기는 여전히 생산에 물리지 않구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룡호는 피가 얼어붙는것 같다.

《홍부상동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말입니다. 그런데 실태가...》

《지금 기중기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에 물린다구 해두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강쇠로써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두 있구 또 설사 만든다구 해두...》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린 우리 나라 쇠루 만든 우리 기중기를 가지구 조립식을 해내야 합니다.》

룡호는 수화기를 놓은후에도 흥분을 식이지 못한다. 이때 건설국장이 들어와서 보고한다.

《상동지, 기계공장에 알아봤는데 홍부상동무는 거기 없구만요.》

《응? 방금 전화편락이 있었는데...》

《확인 해봤는데 없습니다.》

《뭐라구?!... 음 그렇다? 일이 그렇게 됐구만.》

룡호는 무엇인가 감촉되는것이 있는 모양으로 두눈이 이글거린다.

《그럼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아니요. 당정책이 관철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판인데 난 여기 앉아서 뭘하겠소.》

창문에 쏟아져내리는 비.

사색에 잠긴 룡호는 까딱도 하지 않고 굳어져있다. 그의 귀전에 홍부상이 하던 말이 되살아난다.

《상동지를 받들구 일하는거야 밑의 사람으로서 응당한 도리지요.》

《당정책을 반대하는가?! 그러면 용서치 않을 테다.》

《요구하신다면 가야지요.》

그의 입에서는 끓어오르는 적개심이 풍기는 한 마디가 튀어나온다.

《나쁜놈!》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룡호의 차가 달린다. 검은 구름에 번개가 친다.

강가

벼락을 맞고 넘어지는 나무.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길을 막는 바위돌.

운전수는 차에서 내려 넘어진 나무와 돌사태 있는 데를 돌아본다.

그는 승용차옆에 서있는 룡호에게 다가와 딱한듯이 말한다.

《상동지, 아무래두 어디 가까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동원하구 도구를 얻어와야 할것 같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말없이 끄덕이는 룡호.

노래가 흐른다.

가야 할 앞길엔 시련 많아도

내 삶의 그 길은 오직 하나뿐

수령님의 뜻을 쫓피우는 길에

나의 한몸 바쳐가리

생각에 잠겨 승용차옆을 거닐던 룡호는 승용차에 들어와 편지를 쓰고 나간다.

의자에 놓인 쪽지편지.

《운전수동무, 다리에 물이 넘기전에 먼저 건너 가야겠소.》

앞을 보고 놀라는 룡호.

떠내려가는 다리.

생각에 잠긴 룡호.
노래가 계속 흐른다.

머리에 백발이 날릴 때까지
심장이 고동을 멈출 때까지
수령님을 위해 우리 당을 위해
나의 한생 바쳐가리

물사태

물사태, 룡호는 강가에서 범람하는 강물을 지켜 본다.

사품치며 무서운 힘으로 흘러내리는 홍수.
검은 구름이 타래치며 흘러간다.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감탕우에 룡호의 발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기계공장 지배인실

기계공장 지배인이 방에서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며 물참봉이 된 룡호가 비칠거리며 들어선다.

놀라는 지배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건설상동지!》
비칠거리며 다가오는 룡호.

《국수집두 가까이 앉은 사람부터 먼저 준다기에
찾아왔소.》

지배인은 달려와서 룡호를 부축한다.
《아니 어찌자구?… 목숨이 둘인줄 압니까… 자
어서!》

쏘파에 룡호를 앉히는 지배인.
피가 흐르는 룡호의 손.
《아니?!》

지배인이 룡호의 팔을 걸어올리자 피투성이가 된
상처가 나타난다.

상처를 보고 놀란 지배인은 의식을 잃고 늘어진
룡호를 소리쳐부른다.

《상동지, 상동지, 상동지!》
지배인은 당황하여 급히 전화를 건다.
《진료소에 대시오! 진료소!》

절간

석등에 대고 사진을 찍는 홍부상.
그옆에 서있는 절간관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한
다.

《이 석등은 7백년전 고려영종 17년에 세운겁니
다.》

《아주 잘 만들었소. 훌륭하구만.》
《아주 국보적가치가 있는 보물이지요.》
《됐소. 내 이런걸 얼마나 찾았는줄 아오. 곧 평양
으루 옮기겠소.》

관리원이 깜짝 놀란다.
《예? 아니 이걸 이 절간의 보물입니다.》
《알겠소.》
《이것이 없이야 이 절간이…》

《안다는데… 필요해서 결정했소.》라고 하며 코
노래를 부르며 사라지는 홍부상을 노엽게 바라보는
절간관리원.

기계공장마당

룡호가 노동자들앞에서 열렬하게 호소한다. 한 쪽
팔에는 봉대가 감겨있다.

《우리 혁명의 원수들은 평양이 또다시 일떠설가봐
비렬한짓을 다해서 방해하고있습니다. 기술이 없
어서 안되오, 외국에서만 만들수 있소, 이런 시비군이
이 공장에두 왔다갔습니다. 평양에 가서는 뭐라는지
압니까? 동무들이 못 만들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동무들!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진심을 말해주시오.
그래 로동계급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
령님의 신임에 보답할수 없단말입니까?》

로동자들이 흥분하여 저마다 웨친다.

《그건 종파놈들이나 할 소리웨다!》

《넘려 마십시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장 지배인이 말한다.

《건설만 잘해주십시오, 종파새끼들 보란듯이 기증
긴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로동자들의 열화같은 호응에 룡호는 감동된다.

홍부상실

홍부상이 비스듬히 의자에 앉아 수화기에 대고 말
한다.

《부소장동무, 그만하면 정원의 풍격을 높일수 있
구… 응, 아주 조화롭구 고전미가 날것 같소.》

홍부상이 의자에 기대어 코노래를 부르다가 룡호
가 들어와 있는것을 발견하고 일어나 변명한다.

《이제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룡호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편지 봉
투를 내민다.

《절간에서 온 편지요. 읽어보라는데.》

편지를 받아 책상에 놓는 홍부상, 그도 결정적 대
결의 순간이 왔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긴장한다.

《이건 지시하는겁니까?》

《당장 절간에 가서 사과하십시오! 동무가 누구를 위
해서 석등을 흠쳐다 바치려는지 내가 다 아오.》

《응? 흠쳐?…》

《기계공장에 가서 무슨짓을 했는지두 내놓소.》

《상이라구 아무런 지시나 할수 없단말이요.》

룡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홍부상의 독기 서린
말을 듣자 멎어선다.

《난 당신이 상으로 오자 그전 일을 다 잊구 당신
을 돕자구 무던히 애써왔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다
지도 날 배척하오? 무엇때문에 나를 배척하는가말
이요. 난 더는 그 모욕을 참을수 없소. 예? 상동
지!》

이때 문을 열고 건설국장, 4건설사업소 지배인, 설
계실장, 기타 간부들이 들어선다.

건설국장이 묻는다. 《상동지! 회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부상이 말을 가로채며 대신 대답한다.

《회의라? 마침 잘됐소.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소. 다들 앓지요, 앓지요.》 하며 자기가 먼저 의자에 앉는다.

의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룡호가 말한다.

《그렇소. 중요한 문제요. 앓으시오. 당신은 자기의 더러운 행동을 마치도 나에 대한 개인감정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하지만 조립식건설을 헐뜯는 본심은 그 어떤 교활한 보자기로도 감쌀수 없소.》

아연해지는 홍부상.

《응?!》

《그러나 당조직의 눈이 무서워 깊이 숨겨두구 내색을 하지 않았소. 그러면서 기회가 오는것만 기다리구있었소. 그렇지?》

《하하... 조립식건설을 반대한다? 아니 이거 터무니없구만.》

《그런데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이 일어났소. 1만 7천세대, 2만세대, 조립식! ... 사람들은 힘에 겨운 투쟁을 이겨내려구 모대길 때 당신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구 묘한 방법을 꾸며냈소.》

숨을 죽이고 듣고있는 간부들.

《공업이 락후하기때문에 조립식방법이 안된다던 그놈들의 주장을 실천으로 증명하자는거였소.》

책상을 치며 웨치는 홍부상.

《응? 무슨 소릴 चे치는거요.》

룡호는 그을 제지시키며 말을 계속한다.

《흥분하지 마시오. 당신은 본래 팽정히 계산하는데 습관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송곳은 자루속에 감출수 없지. 천리마의 대고조가 일어나자 이 더러운자들은 자기 목적을 실천에 옮겼다가 꼬리를 잡혔소.》

《 거짓말이요! 내가 뒤에서 건설을 파괴한다구?...》

노기어린 건설국장의 얼굴.

피대를 세우며 웨치는 홍부상.

《당신이야말로 망쳐먹고있소!》

지배인과 설계실장도 분개한다.

수화기를 들며 말하는 홍부상.

《그것때문에 검찰기관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사 서있는지 아오?》

룡호는 수화기에 대고 지껄이는 홍부상의 얼굴에 눈길을 박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최고검찰소 부소장실에 대우, 예...》

룡호의 입에서 내려지듯 드센 목소리가 울리면서 그를 단죄한다.

《우리 검찰기관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오! 검찰기관에 기여들어 반당반혁명책동을 하는 그자에 대해선 이미 당에 보고했소.》

그 말에 홍부상은 면상을 얻어맞은듯 눈살을 찌뜨리더니 들었던 수화기를 힘없이 놓는다.

홍부상에게 다가오며 말하는 룡호.

《당신들이 것처럼 우리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반대해 나서는 그 속심이 무엇이요? 응? 그래서 얻자는것이 무엇인가말이요!》

머리를 떨구는 홍부상.

《쏟라닥질하는 악습을 버리기가 그렇게두 아깝소응? ... 그따위 수작질루 수령님의 두리에 몽친 우리의 힘을 허물수 있다구 생각하는가? 천만에! 당에서 그만큼 관대하게 용서해주었으면 뉘우치구 고칠것이지 아직도 종파쟁이의 그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 로동계급은 너희들과 같은 오물들을 쓸어버려구 우리 당의 건설정책을 끝까지 지켜나갈것이다!》

그 소리에 몸을 제끼며 쓰러지는 홍부상.

룡호를 미덥게 바라보는 건설국장, 지배인, 설계실장.

룡호가 간부들에게 말한다.

《동무들! 내 방에 가서 2만세대 완공을 위한 토의를 계속합시다.》

모두 일어선다.

노래가 울린다.

아침해도 찬란히 빛나며

여기서 솟아오르고

보람찬 건설의 하루도

여기서 시작되네

창조의 노래속에

날이 밝고 해가 지는곳

아-평양

건설장에서 자갈을 퍼올리는 엑스까와트르.

그옆에 서있는 프랑카드.

불도젤이 흙을 밀어제끼고 기중기가 부재를 물고 돌아간다.

프랑카드, 오색기를 들고 나가는 아낙네들.

계속되는 노래

해빛같이 따사론 그 사랑

락원을 펼쳐주시고

별빛같이 정다운 그 은정

기쁨은 안겨주네

해와 별을 우러르며

행복속에 우리 사는곳

아- 평양

룡호와 건설국장, 설계실장이 건설전망을 토론한다.

부재생산을 룡호에게 설명하는 기사장.

건설장에 올라오는 명희와 순녀.

4건설사업소 지배인과 토론하는 룡호.

명희작업반의 즐거운 휴식장.

거리

완성된 새 집 거리.

아빠트앞

홍성거리는 새집들이가 한창이다.

방안

온돌을 쏴어 만지는 할머니.

아빠트앞

새집들이로 홍성거린다.

여기를 돌아보는 룡호와 4건설사업소 지배인, 설
계실장.

룡호와 건설국장이 차에서 부리는 짐을 맞들어 준
다.

룡호와 간부들을 발견한 할머니와 가족들이 반가
와한다.

룡호네 일행을 발견한 녀인이 할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 저기 계시지 않아요.》

《오! 나오셨구나.》

할머니는 룡호앞으로 가까이 오며 반가이 인사한
다.

《나오셨습니까?》

할머니를 알아본 룡호는 기쁨에 넘쳐 말한다.

《할머니, 오늘은 명절이 온것 같습니다.》

《네, 간부어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 할머니네 집에두 온돌에 불이 잘 들니
까?》

《예, 잘 듭니다. 이렇게 늘그막에 락을 보게 되었
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글썄 우리 수령님께서 찾

아주시던 날 주책없는 이 늙은것이 몇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까지두...》

감격하여 듣고있는 룡호와 그 일행들.

《만백성을 보살펴주실줄이야... 정말 이 세상에서
...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할머니, 자 짐들을 부리십시오.》 하며 룡호가 먼
저 자리를 뜬다.

건설국장이 《자 수고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남
기며 떠난다.

할머니는 가는 그들을 미더운 얼굴로 바래온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걸어가는 룡호.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

《수령님, 벌써 이렇게 됐어야 할걸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해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서야 일을 바로잡게
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설화

《당의 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주인공들
이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헤쳐오던 그때로부터 20
여년, 수도의 모습은 그 얼마나 달라졌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포화속에서 펼
쳐주신 수도건설의 웅대한 구상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는 열매를 맺었나니 여기 세계1
등급의 웅장화려한 도시로 거연히 일떠선 혁명의 수
도 평양은 번영하는 조국의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맑고 푸른 하늘, 웅장한 창광거리.

높이 솟은 고층건물, 보통교를 통한 창광거리.

만수대에술극장, 인민대학습당, 개신문, 주체사상
탑 등 현대 평양거리의 전경이 펼쳐진다.

끝

벽시

탄부들에게!

김 학 연

그대들은

흘러가는 구름도

한조각의 하늘도 볼수 없는

천길막장에서 일한다

하지만 그대들은

해와 별 찬란한 이 시대

그 빛발 가장 따사로이 비치는

영광 끝없는 초소에서 일한다

그대들이 캐내는것

그것은

땅속에 무진장한

석탄!

하지만 그것은

10 대전망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열이며 우리의 빛,

하기에 그것은

진주보다도 보석보다도 소중한데라

푸른 상호등

허능택

나는 취재의 길에서나 여행길에서 간혹 흠에 서서 밤렬차를 기다릴 때면 언제나 멀리 바라보이는 장내 신호기의 전등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명상에 잠기곤 한다. 아마도 추억이란 제나름인것이라. 밤의 대기속에 멀리 은은히 비쳐오는 그 푸른 불빛이 그토록 나에게 류다른 감흥을 주는것은 그 푸른 신호등속에 하나의 화폭처럼 생생하고도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추억이 깃들어있기때문인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는 학생모자에 철도 모표를 달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었다.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 전쟁은 말그대로 가렬하였다.

적들의 폭격은 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았다. 발을 가는 소들한테도 위장망이 필요했다.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동원해야 할 준엄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방에 있는 전체 인민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후방의 공고화를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건결히 고수하였습니다.》

당시 전체 인민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구호속에 단결되었고 오직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우리 인민의 신념과 신조였다.

우리는 하나의 직무수행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때 나의 상급이었던 전철수아바이는 내가 나이를 속이고 철도에 들어왔다는것을 알고 나의 더벅머리를 쓰다듬으며 《여기를 학교로 생각지 말라구, 철도는 군대야.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는 무조건 수행해야 해. 힘들다고 울면 안돼.》 나는 그때 그에게 울지 않겠노라고 대답했다.

전철수아바이는 남달리 덕수염이 있어 그런지 나이가 지숙해보였다. 그래 동무들은 별명으로 그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그는 직무수행에서나 철다리복구건설장에서나 모든 일에 모범이였고 숙보관은 언제나 그의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힘이 장수였으나 몸은 보통사람의 체구였다.

농민다운 순박한 얼굴, 그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그런 사람의 립장을 견지 할줄 알았다.

철도구내가 적의 폭격속에 잠길 때 남보다 먼저 그 불길속에 뛰어들어 차방통들을 구원하는 그의 영웅성을 볼 때마다 나는 그가 그런 성품을 소유한것으로 해서 용감성을 동반할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에서 열까지 그에게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전철기 청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전철기 유동관의 기름은 어떻게 치는가에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었다.

우리의 일과는 저녁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새벽까지 진행되었다.

군수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선으로 보내는 물동을 차에 실어 보내야 했다.

전화선이 끊어지면 다음 역까지 달려가 전달해야 했고 전기가 파괴되면 상호등을 가지고 장내신호기를 대신해서 기차를 맞아들여야 했다.

매일밤 적들은 우리의 군수렬차수송을 방해하였다.

조명탄들과 폭탄 기총탄 사격은 장마철처럼 끊는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수십개의 방통을 단 군수렬차가 도착했다.

적 비행기들은 까마귀떼처럼 역상공을 뒤덮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구내에 들어선 차방통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분초를 다투는 순간에 전철수아바이는 기관차의 련결기고리를 벗기고 차에 매달려 철굴이 있는데까지 상호등으로 적 비행기들을 기만유인하였다.

우리는 그 시간에 구내에 떼여놓은 차방통들을 무사히 대피시키었다.

그날 전투에서는 동지들의 희생도, 부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고 귀중한것을 살려내 였다.

그날 전투총화에서는 영웅성을 발휘한 전철수아바이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나는 그날밤 불에 그슬린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래일아침에 내불일 벽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벽보에 붙일 전투적인 군무생활에서 자랑을 펼친 전철수아바이 초상을 속사하게 되었다.

나는 여러개의 상호등을 모아 조명기처럼 그의 얼굴과 화판에 집중시키고 그림을 그리었다.

다음날 전철수아바이는 벽보에 나불은 속사그림이 자신도 신통해서인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상호 등불빛으로 벽보관을 비쳐보곤하였다.

우린 언제나 어떤 역경속에서도 공포도 애수도 비겁도 몰랐다.

우리의 전투적인 생활은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생활은 많은것을 가르쳐주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싸움은 당시 소년이었던 나의 심장속에도 공민의 의무를 자각하게 하였다.

그후 나는 전철수아바이와 작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에 대학을 복구할데 대한 사랑의 조치에 의해 새 희망을 안고 배움의 전당으로 떠날 파견장을 받았다.

나는 그날 가슴에 넘치는 기쁨을 어데다 건사했으면 좋을는지 몰랐다. 나는 그날밤 정든 철도구내길을 몇번이고 걸었다.

생사를 같이 해온 동지들결을 떠나게 되는 아쉬움과 광활한 포부가 약속된 강의실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다음날밤 전철수아바이는 나의 배낭을 지고 장내 신호기가 있는곳까지 내려주었다.

《철도는 우리가 지킬테니 마음놓고 가서 공부를 잘하라우. 우리 장군님의 이 고마운 은덕에 보답해야 하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철도를 잊지 말라구. 얼마나 그럴것들이 많은가...》

나는 전철수아바이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울긴... 울지 않겠다고 하더니...》

나는 돌아서서 철길침목을 하나하나 밟으며 길을 떠났다.

전철수아바이는 장내신호기옆에 서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푸른 상호등을 흔들어주었다.

그후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지난날 나의 상급이었던 전철수아바이가 철굴속에서 시한폭탄 해제작업을 하다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날밤 잠들지 못했다.

나는 전철수아바이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는 남해 바다 완도라는 섬에서 온 사람이다.

그는 호적제에도 등록되지 못한 고아였다.

그는 오직 당을 따라 천만리길을 걸어 공화국품에 안겨 처음 인간의 권리와 공민의 영예를 받아 안은 사람이었다. 그가 것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철굴속에 남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 영웅성을 발휘한것은 그 어떤 천성적인 성품의 기질이 아니라 어머니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불탔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후 세월이 흘러 나는 언제나가 취재의 길에서 나의 상급이었던 전철수아바이의 안해를 만났었다.

우리의 상봉은 감격적이었다.

인제는 늙은 어머니가 되어버린 그의 안해는 철길 감시원으로 일하고있었다. 옛날같으면 손자의 재롱을 받을 그런 어머니였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그는 붉은 오각별속에 레우가 그려진 철도모자를 쓰고있었다.

단정히 주름잡아 입은 철도제복차림은 그의 몸에 배인듯 잘 어울리었다. 그날 우린 순서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임자가 철도에 있을 때 언제인가 우리 주인을 그린 벽보그림이 생각나나? 그 그림을 요긴하게 썼다오. 주인 사진은 다 작은것뿐이고 또 전시에 어데가 사진관을 찾겠나. 그때 그 그림을 놓고 조객들을 맞았지. 그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것만 같다고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다네.》

나는 순간 삼십여년전의 그날밤 그 속사그림을 그리던 일을 회상하였다.

나는 그 집을 나서면서 인젠 년세도 그런데 손자를 키우며 집에 앉아계시는게 어떤가고 말리다.

어머니는 철길옆에 흠어진 차돌들을 정리하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사람아, 내가 늙었다는거지. 난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다 좋은데 한가지 섭섭한건 년로보장 제만은 <의견>이 있네. 난 돈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야. 내가 오룩이 성한 이상 우리 주인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 당앞에 내 도리가 아닌가...》 나는 그의 대답에 보탬을 줄 말을 찾지 못했다.

나는 생각하였다. 그렇다. 이처럼 당을 받들어 가는 위대한 인민의 신념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튼튼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해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는것이라고... 나는 그날밤 밤차를 타고 잊을수 없는 추억들과 고향을 뒤로 남기며 떠났다.

렬차가 구내를 벗어나 철길건널길초소를 통과할 때 나는 렬차승강대에 내려서서 상호등을 들고 차단 봉열에 서있는 어머니에게 어린애처럼 큰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도 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푸른 상호등을 높이 추켜들고 흔들어주는것이였다.

푸른 상호등-그것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을 의미하는 신호이다.

나는 그 푸른 상호등불빛이 점점 멀어져 한점으로 보일 때 그 한점속에서 앞으로 그려질 불멸의 화폭속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우리의 주인공들을 그리고 있었다.

첫 나들이

김영길

《…나? -새우섬 사감이라는데. 새우섬. 아-거 도요섬에서 전화기 좀 놓구레. 누구? -최대걸이? -아, 그사람 정신이 썩 나가지 않았소? 결혼식하구 왔으면 집이나 꾸릴노릇이지 섬엔 뭇하러 색시를 달구 건너온단말ियो. 아니, 갈데가 없어서 이 감탕판으로 나들이온단말요? 하루밤이라 두 그렇지. 오면 손바닥만한 섬에 방이 어데 있어서 한방을 통채로 낸단말ियो. 내 하루 간식지에 오래 있으니 나중엔 별일 다보누만… 여보 지령원 동무, 절대로 건너보내지 말라구요. 벌써? -나도 모르겠소.》

수화기를 내동댕이치듯 한 3직장 합숙사감은 창문을 활 열어제끼고 상반신을 쑥 내밀었다.

벌써 늠름늠름 밀물이 들고있었다. 얼핏 보면 석공의 간간한 손을 걸쳐 다듬어진듯 창턱밑에 널린 기암괴석들을 철썩철썩 때리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섬뒤쪽 부두 어방에서는 한물거리에 한탕이라도 더 나르려고 통통거리며 서두는 돌배의 거센 숨소리가 짖을줄 몰랐다.

새벽녘에 먹이를 찾아 바다기슭으로 날아갔던 도요새무리들이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정답게 서로 찾고 회담하며 안전한 보급자리인 섬을 향해 날아들고있었다.

밖으로 나온 합숙사감은 물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최대걸이 그 사람은 언제 봐야 벉을 문이라구 내민다니까…》

사감의 말밥에 오른 최대걸이란 작년가을에 배낭을 메고 간석지건설장으로 달려온 제대군인이다. 이 도요섬을 타고왔은 한개 직장은 알쫘한 제대군인들로 꾸려졌다.

그들의 고향은 북으로는 저기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남으로는 연안, 배천까지 쭉 널려있어 얼추 알아야 할 지방풍물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을 뒤지지 않아도 충분했다. 또한 이들은 말씨도 성격도 취미도 제마끔 이었다.

그중에서도 평사포출신- 요덕군 내기 최대걸이라 하면 사감은 아예 손부터 들군했다. 젊은 사람치고 고집이 어찌나 센지 적어도 직장안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남들이 다 안된다는것도 기어코 제손발을 놀려 해보고야마는 성미였다. 기정사실에 놀릴줄 몰랐다.

한두번 그 고집이 일을 친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랑패보기가 일쑤였다. 그럴 때도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면서 좋이 반나절은 머리를 기웃거리곤했다.

이번 결혼식만 보아도 그렇다. 직장에서는 새우섬에서 얼마 멀지 않는곳에 있는 알섬의 돌을 제방쪽 기초에 써먹을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론의가 분분했다. 기초에는 온전한 돌을 넣어야지 썩돌같은 것을 썼다가는 제방이 주저앉을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첫 간석지라고 말할수 있는 비단섬건설의 《권위》와 선배로서의 위신을 보존하고있는 합숙사감도 포함된 직장일군들과 돌눈에 밝은 사람들이 알섬에 건너가서 돌에 대한 초보적인 감정을 해보았다. 암질성분이 복잡했다. 이끼를 벗기고 깨어보면 보석과도 같이 화강암이 번쩍번쩍 하는가 하면 어떤 바위는 금간 질그릇단지처럼 찔그럭거리는 썩돌도 있었다. 그자리에서 쓴다, 못쓴다 하고 딱소리나게 판을 가르기 어려웠다. 결국 종합기업소 기술과에 의뢰하고 차후에 보자는 락착을 지은판에 마침 썰물이 지자 청하지도 않은 최대걸이 감탕판을 껴질러 건너왔다.

몇군데 정질해보고 돌을 깨어본 최대걸이 화강석이 옳다고 우기다가 먼저 건너온 사람들의 힘에 물리게 되었다. 그때 최대걸은 《종합기업소 기술과에 가보십시오. 지금 마감막이 공법때문에 눈코 뜰새 없는 사람들이 요만한 일때문에 언제 내려오겠다구 세월없이 앉아 기다린단말입니까?》라고 도전해나섰다. 그런 조직사업에는 간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을 맞고 한동안 최대걸은 수격수격 일만했다. 그러던 사람이 하루는 직장장앞에 나타나서 가을에 예정했던 결혼식을 이달중으로 하겠다고 불쑥 제기해왔다. 모두 뒤로만 미루어 골치를 앓던판에 자청해 나서는 사람이 있어서 직장에서는 선뜻 승인을 해보냈던것이다…

물에 있는 사업소일군들도 아마 그사이 배정해 놓은 주택이나 빨리 꾸리라고 최대걸에게 권하다 못해 섬에 전화를 한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배가 뚫다니 문제였다.

합숙사감은 우선 그의 소대에 알릴참으로 호실을 향해 돌충체를 오르기 시작했다. 이름이 충چه지절벽 그대로나 다름없이 가파로운데다가 계단폭이 마루

만큼씩 넓어서 두세발자국은 걸어야 한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그것도 식당과 호실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한다면서 최대결이 우겨서 뽑은 《직통도로》였다.

바쁘다고 저도 모르게 최대결의 직통도로에 접어든 합숙사감은 중턱에서 숨을 쉰으면서 머리를 쳐들었다.

소대장 호실과 최대결이네 3호실이 잇달린 단층집은 아직도 머리위에 떠인듯 하늘중천에서 춤을 추었다.

삼시간에 그 소문이 짜하게 퍼져 새우섬이 온통 잔치집같이 흥성거렸다.

최대결의 호실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 호실을 치우고 장판바닥을 비누로 닦아냈다. 침구를 내다 털고 담배냄새를 뽑느라고 누구도 손을 못대게 하던 방금 피어난 들장미를 바깥사람들이 로 꺾어다 방 한 구석에 놓아 그 싱싱하고 진한 향기에 숨이 막힐지경이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교대작업에 나가야 할 친구들도 늦잡으면서 공연히 《신방》을 기웃거리곤 했다.

만약 섬복판에 솟아난 락타등같은 봉우리들만 없다면 끝에서 끝으로 소리쳐부르고 화답할만한 땅덩이 다보니 3호실의 복세통이 메아리쳐 곧 합숙사감의 방문을 두드렸다.

사감은 금방 계산해 툭겨 놓았던 수관알들이 그새 흩어질세라 종이로 덮어놓고 일어섰다.

누가 3호실을 신방으로 꾸리라고 했는가? 쫓겨난 사람들은 좋아하겠는가? 하는 급한 마음에 사감은 또다시 매번 안 다닌다고 하는 최대결의 직통도로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자기도 모르게 바쁠 때면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사감이 3호실문을 열려는데 호실장이 앞을 막아섰다.

《사감<아바이>, 왜그렇니까? 필요없이 자꾸 들락거리다가 모기가 새들어가면...》

호실장은 걸어놓았던 자물쇠를 마저 딸깍 채우면서 말꼬리를 끌었다.

《3호실동무들은 다 어데 갔소?》

《사방에 헤쳐졌습니다. 하루밤 아무데서나 끼워지면 뭐랍니까. 아무리 섬이라도 레절이야 차려야지요.》

합숙사감은 입이 쏘으나 그 말에는 수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긴 그랬다. 나이는 이 제대군인들에 비하면 만형벌이나 될것이지만 《비단섬》때부터 말하자면

간석지 건설자의 선배대접으로 《아바이》로 불리우는 사감 역시 하루밤을 위해 꾸리는 이 신방의 의의를 모를바가 아니었다. 하면 신방은 말그대로 신방다와야 했다.

량열구리 호실에서 코고는 소리가 꺾들리는 판에 신방의 철저한 방벽과 신성한 정숙을 보장해 낼것 같지 못했다. 이것은 도덕을 포함하여 나라앞에서 사감인 자신이 리행해야 할 의무였던것이였다. 그런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신방을 꾸리다보니 그렇게 되였다.

호실앞에 있는 장의자 비슷한 세면대우에 걸터 앉아 담배를 붙여 물고 잠시 묘책을 찾던 사감은 한잠만에 입을 열었다. 사감은 최대결이 하는 일이 원체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도리는 지켜야 했으니 이 일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거 가운데 방이 돼서 신부가 들자구 하겠소?》

《그래두 자기 호실인데 제집같은 감이 나지 않아요?》

《아니, 안심찮구만.》

사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글쎄 우리도 저 끝호실을 조절했으면 했는데 이미 잠든 동무들두 있구해서... 그래서 대책은 철저히 취했습니다.》

《대책이라니?》

《소대동무들에게 오늘밤은 이 앞으로 지나다니지 말라구 했습니다. 그래도 미타해서 호실동무들로 량옆에 <잠복>을 조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을 밝히고 제방뚝을 어떻게 막는단말이요?》

사감은 대뜸 눈살이 찡긋해지며 따지듯 물었다.

《원래는 자재과에 가서 철근을 좀 빌려다가 둘러치고 <위수구역>을 만들려구 했는데 소털 뽑아 제구멍을 맞출 사람들이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보니 불과 한시간내에 여기서는 복닥불이 인것이 분명했다.

벌써부터 3호실앞으로 다니는 제대군인들은 괜히 위험한 물건이나 피하듯 조심성있게 지나치면서도 결눈질로 방을 훑쳐보곤 했다.

전에없이 호실앞에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퇴마루나 다름없는 바다기슭 바위우에서는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다.

식당옆 너럭바위에도 제대군인청년들이 모여앉아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서정에 폭 잠긴 굵고 트인 사나이들의 노래소리는 어둠이

구림하기 시작한 섬의 저녁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했다.

…은하수 고요히 바다와 속삭이고
기발마냥 우등불 훨훨 타오르네
수평선은 저 멀리 아득해도
우리는 그 바다 막아낼 청춘들
아- 솟아난 저 지평선우에
공산주의 첫해살 붉게 비치리…

노래는 흥떡이는 파도처럼 서서히 멀리로 퍼져 갔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앞서 현실적인 타산을 할줄 알며 자기 직무를 잊지 않는 사감은 3호실의 네사람이나 잠을 설 때리게 할수 없었다.

자기 하나와 귀중한 간석지건설자 네명을 대비 해보았다. 그리하여 사감은 사감 전기간 일찍 없었던 결심을 채택했다.

《호실장동무, 3호실은 복잡해서 안되겠소. 내 방을 내구 내가 여기 와서 대결의 자리에 잡세. 그러면 딱 맞지?》

호실장은 제일처럼 기뻐서 싱글벙글했다.

《감사합니다. 사감<아바이>.》

호실장은 웬일인지 그에 맞지 않게 사감의 손을 덥석 잡더니 이슬이 핑그르 돈 눈으로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호실장은 즉석에서 옆호실들에 널려간 동무들을 찾아 들이느라고 소리쳐불렀다.

그랬으나 호실원들은 한명도 없었다. 알고보니 전지불들을 켜들고 굴파려 바다가로 나갔던것이다.

사감은 허를 차면서 이번에는 경사가 완만한 자동차길로 빙빙 돌아서 자기 방으로 내려갔다.

귀들이 얼마나 큰지 어디서 벌써 얻어듣고 뒤뉘어온 제대군인들과 손을 맞잡고 방을 거둔 사감은 3호실 최대결의 자리에 와서 누웠다.

잠든줄 알았던 호실장이 몸을 반쯤 일으키면서 들었다.

《사감<아바이>, 그 굴하구 소개회를 밖에 내놓지 않아도 일없을가요?》

《찬물에 떠웠으니 일없을거요.》

《밤참을 꼭 먹고 자라구 써놓은걸 그랬는데…》

호실장이 혼자소리로 걱정하는데 사감은 어느새 푸르푸르푸르 풀무질을 하면서 잠에 푹아떨어졌다. 할일을 다 했으니 마음놓고 꿈나라를 헤매이는 모양이었다.

밤중에 눈을 뜬 사감은 아뿔싸 하고 속으로 자신을 질책했다.

희푸른 어둠속에 벽시계의 바늘을 더듬어보니 새벽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또 미련스레 물려든 잠타에 최대결이를 맞아들이지 못한것이 죄스러웠다.

밖으로 나가보려고 해도 부스럭거리면 한참 단상에 들었을 제대군인들을 깨울가봐 가만히 누워있었다. 말뚱말뚱한 정신으로 한동안 누워있던 사감은 량옆에서 너무 곱게들 잔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여 몸을 반쯤 일으켜보았다.

호실은 텅 비어있었다. 사감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사람들이? … 눈치들 없이 신방에 모여들어 밤을 새는군… 사감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제방쪽에는 사감이 굳잠이 들었던 애저녁부터 사람들로 복적거렸다. 누구의 조직도 승인도 없이 두교대 합하여 직장이 몽땅 펼쳐나서 일을 조겨댔다.

섬봉우리에서는 착암수들이 중공발파구멍을 뚫느라고 격전장같이 실새없이 푸루룩거렸고 부두에서는 자동부림배에 돌을 퍼실는 중기계들의 웅 쓰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아직도 밤이면 바다바람이 쌀쌀했으나 웃동을 벗어 제치고 런닝그바람에 이적기로 광차에 돌과 흙발을 싣는 제대군인들의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렸다.

(예, 최대결이가 그새 변화에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래야 그 색시도 우리 제대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아닌가?)

저저마다 이런 생각들을 굴러가면서… 이들의 앞장에 3호실, 바로 최대결의 친구들이 섰다는것을 사감은 알리 없었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이 비겼고 눈길은 무시로 최대결부부가 타고올 매생이를 포착하고 저 바다우로 빛발쳐가군했다. 말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누가 먼저 그들을 찾아내어 소대에, 직장에 알리는가 하는것을 가장 크고 중대한 일처럼 생각했다.

일손이 흥겨우니 성과도 그만큼 컸다. 벌써 새벽 4시 현재로 하루 할 작업량을 전부 치웠다. 바다를 또 한치 내밀었으니 기름진 감탕벌을 그만큼 얻은 셈이었다.

직장이 펼쳐나서 밤도와 개고막이전투를 벌렸다는 말을 들은 사감은 자기에게 아무 귀찮도 없는 직장장이 나무라왔다. 하지만 그런 섭섭한 생각에만 포로되어있을수 없었다.

3호실에서 내려오다 아직 불꺼진 자기 방을 건너시 바라본 사감은 한쪽으로는 이제 섬의 첫 조반으로 대접할 신히부부의 상을 따로 차리게 하고 한편

으로 현장 운반식사조직을 하느라고 한동안 식당 안을 뱅이처럼 돌아갔다.

국통을 메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감의 눈은 길랑쪽에 늘어 세운 속보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간석지건설자들이여, 날바다를 막는 이 전투장에서 우리모두 19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제대군인들이여, 월미도의 영웅들은 우리를 부른다. 파력은 변하지 않았다. 원쑤 미제를 죽치는 기세로!》

《또 10미터.

3소대 3호실 동무들이 혁신! 최대결동무뭉까지 150%》

《최대결동무가 창안한 조구통이 은을 낸다!》

이것은 언제인가 제방끝에서 한번 본듯한 속보 내용인데 이번에는 길목에다 세워놓았다.

《3호실이라니?-그럼 이 사람들도?》

합숙사감은 제대군인들속에 끼우자부터는 도대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사개를 맞춰낼수가 없었다. 사감은 어제저녁부터 오늘아침까지 모든것이 다 너무도 비약하고 새롭게 뿔쑥뿔쑥 튀어나서 마치 간석지건설력사에서 그 어떤 전환기가 마련되고있는듯한 엄숙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

이제껏 해온 생활과는 너무도 맞지 않고 생경하여 꼭 튀어나는것만 같은데 어느덧 그것은 벌써 세기를 넘어오며 굳어진 생리처럼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 통에 그러한 일들이 늘 있는 다반사로 여겨지기도 했다.

수관알을 굴리는데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사감이었으나 이 섬에 새롭게 형성되고있는 순결하면서도 전투적인 료리도덕, 그들의 불같이 뜨거운 심장까지는 아직 다 파고들지 못했던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현대적인 계산기로써도 산출해낼수 없는 우리시대와 우리 청년들에게만 고유한 감정, 비약하는 1980년대의 위대한 숨결인것이다.

사감은 얼마를 못가서 섬을 통채로 들었다놓는 발파소리에 멈춰섰다. 전에없이 이른아침에 진행되는 발파였다.

쿵-쿵-쿵 발파소리는 이상야릇하게 사감의 심장을 울리며 그의 가슴속에서 때이르게 찾아든 젊음과 활력을 불려일으켰다.

오늘따라 발파공들까지 새벽일찍 일터에 몰려와서 일손에 신바람을 일구면서 간혹 바다를 지켜 보고있었다.

아침노을에 물든 바다는 뚝어번지는 용선로의 쇠물처럼 온통 선홍색으로 일렁거렸다. 그 붉은 바다

우로 배 한척이 느릿느릿 떠오르고있었다. 누군가 춤추듯 노를 먹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바라보였다.

사감은 3호실장을 눈에 띄어보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국통을 내려놓은 그는 호실장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물었다.

《누가 신새벽에 건너오? 지배인이요?》

《최대결 신혼부부가 건너온다고 했는데... 저 친구 왜 외기러기로 날아와?》

호실장은 자못 근심스런 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럼 밤에 도착하지 않았단말이요. 에이, 물에서 자구오면서 밤에 당장 건너올것처럼 사람을 놀래운단말요? 내 그 사람 일에 간참 않는다면... 다시는 ...》

사감은 한동안 혀를 차며 꾸짖질을 했다.

호실장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사감을 언짢게 바라보다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아바이, 오늘은 국통이랑 다 갓구 들어가시라요.》

《?》

이런 푸대접을 처음 당해본 사감은 그제사 심상찮은 주위분위기를 느끼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어려있었다.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껏 마치 저기압에 눌린듯 한동안 잠잠하던 부두에 갑자기 한오리의 선풍이 일기 시작했다.

《아니, 저 최대결의 등뒤에 꽃수건이 보인다!》

《난 아까부터 무슨 기발이 나뵈기는가 했구만-》

《무사히 오는군. 근데 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었을가?...》

무슨 소리가 해서 한참동안 잠자코 듣고있던 사감은 비로소 영문을 알아차리고 호실장에게 도전적으로 말을 걸었다.

《날 들어가라구? 신혼부부만 쳐다보면 배가 부르다던가.》

《왜 쳐다만 보겠어요. 문어다리예다 <따끈한 물>까지 받쳐실구 온단말입니다. 아마 꽃떡두 있을지 모르지요.》

《그럼 이 사감이 선참 나가 맞아야지.》

정말로 합숙사감은 배를 맞받아 슬금슬금 내려갔다.

매생이는 서서히 다가와서 감탕판에 앞코숭이를 쿡 박았다.

배 뒤전으로 물러가서 돌아선 신부는 좀체로 내릴 념을 앓고 바다에라도 뛰어들듯 위태롭게 서있었다.

마중나온 못제대군인들도 정작 이 대목에서는 한결같이 주눅이 들어서 누구도 말을 붙일 생각을 못 했다.

실로 사감이 아니었다면 신부를 언제까지나 배전에 세워뒀을지 몰랐다.

과연 매생이에는 보파리가 서너개 잡혔었다.

사감은 3호실장을 불러 보파리를 받아내리라고 했다.

그새 신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감탕판에 박아 놓은 돌다리를 건너 쪽우로 올라섰다.

모두가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감이 대표로 하고 마는통에 불만들을 자아냈다. 그래서 누구도 신부의 얼굴을 똑똑히 본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가늘고 까무장한 눈썹 밑에서 반짝이는 새별 눈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선이 곧은 코마루, 어떤 사람은 그린듯이 둥그런 턱과 시원한 목, 생각과는 달리 일에 치워난듯한 커다란 손… 해서 종합해 놓고 인상들을 나누었다.

최대걸이 돌아가면서 동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물밑에서 사람들을 향해 《이거 미안하게 뵈습시다. 그새 제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라고 인사겸 물었다.

호실장은 그런 소리는 듣는등 마는등 잔치집 주방을 타고얇은 사람처럼 보파리를 풀어헤치면서 건성 대답했다.

《넉근히 한개 중대는 먹고 살 땅을 막아 놓았으니 맘 폭 놓고 계획이나 발표하게. 한개 분덴가?》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호실장은 먼저 자그마한 보파리를 하나 풀어 헤쳐 보고 《이건 책들이로군.》 하면서 다른 보파리에 손을 뻗었다.

과연 그 보파리에서는 황새목같이 별로 길쭉한 병이 두개나 나왔다.

병을 넘겨받아 코앞에 처든 사감은 고개를 잔뜩 제치고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 량반 참 잘생겼다. 넥타이까지 척 매구. 누구레 이름 석자 잘 붙였지 <황금로>라.》

사감은 답알침 삼키는 소리까지 꿀꺽 냈다. 사감은 직장장을 눈더듬으로 찾더니 이렇게 말했다.

《격식을 따루 차리게 있습니까. 야간전투의 성과를 축하해서 신부가 한잔씩 붓게 합시다레.》

제대군인들은 벌써 옷매무시들을 바로잡으면서 소리없이 빙글거렸다.

이때 사람들 뒤전에 비켜서있는 최대걸부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어떻게먼 좋아요. 괜히 예까지…》

《한집안식구들인데 뭘…》

신부는 달음박질치듯 제방끝으로 피해갔다.

낮이 벌개진 최대걸은 습관대로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면서 몸돌바를 몰라했다.

그때 벌써 《문어보파리》를 풀어헤친 호실장은 눈이 둥그래지며 최대걸이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했다.

《여보, 이젠 뭘요. 아무리 간식지를 막는 사람이라구 돌을 먹으란달요?》

어좁은 웃음을 띤 최대걸의 커다란 얼굴이 검붉게 타올랐다. 쥐구멍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찢찢했다.

사감은 최대걸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주눅이 들 때가 있는가 싶어 놀라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때 뒤전에 서있던 직장장이 사람들을 헤치면서 앞으로 급히 나왔다.

직장장의 두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첫 보파리에 빠죽이 내민 뽕죽망치며 시약병과 확대경등속들을 이미 눈여겨본 직장장은 문어다리 대신 정성껏 싸은 주먹만큰 돌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직장장은 말없이 탐사망치로 돌을 까보았다. 우유틈 돌먼지가 일었다.

화강석이 틀림없었다.

직장장은 묻지 않고도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최대걸의 약혼녀가 도광업경영총국 지질기사라는것은 직장내에 비밀이 아니었던것이다.

직장장은 최대걸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알섬거요?》

《그렇습니다.》

《도광업경영총국에서 확정했소?》

《예, 저…》

《됐소. 저 기사동무가 했다면 더욱 좋은 일ियो. 제집 일처럼 했을테니까.》

직장장은 신부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직장장은 아침해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화강석조각을 쳐들었다.

직장장은 그만 코마루가 시큰하여 입을 열수가 없었다.

최대걸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정분인가? 그는 실로 귀중한 보물을 안고 왔다. … 저 알섬이 화강석이 웬단말이지. 만립방의 화강석! 저 너기사 또한 얼마나 훌륭한 벗인가… 물론 종합기업소는 내려는 올것이다. 그러나 저 너기사는 다문 한시간, 한발 자국이 라도 앞당기려고 이 섬으로 달려왔을것이다… 우리의 《80년대속도》는 바로 이렇게 한시간 한걸음이 라도 주름잡으려는 매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태어나는것이다…

어서 저 보물을 몽땅 날라다 바다를 메우구 새로
숫아난 일망무제 한 기름진 감탕벌을 타고앉아 대잔
치를 차려야지...

직장장은 말없이 최대걸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
깨를 두드릴뿐이었다.

얼굴이 수수떡빛이 된 최대걸은 고개를 깊숙이 떨
구고 서있었다.

사람들은 새삼스런 눈으로 최대걸을 쳐다보았다.
최대걸이 저런 사람이었던가! 최대걸이란 사람의 진
정한 미, 그의 웅심깊은 정신세계와 심장이 다 드러
났던 것이다.

직장장은 사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사감동무, 우리 최대걸의 결혼식을 차려줍시
다.》

《예?》

《최대걸이 결혼식하러 간게 아니요. 광업경영총국
에 가셔도 이리 뛰구 저리 뛰구 할래게 하루 편히 쉬
지두 못했을거요.》

그제사 사감은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니
어제밤 알שמ에서 자게 된 이유를 구태여 밝혀서 무
엇하랴...

최대걸이 사감을 향해 소심스럽게 말했다.

《사감아바이, 섬에 첫나들이 온 셈인데 받아주시
겠습니까?》

《첫나들이라!...》

사감은 전에없이 심중한 어조로 받아외웠다.

신혼부부의 첫나들이는 일생에 한번 차례지는 행
복한 여행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꼭 첫발
을 옮겨야 할곳, 생의 뿌리를 내리면서 먼저 찾아보
지 않으면 안될 가장 귀중하고 살뜰한 벗들과 친지
들, 그러한 고장과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단섬》 개간때 장가를 든 사감은
신혼나들이를 될수록 간석지, 정확히 말하면 감탕관
해서 멀리로 떠나갔었다.

그런데 이 최대걸이는 바다를 막을 돌을 안고 첫
나들이를 섬으로 온것이다.

사감은 좀체로 리해할수가 없어 조용히 한마디 물
었다.

《그래... 정말 이 간석지건설장으로 첫나들이를 왔
단말요?...》

최대걸이 역시 누가 들을세라 사감의 귀전에 대고
수군수군 말했다.,

《그럼 어디루 가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먹
는문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시겠다고 세상에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믿으셨을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바이, 가슴이 막 빠근해
지지 않아요? 여기를 두고 어디로 돌아 다니겠습니까!
!...》

사감은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 말은 할수
가 없었다.

과연 이 사람들이야말로 청춘시절을 단 한발자국
도 허실없이 얼마나 값있고 무겁게 걸고있는가... 청
춘을 이렇게 고스란히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원
대한 구상을 꽃피워가는길에 바쳐가고있다...

붉은 노을속에 나란히 서있는 최대걸 한쌍의 모습
은 마치 이 섬에 피여난 한떨기의 꽃파도 같이 아름
답고 숭고하게 보였다.

제방 100미터 구간에 첫 섬꽃이 피여났다. 이제
저 섬과 섬사이를 막아 가느라면 또 얼마나 많은 꽃
들이 다투어 피여날것인가...

사람들이 벌써 그들의 첫나들이, 첫 위훈을 축하
해주려고 제방끝으로 다가가고있었다.

사감은 혼자 속궁리를 하면서 식당을 향해 부지런
히 걸고있었다.

대잔치를 차리고싶었다. 바다에 무엇이 없으랴...
군에두 알리고 온돌포 수산사업소에서두 와보래지
... 전번에 왔던 사진기자가 때맞춰 왔으면 좋겠는데
... 세상사람들을 다 청하고싶었다. 우리 제대군인
최대걸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알게스리 ...

사감의 마음은 흐뭇해졌다. 《황금로》 두병은 보
자기에 싸서 옆구리에 단단히 졌다.

사감은 저기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변하고 수천년
을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욕망은 있어도 감히 넘을
못내던 저 감탕관이 《감탕벌》로 변하여 황금파도
설레이는 그날을 생각노라니 저도 모를 새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고마움에, 감사에 겨워... 그저 꿈만 같아서...

와도에서

어머니

김명익

가물거리는 등잔불앞에서 너인은 치마를 곱고 있었다. 밖에서는 맵쌀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며 사납게 울부짖었다. 굳게 달아맨 솜을대문은 견디기 어려운듯 몸부림을 치며 연신 덜커덩거렸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두손을 가슴우에 웅송그리며 겁먹은 눈길을 조심히 두리번거렸다. 그러면 캄캄한 창문이 당장 그를 집어삼킬듯 등뒤에서 노려보는것이였다. 황황히 눈길을 돌리느라면 이번에는 반쯤 열린 사이 문틈으로 잠든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어스레한 등불아래 안겨왔다. 순덕은 금시 울음이 터져나올듯 입귀가 실그려졌으나 간신히 참아내며 복받치는 설음을 목안으로 넘겼다. 그대신 치마자락을 집던 손등으로 이슬방울이 후두두 떨어져서 부서졌다. 그러자 선풍한 그 무엇이 번개처럼 순덕이 가슴한가운데를 지지며 지나갔다.… 참으로 소리없는 울음이란 그만큼 마른 가슴을 아프게 긁어내리는것이였다.

순덕은 다만 가슴속으로 흐느끼며 모든것을 잊으려듯 살그머니 눈을 감았으나 덜커덩거리는 대문소리만은 막을길 없었다. 당장 그 누구인가 대문을 짓부시며 달려들어 그에게 남아있는 깨어진 행복의 마지막 조각마저 깡그리 쓸어 갈것만 같았다. 아직 먹줄이 생생히 남아있는 정교하게 무어진 저 대문, 그리로 얼마나 많은 행복한 나날이 흘러들어왔던가...

절름발이 차목수라면 라덕면사람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남편은 일생을 남을 위하여 집을 짓고 문을 짚었다. 그러던중 어느해 지주집에서 일을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졌었다. 하여 남은것은 부러진 다리와 가난과 멸시뿐이였다.

해방이 되어 공화국정권은 그에게 인생의 권리와 자유를 주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난생처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였다. 차목수는 그러한 정권을 위하여 땀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집을 지어주는 차목수는 떠받들려 살았으며 주눅이 들고 시들었던 그의 안해 순덕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다. 찌그러지고 고삭은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쌍대문이 켜 열린 새 집으로 이사오던 날 온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은 미제침략군이 마을을 강점한 그날부터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남으로 쫓겨갔던 지주아들놈이 《치안대장》 완장을 끼고 미군장교놈과 함께 대문을 들부시며 들이닥쳤다. 놈들은 남편이 《치안대》 건물을 보수하라는 자기들

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차고 짓밟으면서 온갖 행패질을 다 해댔었다. 놈들의 못매질에 남편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나 그날밤으로 자리를 차고일어나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골방에 숨어서 뭔가 쓰고 그리고 하였다. 매일밤을 이렇게 지새우곤하는 남편은 또 삼일이 멀다하게 어디론가 갔다가는 온몸에 흰서리를 폭 쓰고 돌아 오곤하였다. 그때마다 순덕이는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손에 땀을 쥐여짜며 남편을 기다리곤하였던가?… 그런데 얼마전 밤도와 갔다올 급한 일이 있다면서 떠나간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던 《치안대》놈들의 말을 들으면 구봉산 유격대와 내통했기에 총살했다고 하는데 남편앞에서 아직까지도 얼굴 한번 들고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순정이니만치 그 사연을 알길 없었다.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믿어지지 않았으며 꿈만 같았다. 이제라도 목수통을 멘 남편이 대문안으로 들어설것만 같았다. 생때같은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시어머니의 슬픔은 그보다 더하였다. 아들이 놈들의 손에 죽었다는것을 안 어머니는 매일처럼 《치안대장》놈을 찾아갔다.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네놈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아들이 밀어낸 대패밥을 무저놓는다면 저 술미산 보다 더 높을텐데 무슨 죄로 죽여. 네놈들때문에 다리 병신이 된것만 해도 원통한데 내 아들을 감히 어쨌느냐. 우리 인철이 애비를 내놔라!》

그러나 놈들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시체마저 돌려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낮이고 밤이고 며칠이고 술미산과 원포강기슭을 찾아헤매였다. …순덕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큰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어머니는 30년도 더 전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도 유명한 목수였다. 그는 잘사는놈들이 터를 잡은 물 좋고 경치좋은곳에 끌려다니며 별장을 짓고 유흥장을 세웠다. 그러다가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 지는 대들보에 치워 숨지고말았다…미래와 차목수는 그때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목수도구들을 영영 꺼내지 않으려는듯 농작물에 깊숙이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유복자가 커서 자랄 때에도 그것을 내어놓지 않았다. 그랬으나 이상하게도 아들은 어릴적부터 나무를 다듬어 물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샅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남의 집 방문을 해달고있는 아들을 보았다. 살

창까지 여미고 알뜰하게 무어진 문은 어른 들 숨쉴 째떡먹었다.

《아니 이걸 네 손으로 만들었느냐?!》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대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들의 손에 들린 조막도끼에 눈이 가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어렸던 웃음은 삽시에 사라 졌다.

《안돼, 그만되라. 이 노릇을 하라고 누가 시키던. 응... 절대.》

어머니는 마치 그 누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 가길라도 하듯 아들의 애드르한 어깨를 덥석 잡아끌었다.

《어머니, 놓으세요. 저 인젠 저도 이만큼 컸는데 계속 어머니 치마자락에만 붙어살수야 없잖아요.》

아들은 히죽히 웃으며 옷섶에 묻은 대패밥오리를 털어내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엔 언제 스배어나왔는지 뜨거운것이 쏟아져내렸다. 이지러진 입가에는 흐느낌과 함께 꺼질듯한 한숨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쥐고 응석부리는듯한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어머니, 이젠 아버지의 목수도구를 저에게 내 놔줘요. 어머니가 남의 집 샅일을 하는것을 차마 볼수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기나긴 세월 어머니는 연약한 어깨에 목수통을 메고 품팔이를 나선 아들을 일터마다 따라다니며 멀리서 지켜보곤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참, 신통하군그래. 꼭 제 아버지숨씨라니까!》

이때마다 어머니는 묵묵히 가슴속으로 눈물을 씹어삼켰다. 일을 끝마치고 저녁에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절히 말하곤했다.

《애야, 난 세상에 너 하나만을 믿구 사는데 이 예미 말을 좀 들어주렴... 아무렴, 목수일 아니라고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니...》

아들은 낮을 쫓그리였다.

《걱정할건 없어요 어머니, 그러구 일하는데 어머니가 지켜서 있으니 속이 더 떨려요. 다시는 일터에 오시지 않겠다는걸 약속해줘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일터를 더는 찾아다니지 않았다. 그대신 온종일 문밖에 서서 멀리 동구밖을 지켜보곤하였다. 그런 아들이 끝내 절름발이신세가 되어 돌아온것이 아니었던가...

해방이 되었다. 마을에서 인민위원회청사를 지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꼭두새벽부터 깊이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자, 빨리 일어나 나가야지, 장군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 잘 지어야 한다.》하고 재촉하여 깨우곤하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머니는 아들의 작업장을 아침저녁으로 찾아갔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겨 말하곤했었다.

《글쎄 좀 보라니까요. 집이 얼마나 열썩해요. 우리 인철 애비 숨씨라고.》

어머니는 세상에 제 아들이 하는 일처럼 훌륭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는 아들이 다루는 목수도구를 손수 정히 간수하였으며 대패며 끌이며 톱들을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곧 아들이 하는 훌륭한 일에 대한 사랑으로 번져졌으며 이것은 녀인의 더 없는 행복이었다...하기에 아들과 행복을 한낱한시에 다같이 도록을 당한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살을 에이는듯한 눈바람속에서도 아들을 찾아 흰치마자락을 흘날리며 정처없이 헤매이던 어머니는 원포강 다리밑에서 자기가 세운 다리기둥을 영원히 지켜가려는듯 두손으로 싸쥐고 숨이 진 아들의 시체를 끝끝내 찾아내었다. 남모르게 술미산골안에 묻고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얼어든 몸도 녹일새 없이 깊이 잠든 손자의 머리맡에 앉은 어머니는 잠결에 이불밖에 내민 발그레한 손자의 손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소리없는 눈물은 제법 제 아버지를 닮아 곱실 곱실한 손자의 머리칼을 푹 적셔놓았다.

《자, 이젠 모두 눈물을 거두자 ...인철이가 깰라. 온 하루 놀음에 지쳐 굶아떨어졌는데... 우리 기둥같이 ...》

어머니는 울리미는 설음을 참느라고 꺾꺾하며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불쌍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손자 인철이에게 덧가해졌다. 그는 손자를 자기 곁에서 단 한걸음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열한살 먹은 인철은 진종일 할머니 치마폭에 감싸여있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순덕이까지 걸고들며 야단복달이였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도 따르지 못했다. 순덕은 자신도 어머니 이면서도 매양 그것을 느끼고있었다.

이 밤도 순덕은 희미한 등잔불아래서 잠든 어머니의 시름겨운 정상을 보느라니 가슴이 미여져오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보라는 더욱 기승스레 대문을 덜커덩거렸다. 순덕은 가물거리는 등잔불앞에서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킁킁한 창문은 등뒤에서 그를 음흉스레 노려 보고있었다.

이때였다. 바깥에서 가만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광풍에 시달리며 덜커덩대는 문소리와 완전히 구별되었으며 매우 규칙적이여서 마치 사람이 속삭이는듯싶었다.

똑똑, 똑똑똑...

그 소리에 순덕은 온몸이 오싹하였다. 찬 소름이 등골을 타고 지나갔다. 그것은 분명 귀에 익은 소리였다. 남편이 잡혀가기 전날밤에도 문두드리는 소리가 저렇게 들리였다. 남편은 저 소리만 들리면 아닌

밤중에도 뛰어나갔으며 사랑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나갔다가는 새벽녘에야 돌아왔었다.

《여보, 무슨 영문인지 말해요. 밤마다 어딜 다녀와요?...》

뜬눈으로 기다렸던 순덕은 온몸이 얼어든 남편의 손을 매만지며 묻곤 하였다.

《...안동네 첫째아버지도 잡혀갔대요. 놈들이 누구인들 가리겠나요.》

남편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쓸어줄 뿐이었다.

순덕은 참지 못하고 이 일을 죄다 어머니에게 귀띔했었다. 그러자 아들의 일이라면 끔찍 죽는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남정들이 하는 일인데 별게 있겠느냐...》

그랬으나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낮모를 사람이 찾아오면 온밤 대문밖에 몸을 숨기고 경계 개짓는 마을길을 살피며 마음조이고 서있었다.

꽤 여러날이 지나서 남편은 그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없어도 그가 오면 문을 열어주요. 구봉산 유격대로 보낼 소식을 가져온 연락원ियो... 또 다시 노예로 되지 않으려면 미국놈들을 빨리 몰아내고 공화국정권을 지켜야 하오.》...

여기까지 생각한 순덕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 썩하는 무서운 소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삼켜버렸다. 불현듯 승냥이 같은 눈길을 회번덕거리던 미국고문관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치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듯 온몸이 삽시에 굳어진 그는 제자리에서 서서 어쩔 줄 몰라했다.

대문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던 눈보라가 물리나자 문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다.

똑똑, 똑똑똑

순덕은 부지중 등잔불을 입으로 혹 붙여 꺾다... 잠든 어머니와 아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마음을 수습한 그는 반나마 굳어진 발을 내디디며 방을 나섰다.

《누구세요?...》

순덕은 떨리는 심장을 대문기둥에 꼭 대었다.

《저, 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전에 댁에서 부탁했기에...》

웅글은 목소리가 대문밖에서 대답했다.

아, 그이구나 연락원이야... 어찌면 좋아... 순덕은 가슴을 그러쥐며 숨소리를 멈추었다. 그리고 무겁게 닫겨진 빗장을 열핏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손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순덕은 그것이 천리인 것처럼 멀어 보이기도 했다.

《...혹시 자폭수백이 아니신지요...》

웅글은 목소리가 다시 나직이 속삭였다.

순덕은 또다시 망설이었다. 그러나 이때 그 무슨 힘이 그를 밀어내는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빗장을 와락 뽑았다. 그러자 눈가루를 들썩 시켜면 사람이 찬바람을 풍기며 대문안으로 성큼 들어 섰다.

문짝뒤로 물러섰던 순덕은 재빨리 빗장을 질렀다.

《아니 차동무는 어데 갔습니까?》

《.....》

순덕은 흐느낌소리를 들며마시며 얼굴을 숙이었다.

《아니 그럼...?!》...

전후 사연을 다 들은 굴장사는 굴지계를 봉당에 세우고 담배 한대를 다 태울 때까지 말이 없었다.

《...뚫박입니다. 놈들이 그렇게 빨리 손을 쓰다니... 차동무는 혁명의 지조를 지켜 잘 싸웠을 것입니다. ...아주머니, 마음을 굳세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곧 돌아옵니다.》

순덕은 설음을 삼키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굴장사는 위로의 말을 남기고 떠날 차비를 했다. 순덕은 무참거렸다.

《아니 저 무슨 일때문에 오셨겠는지요... 혹시...》

순덕은 그때 자기가 어떤 마음의 충격으로 하여 떠나려는 연락원을 붙들어 세웠는지 꽤 후날에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남편이 있었다면 그와 온 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디론가 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왔으리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달리는 행동할 수 없게 했었다.

《...사실은 원포강건너 대장간집할아버지에게 급히 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 (순덕은 머뭇거렸다.) 그런데 제가 대신할 수 없을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렇지만 안됩니다. 놈들이 구봉산과 통하는 외통길인 원포강다리에 여간 경계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아주머니에겐 놈들이 눈독을 들이고있을텐데요.》

두사람은 다같이 잠시 말이 없었다.

(혹시 애들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더듬던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쑥 인철이를 짚어보던 순덕은 전기에 감전된 듯 흠뻑했다. 저도 몰래 어머니가 쉬는 방문을 넘겨 다보는 그는 머리를 저었다. 무슨 새빠진 생각이람. 그 애를 건드리다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연락원은 지계를 지고 일어섰다. 그러자 순덕은 또다시 남편이 생각되었으며 떠나간 그에게 용서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같았다.

《...저말예요... 애아버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면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는 인철이도

있으니까요…» 불현듯 말하고난 너인은 심장의 한 부분을 떼어 내는듯한 강한 아픔을 감촉하였다.

《네?! 그야 차동무가 남기고 간 하나밖에 없는…》

《글쎄 그렇지요만… 그애 아버지도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거예요.》

너인은 울먹이었다.

오래도록 생각하던 련락원은 천천히 지계를 다시 내려놓았다.

………

련락원은 떠나갔다. 순덕은 그가 주고 간 련락 쪽지와 암호에 대하여 곱씹어 생각하며 긴장한 마음으로 대문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이제는 어둠도 눈보라도 아까처럼 무섭지 않았다. 공포심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너인의 가슴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문가에서 걸음을 옮기려는 그러한 순간에 순덕은 무릎 서버렸다. 어둠된 방안에 등불이 켜져있었으며 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 어머니는 언제 일어나셨을가… 혹시 이 일을 아신다면 나무라실거야. 남정들의 일에 주책없이 참견이라구. 그리고 인철이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면 펄쩍 놀라실거야. 지금 오직 그 애에게 모든 희망을 의탁하고 살아가시는 어머니가 아닌가?… 만일 그 어떤 위험이라도… 아니! 차라리 말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편이 나을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내가 어머니를 속이다니…

정녕 순덕이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철부지때 부모 잃고 인정이란 모르고 떠돌아다니며 살아온 그였다. 세상에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도 시집이었으며 부모의 사랑과 정을 받아본것도 시어머니에게서였다. 어머니는 그의 정다운 사랑의 품이었으며 마음의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이를 속이 다니… 그런데 만일 허락치 않는다면 어쩔가? … 어찌자고 나는 인철이 말을 선뜻 꺼냈을가. 아니 그걸 후회할건 없어. 인철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그건 잘한 일이야… 그의 귀전엔 《공화국정권을 지켜야 하오.》하던 남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방불히 울려왔다.

착잡한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서던 순덕은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또다시 가슴이 뻑 맞질리웠다. 어머니는 언짢을 때면 건기침을 긁곤했었다. 허리를 다소곳하고 방문으로 들어선 그는 머리에 쓴 목도리를 조용히 벗어 걸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등불을 돌고있었다.

《애 에미야 밖에 누가 왔댔느냐?》

《………》

순덕은 머뭇거렸다. 어머니가 그의 얼굴을 넌지시 건너다보았다.

《무언지 말을 하려마. 이런 때일수록 속에 숨기는 일이 있으면 안되느니라.》

순덕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솔직하게 말해버려야지 그편이 나아, 나아… 그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뇌이는것이였으나 실지로로는 다르게 말을 하였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어머니…》

그리고 순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겁게 눈길을 내리운 어머니는 순덕이가 집다가만 치마를 이윽히 매만지다가 코물을 훔치고나서 인철이를 끼고 자리에 누웠다.

순덕은 눈물이 콧 내솟았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저는 달리는 말할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모르고있는것이 마음 편할거예요. 후날에 저는 죄다 용서를 받을거예요. 어머니도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줄을 알게 되시면…)

그는 바느질감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등잔불앞에 앉았으나 더는 한뜸도 누벼갈수 없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아우성치고 대문은 피로운듯 온밤 덜컹덜컹 거렸다…

눈보라는 이튿날 오후에야 멎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화로불을 무드기 퍼담아다놓고 자기 무릎을 베고누워 두눈만 또록또록 굴리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올려다보는 인철이의 뒤 잔등을 또닥거리며 무슨 이야긴지를 재미나게 하고있었다.

순덕은 어머니 모르게 인철이 떠나보낼 준비를 갖췄다.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럴듯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그는 남편이 쓰던 낡은 도구함을 뒤지여 무디고 녹이 쓴 도끼를 꺼냈다. 이것이면 어머니에게도 핑계대 말이 있었다. 그리고 도끼를 책보에 둘둘 말아 어깨에 걸친다면 누군들 믿지 않을텐가.

《그 목동은 그렇게 용맹했기에 범을 잡고 어머니에게 약초를 캐울수 있었단다. 응…》

문틈으로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이 도간도간 들려왔다.

저녁녘에는 마침 날씨도 푸근해졌다. 순덕은 길 떠나보낼 차비를 다 갖춘 자그마한 보통이를 치마섶에 감추고서서 문앞 찌리단옆으로 인철이를 조용히 불러내었다.

그런데 언제 따라 나왔는지 뒤따라나선 시어머니가 돌연히 인철이 팔목을 이끌고 어디 갈 차비를 하는 것이었다.

《내 얼핏 다녀올데가 있어 그런다.》

순덕은 난처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혼자 다녀오시면 안돼요. 어머니?》

《왜?…》

《대장간집엘 좀 보내려구요. 겨우내 나무를 해대자면 막도끼가 있어야겠기에…》

《대장간집이라구?!》

시 어머니는 쏘아보듯 순덕이를 바라다보았다.

《갑자기 도끼는 웬 도끼란말이나… 그러구 놈들이 구봉산과 내통하는 사람을 잡겠다구 눈에 쌍심지를 달고 날치는데 어딜 함부로 내보내겠다는거냐.》

시 어머니는 단마디로 잘라 말했다.

《어머니, 그런게 아니예요 글썄…》

순덕은 따라서며 인철이 팔을 붙잡았다.

《뭐가 아니라는거냐, 이같은 세월엔 백번 생각하고 한번 움직여야 하는거야, 자식을 둔 어머니란 그래야지… 난 그러지를 못했단만…》

《어머니 …》

《글썄 안돼. 애েম이는 그래 원포강다리목이 어떤 판국인지 알거나 하나. 그래가지구도 당장 떠나 보낸다구?!》

어머니는 인철이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어머니!…》

발을 걸채이며 따라가던 순덕은 멀어져가는 시 어머니모습을 야속히 바라보며 대문가에 기대여섰다. 어쩌면 저러실가. 나도 어머니이고 외로운 몸이다. 나도 인철이를 내놓고는 한순간도 못산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듯이 말하다니… 애아버지때는 남정들 일에 참견말라 꾸짖더니 이번에는 체신머리없다고 책망하니 어머니마저 이러신다면 난 누구를 믿고 험난한 이 세상 풍파를 헤쳐간단말인가. 좋아요. 정 그러신다면 제가 해요. 제 한몸이 죽는다 해도… 인철이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미제놈을 몰아 내고 인민군대를 맞이하는 일만 해낸다면…

순덕이 결연히 고개를 쳐드는데 담장너머에서 갑자기 자지러진 총성이 울리었다.

따궁…따궁…

그리고 어지러운 군화소리가 뒤를 이었다.

순덕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담장에 다가붙었다.

다행히도 어머니와 인철이가 간쪽은 아니었다. 총성도 군화발자국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랬으나 마음은 좀체로 진정되지 않았다. 혹시 놈들의 경계가 더욱 심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보면 원포강다리목이 어떤 판국인지 알거나 하느냐고 하던 어머니 말도 스쳐보낼것이 아닐상 싶었다.

서둘러 지계를 걸머진 순덕은 황황히 집을 나섰다. 순덕은 눈덮인 솔미산기슭을 타며 원포강다리 목을 살폈다. 소달구지며 자동차들까지도 번번이 다니던 신작로길우에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군용트럭이 이따만큼씩 눈보라를 말아올리며 지나갔다. 다

리목에는 판자로 지은 《검문소》가 세워져 있었는데 간혹 지나는 행인들은 한동안 검속을 당하곤 했다. (…저대로는 재미도 새어들기 어렵겠구나.)

여름같으면 벌써 팔팔 흐르는 강물소리가 길가는 행인들을 땀들이라 부를것이나 지금은 찡찡 얼어붙은 정적만 깃들었을뿐이다. 순덕이는 그 다리를 보는 순간 먼길에 달려오느라 힘차게 오르내리던 봉긋한 가슴이 줄지에 콕 얼어들었다. 달아 오르는 목젓 밑으로는 무엇인가 울컥 울리밀더니 때아닌 장마비인양 맑은 눈물이 진때물은 저고리 앞섶을 푹 적셔 놓았다.

(아, 원포강다리! 애아버지가 마을사람들과 같이 련석달을 밤낮없이 만들어놓던 다리. 그 다리를 처음 개통하던 날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한일을 장하게 여기는듯 팔각으로 맵시나게 깎아서 기름을 반짝 반짝 나게 바른 다리목 판간을 정답게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음짓던 남편에게 명절차림을 한 온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치하를 보냈던가. 한 생을 이 강에서 나루배사공으로 늙어온 칠성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까지 추면서 《여보게 차목수, 세상에 이보다도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나. 인젠 비가 오나 물사태가 터지나 상관없이 이 덩실한 다리로 척 걸어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게 됐네, 응.》 하고 노래가락도 아닌 노래를 불렀었다.

그때로부터 이 다리를 건너 이곳 사람들은 해방된 기쁨을 안고 군소재지인 룡담읍 장거리로 즐겨 다녔고 봄이면 바구니를 옆에 낀 처녀들이 구봉산으로 산나물 캐러도 즐겨다녔다. … 뽕- 뽕. 갑자기 들려오는 자동차의 급정거 제동소리에 순덕의 즐겁던 어제의 추억은 휘말려 흘러가는 회파람에 싸여 종적을 감추었다.

철컹하는 문소리와 함께 열려진 차문으로 번들거리는 철갑모가 쑥 내밀었다. 무언가 씨부렁거리는 미군 운전사놈과 마을사람들 앞에서는 개잡은 포수같이 거들먹거리다가도 코큰놈앞에서는 발바리새끼처럼 곱살거리는 피뢰군 보초병놈이 보였다.

다시 문이 절걱 닫기더니 뽕안 흙먼지에 더러운 눈가루를 휘뿌리며 차는 급히 떠났다. 그통에 다리까지 움썹거리는것만 같아 순덕이는 저도 몰래 두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개놈들! 바로 네놈들이 이 다리를 지켜싸운 내 남편을 빼앗아 갔고 지금은 이 다리까지 없애려고 미쳐날뛰고있지.)

순덕이의 귀전에 연락원이 들려주던 가슴뜨거운 사연이 다시 조용히 들려왔다.

…순덕의 남편은 바로 당의 지시로 적후에 남아 놈들의 적정을 구봉산에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희생되기 전날 유격대의 지시로 멀지 않아 쫓겨나게 된

놈들의 동태를 엄밀히 감시하던 남편은 놈들이 퇴각하기 전에 다리를 폭탈하여 아군의 진격로를 막으려 한다는 소식을 알아내었다.

지어진 현실은 엄중하였다. 빨리 이 사실을 유격대에 알려야만 추격시간을 앞당기여 놈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아군의 진격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그런데 산의 연락원이 올 날자는 며칠 더 남아 있었다. 하여 그의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구봉산에 급한 정보를 알렸으며 돌아오는길에 그만 적의 추격을 받아 희생되었을것이다.

수령님께서 주신 이 땅이 버젓이 세운 그 다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저주로운 총알이 그 몸에 박힌채 억수되어 쏘아지는 피로 찡찡 얼어붙은 저 원포강의 얼음을 녹이며 다리밑에까지 기여와 그 기둥을 한아름에 불안고 숨졌으랴...

젖어오는 두눈을 들어 다리밑 기둥을 더듬던 수덕이는 남편의 붉은 피로 물든 그 나무기둥이 방불히 눈앞에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순덕은 온몸의 피가 꺼꾸로 올려쫓구치는것만 같아 옆의 앙상한 느릅나무를 거머잡았다.

《야,이놈 썩 못물러갈가. 영.》

계사니처럼 꺾꺾 울리는 보초병의 고탈소리가 바람결에 순덕의 귀전까지 들려왔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서있담. 그렇게 큰일을 앞에 두고.)

정신이 펄쩍 든 순덕은 두눈을 부릅뜨고 걸음을 재촉했다.

《여보, 안심하세요. 당신이 다 못한 일은 내가. 아니, 당신의 아들이 꼭 해낼거예요.》

순덕은 마치 남편이 옆에 있더라도 하듯 조용히 되뇌었다.

등걸덩이를 몇개 해치고 돌아오면서 순덕은 마음이 초조하였다. 중요하고 긴급한 연락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르치기 라도 한다면 어찌라싶었다.

깊어지는 생각속에 마을로 돌아오던 순덕은 면인민위원회가 자리잡았던 마당가, 정자나무아래에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선것을 보았다. 면인민위원회 간판대신에 《반공협회》라는 간판이 붙은후로는 그리로 얼굴조차 돌리지 않던 그였다. 그랬는데 정자나무기둥에서 시허연 광고장을 눈에 띄워 본 순덕은 미심결에 술그니 다가갔다. 라덕면주둔 미제침략군 장교놈의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였다.

《...본관은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널리 도모하여 일시 엄금되었던 룡당읍장길을 허락한다. 통행자들은 <반공협회>가 발급하는 통행증명서를 지참할것이다...》

광고문에는 마치 이것이 《자유세계》의 《너그러운 배려》인듯 씌여져있었다.

《흥, 얼러보자는 수작이지 <자유세계>의 <배려>라구?...》

한 아낙네가 이죽거리자 비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뻔하지. 증명서는 저들이 신임하는 놈들만 떼줄테니...》

《여하튼 애들이라도 장엘 보내야겠어요. 석유마저 떨어졌으니 긴긴 겨울밤 까막나라라니까...》

순덕은 그 어떤 한가닥 희망을 품으며 집으로 달려왔다.

언제 돌아왔는지 어머니는 아궁에 불을 지피며 인철이의 젖은 버선과 신발을 말리우고있었다. 아궁의 불빛에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이 번들거렸다.

《어머니, 소문을 못들었어요? 매일부터 막혔던 장길이 열린다나요...》

어머니는 못들었는지 아궁에 불만 돋구고있었다. 이윽고 나직이 한숨을 내신 어머니는 불 달린 부지깥이를 재속에 꺼버렸다.

《정 그래야 할 일이라면 막지는 않겠지만 매사에 주의를 해라. 우리야 다 산 몸이니 아까울것이 없다면 인철이는 그렇지 않아. 제 애비 원수를 톡톡히 갚도록 해야지...》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쓸어 올리며 어머니는 쓸쓸히 말했다.

《제가 왜 그걸 잊겠나요. 어머니...》

순덕은 자기의 심중을 어머니앞에 다 터놓고싶은 충동을 겨우 참으며 서둘러 저녁동자손을 잡았다...

초겨울의 한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앞에서 순덕은 인철이의 버선을 깎고있었다. 버선목에는 대장간집 할아버지에게 전할 연락쪽지가 깊숙이 감추어져있었다.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하였다. 캄캄한 창문이 또 등잔불앞에 앉아있는 순덕을 노려보고있었다. 어스레한 불빛아래서 인철이가 쉼쉼 잠이 들었다. 그옆에는 어머니가 손자를 꼭 그러안고 누웠다. 뒤치락거리기도 하고 한숨 소리도 들리는듯하다. 잠들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이 헤아려지며 순덕은 눈곱이 뜨겨워졌다. 그러자 그는 아까 저녁을 지을 때 인철이가 따라나와 귀속말로 묻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엄마, 이제 봄이 오면 울아버지산에 잔디를 많이 심자요. 그래야 눈이 와도 춥지 않아요.》

채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을 때처럼 순덕은 섬찍하였다.

《인철아, 너 갑자기 무슨 말이나, 낮에 할머니와 함께 어디 갔었니?》

《아버지산에요… 할머니와 같이 묘지의 눈을 깨끗이 쓸었어요. 풀이 한대도 없었어요.》

《인철아!…》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봄이 와서 따뜻한 해빛에 땅이 녹으면 엄마와 내가 저 구룡산에 가서 천암바위우의 푸른 잔디를 뜯어오래요. 그래 엄마와 함께 아빠가 잠자는 저 묘지에 콩콩 심어주래요. 엄마, 꼭 가자요, 네.》

순덕은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젖은 손으로 인철이 얼굴을 가슴에 그려안았다. 인철이도 클쩍거렸다.

《엄마, 울지 말아요. 용감해야 원썬들 갓을 수 있다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 꼭 가자. 네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순덕은 말을 다 맺지 못하고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다.

《엄마, 비밀이에요 응.》

불현듯 인철이가 두눈이 울롱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순덕의 귀가에 대고 속삭거렸다.

《이젠 사람들앞에서 우리 할머니보고 할머니라고 하면 안된대요. 나쁜놈들이 잡아간대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순덕은 놀라며 다우쳐물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할머니와 약속까지 했는데뉘.》

《아니 그럴리 없다. 그렇게 좋은분을 왜 할머니라고 안하겠니.》

철없는 어린것의 말이지만 순덕은 펄쩍 성까지 낼 번하였었다…

잠든 어머니와 아들을 보며 순덕은 하많은 생각속에 지루하고 답답한 겨울밤을 지새우고있었다. 먼 어데서 인가 새벽닭이 울었다. 여기저기서 닭들이런이여 뉘를 치며 목청을 돋구었다.

드디어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어느새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이날까지 새벽동자를 잡아본적이 없는 어머니였다. 순덕은 인차 뒤따라나갔다.

《애에미야, 오늘은 내가 밥을 좀 지어보자꾸나. 인철이도 먼길을 떠난다는데…》

이 말에 순덕은 목이 또 껍 막혔다.

어머니는 깊이 간수해두었던 팔로 밥을 짓고 어디서 구했는지 조기도 한마리 구웠다. 아들과 손자가 다같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때까지도 인철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있었다.

《오늘은 실컷 늦잠을 자게 내버려둬라…》

어머니는 이러며 잠든 손자의 이불깃을 꼭꼭 여며주었다. 그리고는 어느날없이 갓저고리를 꺼내 입는 것이었다. 공화국창건기념일날에 아들이 상으로 받

아온 천으로 지어드린 옷이었다. 밤색비단천인데다 양털까지 받쳐서 보기도 좋고 훈훈하다고 귀한 나들이때만 아껴 입었었다.

《기다리지 말아. …어깨골친척집에랑 다녀오려다.》

어머니는 문을 나서며 남모르게 눈굽을 닦았다.

밖에서는 보슬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순덕은 말없이 그를 바라였다. 그 험악한 길에 귀여운 손자를 떠나보내는것을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어 자리를 피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덕의 가슴은 칼로 찌르는듯 아팠다.…”

보슬눈은 길동무인양 인철이가 걸어가는 신작로길우에도 내리고있었다. 놈들이 《박애》를 베풀어 열어놓은 첫장길에는 장군들이 별반 없었다. 태반이 아이들이었다. 닭이나 닭알꾸레미를 들고 기름병들을 당태기에 넣었다.

인철이를 먼발치에 앞세우고 걸어오던 순덕은 솔미산기슭으로 길을 질렀다. 원포강다리목이 반드러미 내려다보이는곳에 지계를 벗어놓은 그는 눈을 하얗게 이고 선 소나무아래 몸을 숨겼다.

인철이가 아이들속에 섞이여 걸어오고있었다. 어느 때라던 이런 길을 더없이 즐거운 려행으로 여겼을 애들이었으나 모두 어른들처럼 울적한 기분들이었다.

다리목 《검문소》에서는 두놈의 미국놈병사가 통행 증명서를 검열하고있었다. 《치안대장》놈은 그옆에서 뱀새눈을 하고 장군들의 거동을 살피고있었다. 제눈에 걸리면 통행증이고 뉘고 몸수색을 했다.

아이들도 검문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어른들처럼 통행증이 없기때문에 대체로 수상한 애들만 붙들려 몇마디 물음을 당했다. 그러나 뱀새눈은 아이들에 대하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적고양이처럼 살살이 살폈다.

무리져 물려온 한패거리 아이들이 한줄로 서서 검문소앞을 지나고있었다. 인철이도 그들속에 있었다. 순덕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키가 날씬한 인철이가 영민한 눈길을 곳곳이 세우고 태연히 걷는다… 이제 다섯발자국이면 《검문소》를 무사히 지나 다리에 들어서게 된다. 순덕은 소나무 기둥을 살그니 잡으며 허리를 반쯤 일으켰다. … 이러한 순간이었다. 《치안대장》놈의 우악스러운 손이 인철이 옷깃을 나꾸어챘다…

(아??…)

입속으로 부르짖으며 순덕은 소나무를 와락 부여안았다. 하얀 눈가루가 와스스하고 그의 머리우로 쏟아져내렸다.

《넌 도대체 어디 사는 놈이냐?》

뱀새눈이 껍 소래기를 쳤다.
《미울면에 살아요. 장에 가서 닭알을 팔아가지고 도끼를 버려오랬어요.》

《음, 요놈이 눈알 돌아 가는걸 보니 아무래도 수상해. 제대도 말 안하면 죽어버릴테다!》

그놈은 권총을 뽑아 들고 쏘는 시늉을 했다.

순덕은 부여안았던 소나무를 와락 밀쳐 버리고 기슭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놈들이 만일 인철이를 어쩐다면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뿐 다른것에 대하여서는 가뭇 잊고있었다. 얼어지며 미끄러지며 열겉음도 채 못간 순덕은 너무나도 뜻밖의 다른 하나의 광경앞에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렸다. 시어머니가 다리목에 나타난것이였다!

장군들속에 섞이여 다리목쪽을 연신 기웃거리며 걸어오던 어머니는 인철이가 다닥질을 받는것을 발견했는지 치마폭을 걸어잡고 비치락거리며 달려가는것이였다.

순덕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인젠 영악없이 인철이와 어머니는 놈들의 손안에 든셈이였다. 순덕이로 하여금 자기만이라도 남아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이 든것은 비로소 이때였다. 그때문에 순덕은 더 어찌지 못하고 가슴만 쥐어뜯었다. ...

무작정 지나가던 어머니는 대번에 보초놈들에게 걸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말없이 두손으로 총뿌리를 밀어제끼었다.

《로친네는 뭐야. 어델 가는가??》

뱀새눈이 움켜쥐었던 인철이의 옷섶을 놓고 날 췌게 어머니의 팔을 붙들어서왔다.

《어데긴 어데겠소. 장엘 가지유.》

어머니의 음성은 의외로 느리고 침착했다.

《로친은 안돼!》

뱀새눈은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보초선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여보시오, 이렇게 늙은이 박대하는데가 어디 있소. 세상은 열두번 꺼꾸로 되여도 사람은 머리로 걸 어다니질 못해!》

어머니는 준렐했다.

악에 받친 뱀새눈의 《치안대장》놈은 소래기를 쳤다.

《로친은 구봉산엘 가지??》

《구봉산은 무슨 구봉산이요. 장마당엘 간다지 암소.》

《어쨌든 로친은 안돼.》

뱀새눈은 억지를 써대는 어머니의 앞길을 딱 막아섰다.

그러는 사이에 《검문소》에 걸려 우글우글 모여섰던 아이들이 비실비실 흩어져 다리건너로 뺑소니

를 쳤다. 이를 본 뱀새눈은 총뿌리를 돌려대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오라, 요놈의 새끼, 안오면 쏜다. 응.》

뺑-새된 총소리와 함께 순덕은 엎어졌던 눈사태우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다리어귀에선 어머니가 와락 팔을 걷어붙이고 뱀새놈에게 대어들며 웨치는 모습이 보였다.

《안되기는 어째 안된다는거요. ...임자네들의 호강을 위해 왜정때 내 남편이 고생을 하다가 죽은것만도 원통한데 또 아들을 절름발이로 만들더니 뭐가 부족해서 죄없는 내 아들을 죽이고는 시체마저 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젠 이 늙은이까지 팔세 하는거요. 마음대로 하오. 난 가야 하겠소. 장마당엘 가야겠소.》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뱀새눈을 밀어 제치며 걸어갔다.

어정쩡해 서있던 뱀새눈은 뺨처럼 달려들어 어머니의 뒤덜미를 잡아채었다.

어머니는 쓰러질듯이 비칠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그는 불이 황황 이는 눈길로 이윽히 노려보고 섰더니 번개처럼 달려들어 귀뺨을 붙이 었다.

《악!》

뱀새눈은 비명을 길러내며 뒤겉음질치다가 어머니를 눈우에 쓰러뜨리고 악이 나서 발길질을 하여댔다...

갈기갈기 찢기는듯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며 이 모든것을 한눈으로 지켜보는 순덕은 평소에 그처럼 어질고 순박하기만 하던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저런 힘과 용기가 생겼는지 그저 놀랍기만 했다.

복새통에 참새떼모양 다리건너쪽으로 달아나는 아이들의 무리속에 인철이도 끼여있었다. 아, 이제 인철이만이라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건너갔으면... 그런데 웬일인가. 할머니가 쓰러지는것을 보았는지 달려가던 인철이가 뒤로 돌아서서 이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얼마나 할머니를 따르던 인철인가. 할머니가 피땀에 쓰러진것을 보면 인철이는 소리치며 달려올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순덕의 눈앞엔 시어머니와 함께 놈들에게 끌려오는 인철이의 자그마한 몸집이 방불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이와 동시에 피에 주린 놈들에게 추격당하던 남편의 모습도 나타났다.

전번 남편이 전했다는 그 소식에 미루어보면 이번이 런락은 직후에서 싸우는 동무들이 놈들을 소멸할 마지막 계획을 유격대에 전하는것일것이다. 이 쪽지가 전달되어야 다리도 구원되고 놈들이 도망치려는 음모도 파탄될것이며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될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아! 끝장인가? 어쩌면... 그럼 임무는... 미국놈을... 아니, 그 쪽지는 오늘대로 꼭 전해야 한다. 순덕이는 눈앞에 벌어지는 험악한 이 사태를 한몸으로 막아 보려는듯 두팔을 벌리고 허둥지둥 눈길을 뚫아 올랐다.

웬일인가? 순덕이는 다시 주춤 멈춰섰다. 인철이는 이쪽으로 달려오지는 않았다. 다만 주먹으로 눈두덩을 쓱쓱 문대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뺨 돌리고는 달음박질 치는것이였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며 순덕은 인철이의 그러한 행동을 꿈속에서 보는듯싶었다. 아, 그렇다면 그들은 철철같은 약속이 있었던말인가. 어머니가 어린 가슴에 얼마나 큰 의지를 심어주었으면 저리도 장하게 행동할것인가. 그러자 순덕은 척후 연락원이 남편을 찾아오는 때면 슬그머니 나가 온 밤 담장밖에서 사위를 살피보던 일이며 백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해야 한다면서 타산없이 인철이를 떠나보내려는 자기를 타이르던 어머니 모습이 뇌리를 스치였다. 어머니의 웅심깊은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뿐인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심정을 몰라준다고 얼마나 야속해 하였던가.

이 순간 순덕은 가슴에 억센 기둥같은 믿음이 들어앉는것을 느끼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참다운 사랑이란 자식들이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대한 헌신적사랑일 때 고귀한것으로 된다는 진리였다. 순덕은 그러한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것으로 하여 신심이 생겼으며 행복하였다. 그는 표연히 일어섰다. 놈들이 그러한 어머니를 더는 욕되게 할수 없는것이였다.

《어머니!》

허겁지겁 달려간 순덕은 쓰러진 어머니를 와락 그려안았다.

어머니의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은 눈우에 차분히 흩어졌고 포근한 솜덩이같은 눈덩이를 가버이 그려친 두손은 가늘게 떨고있었다. 입전을 따라 흘러내린 선지피는 새하얀 눈우에 방울방울 떨어져 언젠가 아들의 피로 아롱졌던 그 다리기둥에 닿으려는듯 축축히 흘러내린다. 상처의 아픔보다도 한 몸을 불태우며 힘쓴 초긴장이 지난후에 다가온 평온하고 나른한 안정감이 어머니들 따듯이 지배하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는 순덕이가 달려와 머리에 감았던 목도리로 얼굴에서 흐르는 피자욱을 닦아주자 팔굽을 땅에 짚으며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순덕은 눈물로 물을 적시며 여위고 주름많은 어머니의 상반신을 일으켜 가슴에 안았다.

간신히 고개를 쳐든 어머니는 한손으로 흰눈을 떠인 다리란간을 꼭 부여잡고 눈을 쪼프리며 구봉산쪽을 이윽히 지켜보았다. ...흙날리는 보슬눈속을 뚫고 참새떼처럼 달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벌써 저 멀리로 가물가물 사라지고있었다. ...천천히 눈길을 돌린 어머니는 이슬이 고인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미소를 짓는듯 실룩거리는 주름잡힌 그의 얼굴에는 두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보슬눈은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

가사

나의 행복

김병두

이 땅우에 넘치네 나의 기쁨
하늘가에 날으네 나의 희망
아 자애로운 당의 사랑속에
그 언제나 행복이 꽃피나네

로동속에 즐겁네 나의 노래
창문가에 어리네 나의 미소

아 고마운 당의 사랑속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졌네

해빛보다 따사로운 당을 위해
노을처럼 불타네 나의 심장
아 영원토록 보답해가리라
이 한몸을 바쳐가는 나의 행복

《약속》이라는 두 글자안에는 무한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고 많은 내용들이 담긴다.

동지호상간에, 부모처자간에, 조직적분공에 대한 약속이며 시간에 대한 약속, 사적으로, 공적으로, 의리와 의무로 하여 지켜야 할 약속 등 실로 셀수 없이 많다.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과는 달리 지키지 못하는 때도 적지 않다.

그런 때면 상대방은 화를 내며 실속이 없다고 야단친다.

조건과 정황을 설명하면서 구구히 사죄하고 리해시켜야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어겨서는 안되는 약속이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조건과 난관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용서되지 못할, 아니 그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양심의 가책과 피로움에서 헤어나기 못할 그런것이 있다.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약속이다.

그것은 혁명전사의 의리이며 맹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나는 약속때문에 한 직포공처녀를 오해할번 한 일이 있다.

…새해 첫 전투에 출입한 평양종합방직공장은 구내에 들어서자부터 가슴을 부풀게 하는 구호들과 속보들로 나의 눈을 끌었다.

흰눈 모자를 쓴 가로수들을 배경으로 대형구호관들이 공장의 얼굴처럼 환히 눈에 띄었다.

직포종합직장쪽으로 뻗은 넓은 길 량쪽으로 렬을 선 속보관들은 가로수 간격보다 더 촘촘하였다.

나는 흥분을 안고 속보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펴나갔다. 거기엔 지금으로부터 두달전에 나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직포공처녀 송경애의 이름이 꼭 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속보의 제목들은 힘이 있었다.

《월미도의 용사들처럼…》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서 태성묵이처럼…》

제목이 각이한것처럼 그 혁신자들의 이름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한 성과는 오직 하나 자랑높은 한해를 보내고 보다 거창할 새해를 맞은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모두다 15억메터 천고지점령을 위하여 방직공업의 주체화와 방직설비를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한 기술혁신성과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년초부터 일별계획을 초과수행하는 직포공들과 정방공들, 《80년대속도》창조에서 선구자가 되겠다는 새해결의에 충만한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다.

하나 내가 찾는 처녀 송경애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섭섭하였다. 그 직포공처녀 이름이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낸것으로 하여 첫자리에 놓였으리라고 믿었던것이다.

내가 송경애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두달전인 지난해 어느날 평양종합방직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공장에서는 년간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결의모임이 있었다.

혁신자들이 앞다투어 결의다지는 그 모임에서 송경애동무는 수많은 직포공들앞에서 불같은 열정을 안고 결의를 토로한 애어린 처녀였다.

그는 《월미도》의 용사 영옥이가 어버이수령님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아름다운 청춘과 고귀한 삶을 서슴없이 바친 모범을 따라배워 년간계획을 2배로 넘쳐하며 기한전에 15억메터 천고지를 점령하겠다고 결의다졌다.

발그레한 얼굴엔 애된 웃음을 띠우고 단발머리를 앞이마에 다복이 드리운 그는 4년전에 공장에 들어온 올해 22살난 처녀였다. 이를테면 새로 자라나는 직포공이었다. 그러한 그가 년간계획을 곱으로 초과하겠다니 보통일이 아니었다.

나의 관심은 자연히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와 따로 만났다.

흥분으로 상기된 처녀의 얼굴은 어디라없이 복잡하고 사랑스러웠다.

현재까지는 년간계획을 얼마나 했기에 이제 몇달 남지 않은 년말까지 2배로 하겠다고 하는가 하는 나의 물음에 처녀는 수집음을 띠고 대답을 피했다.

《뭘 별로… 전 아직 한일이 없어요.》

《한일이 없다?!》

내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그는 좀 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저 우리 직포공들이 누구나 다 하는것만큼 따라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오늘 그저 결의를 다졌을뿐이에요.》

나는 하는 수없이 화제를 돌렸다.

《그 결의가 꽤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전 아직 기능도 높지 못하고 경험도 많지 못하니깐요. 하지만 꼭 해내겠어요.》

처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이었다.

《만약 그때 가서 기자동지가 다시 오신다면 혹시 이야기할만한 일이 생기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 그때 꼭 다시 오겠어요. 경애동무의 년간총화이야기도 듣고, 새해결의도 들을겸 새해벽두에 오겠어요. 약속하지요?)

약속이라는 말때문인지 처녀는 방금전과는 달리 사뭇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나는 송경애동무의 작업반장을 통해서야 그가 벌써 상반기에 년간계획을 다 수행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기뻐다. 새해벽두에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15억메터 천고지어로 힘차게 뿔아오르는 새세대 로동계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본때있는 보도기사를 쓸수 있기때문이었다. 아직 몇달이 앞에 놓였으나 나는 꼭 훌륭하게 씌여질 기사의 제목을 《약속》이라고 달리라 계획하며 그곳을 떠나왔었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새해의 흥분으로 들끓는 이 공장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 헌데 그렇게 믿었던 송경애의 이름을 이 수많은 숙보들에서 보지 못한것이다.

결의과제를 실행하지 못한것이나 아닌가?... 그게 어떤 결의라구, 물론 나와 약속은 별문제이나...

허지만 모임에서 한 그 결의는 《80년대속도》창조로 들끓는 시대앞에 15억메터천고지를 책임진 직포공으로서의 약속이 아니었던가!

하긴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성과들이 하루에도 수백건일수 있는데 그걸 어찌 다 숙보에 소개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널리 돌려보기로 했다.

어쨌든 어서 빨리 송경애동무를 만나고싶었다.

현장에 들어서자 경쾌하게 울리는 직기소리가 나를 맞아주었다.

푸른 초원의 나비들처럼 화려한 작업복에 꽃수건을 쓴 직포공들이 직기사이를 재치있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겠는가.

마침 교대무렵이어서 나는 그가 인제를 마칠때까지 기다렸다. 취재수첩의 첫장에 씌여진 《약속》이란 제목을 다시 훑어보는 나의 마음은 저이기 조금 해났다. 그도 나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꼭 그의 마음을 헤쳐보리라...

헌데 직장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는동안 뜻밖에도 잠시나마 나의 마음을 괴롭히던 오해는 일시에 풀리고 실망은 기쁨으로 변했다.

방긋 웃으며 나를 맞아주던 직장속보원의 붓끝에서 《지난해 년간계획을 2.1배로 초과수행한 그 기세, 그 충성으로 새해 첫 전투에서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한 송경애동무를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반가운 사연이 씌여지고있지 않는가.

송경애동무가 시간당 생산량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했다는것이다.

나는 더없는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을 진정하며 몇분후에 씌여질 보도기사의 체계를 머리속에 세우기 시작했다.

《안됐어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

조용한 부름소리에 머리를 돌린 나는 문가에 서있는 그를 보았다.

그런데 그 자란 찬 성과와는 달리 내앞에 나타난 그는 여전히 미안함이 한껏 어린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자기의 생산성과가 직기의 고장을 미리 막아주느라 애쓴 수리공들과 직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해준 기술자들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다고 안타까와하며 《정말 제가 일을 쓰게 못하여 안됐어요. 새해엔...》라고 되뇌이는것이였다.

《그러니까 동무는 오늘도 여전히 한 일이 없으니 나하고 한 약속은 또 다음으로 미루어야 한다는거겠지요.》

웃음띤 내 말에 그는 미안한듯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들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80년대속도>창조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의 요구에 비해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언제나 불붙듯합니다. 15억메터 천고지까지 가자면 아직 얼마나 먼길을 걸어야 합니까...》

나는 처녀의 표정에서 15억메터 천고지를 딛고 올라서기전에는 한시도 마음놓을수 없으며 무엇을 얼마나 했다고 말할수도 없다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아, 이것이 바로 시대앞에 다진 아름다운 약속을 힘차게 실행해나가는 한 방직공의 립장과 자세가 아닌가!

《허허, 그 처녀는 계획을 3배 더 했더라도 한일이 없다고 말할것입니다. 허허.》 방금 들어서던 커가

경충한 작업반장이 송구스럽게 앉아있는 처녀를 보고 이렇게 말하며 꺾꺾 웃었다.

그렇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것이 혁명전사의 의리라는것을 자각한 처녀였다.

아름답고 성실한 새세대 방직공, 송경애의 얼굴에서 나는 수백수천의 방직공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나는 이들의 그 깨끗한 마음들에서 15억메터 천고지점령의 믿음직한 담보를 보았다.

취재길에서 돌아오는 나의 가슴은 직포공처녀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그득 차 올랐다.

비록 나와 한 약속은 지켜주지 않았어도... 이런 약속은 천번이라도 만번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여라고...

대답을 하라 무엇때문이나

정영호

바다위에 날뛰는 해적선들
핵폭탄을 실은 비행대들
어지러이 날아 치고
피비린내를 풍기는 포신들
오만스레 머리를 든다

《팀 스피리트 84》
《시험전쟁》 《예비전쟁》을
뻔뻔스레 뇌까리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놈들아

《오네스트존》과 《퍼싱-2》 순항미싸일...
듣기만해도 분격의 피를 끓이는
온갖 악명높은
살인무기들을 휘두르며
미친듯 덤벼들어

우리는 이미
네놈들과 한번 겨뤘본 사람들
세계의 면전에서
처음으로
네놈들을 내리막길로 굴러던진
영웅적조선인민

어림도 없다
우리의 마음처럼
저 티없이 맑은 하늘을
살기찬 폭연으로 흐리우려고
거리거리마다
넘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아츠러운 폭음으로 지워버리려고
각일각 밀려든단말인가

똑똑히 알라
벽돌장 하나 성한것 없는
채더미를 헤치고
철의 기둥을 세우며
네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
서리찬 맹세를 다지던 사람들이다

유치원의 해빛 밝은 창가에서
발품금에 맞추어
꽃리봉 나풀대는 어린것들도
미제, 네놈들의 이름만 들어도
서슴없이 저주를 퍼붓는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썬로

미제침략자들아
대답을 하라, 무엇때문이나
무엇때문에 수륙만리 떨어진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기여들어
화약내를 풍기며 란동을 벌리느냐

만약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네놈들이 쏘아 놓아야 할 대답은
오직 하나
죽음과 눈물과 한숨뿐
네놈들의 안식처는 그 어디에도 없다!